



함께 떠나는 글 여행 **언젠가
기억에서**

2013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문예지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김대경

발행처 지식정보센터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124번길 52

전화 031 828 8670

팩스 031 828 4959

인쇄 에드플러스 031 846 4735



함께 떠나는 글 여행 **언젠가
기억에서**

벚꽃 (하진용)	12	가을 (용준서)	36
달빛 여정 (양혜영)	13	단풍 (양다인)	37
예쁜 꽃 (임나연)	14	코스모스 (성미연)	38
먼 (하지수)	15	가을 (우민혁)	39
그림자 (하지수)	16	낙엽 (김복향)	40
단풍나무 (김진렬)	17	가을 (라춘실)	41
사계절화가 (신연우)	18	가을 산 (라춘실)	42
나비의 날개가 잘리면 (진주호)	19	부모님 (최다희)	43
사라지는 자리에서 무지개가 핀다 (진주호) ...	20	진짜 달은 어디에 (안수현)	44
창마 (전혜림)	21	우리집 세탁기 (한영숙)	45
웃음꽃이 피는 독도 (이가현)	22	벚꽃잎 질 무렵 (송호연)	46
가을 산과 낙엽 (윤다빈)	23	연실 (송호연)	47
변덕쟁이 (김나영)	24	강강술래 (이하은)	48
가을 속의 비밀 풍경 (김다은)	25	허얀 도화지 (이은주)	49
논두렁 (신유민)	26	개살구 (이은주)	50
가을 (고민채)	27	가을이 오네 (양나래)	51
가을 (주신아)	28	엑자 (추나경)	52
가을 (김재현)	29	양털구름 (박정화)	53
벚꽃 (김하늘)	30	추상 (이길선)	54
가을 (김민서)	31	노블레스 오블리주 (박태진)	55
알밤 (홍예진)	32	물의 향연 (박태진)	56
빗방울 (우민혁)	33	카무치노 (무명씨)	57
봄 (양민준)	34	낙엽 (무명씨)	58
낙엽의 슬픔 (김우석)	35	자화상 II (김하자)	59
		초가집 (배수빈)	60

수필

일상으로의 탈출 (양혜영)	64
어머니의 열녀비가 세워지던 날 (최용수)	66
어머니를 요양원에 떠나보내던 날 (최용수)	70
빛을 갖고 있는 사람 (김승용)	74
지난 세기의 겨울 밤, 그리고 우리의 우동 (김세정)	76
향기로운 사람 (박영록)	80
나의 바람 (조현미)	83

독후감상문

지구 오래 사용 설명서 (이송현)	86
행복과 행운의 차이 (나보람)	88
창검다리 이주홍 동화나라 (김명선)	90
목민지관(牧民之官)의 이순신 (강동화)	92
가치 있는 미래 (곽민주)	96
힌트 (김연우)	98
꿈꾸는 나 (조현서)	100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김의진)	102
'힘들어도 괜찮아'를 읽고 (추나경)	104
개그맨 (이현아)	106
'가시고기'를 읽고 (고희재)	108
'나의 리임 오렌지나무'를 읽고 (고희재)	110
두근두근 내 인생 (황계연)	112
이것은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다 (김미영)	114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김예진)	117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박금주)	121
두근두근 내 인생 (염진숙)	123
두근두근 내 인생 (이서진)	124
나의 꿈은, 어떤 행성은 (조용연)	126
땀아내지 말아야 할 눈물 (최경희)	130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최은실)	136
삶을 사랑하는 소년 아름의 이야기 (한일규)	140

기 타

달마산과 보길도 (김철중)	148
이국적인 섬 제주도에 다녀와서 (박소정)	154
혁명기 중국을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 (이경훈)	158
가슴으로 토해 내는 시 (남영태)	162
무제 (정혜민)	166
선생님께 (이예은)	168

2013 의정부시 올해의 책 독후감상문 공모 수상작

아이러니한 인생의 경계를 허물다 (임지연)	172
두근두근 우리 학교 (최지연)	176
내 인생은 참 '두근두근'해진다 (현정민)	181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문상희)	185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박성연)	189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지혜원)	193

2013년 어린이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수상작

착함의 의미 (이서윤).....	200
신사의 품격 (문예슬).....	202
'착함'이란 두 가지 (김예지).....	204
'이야기 기차'를 읽고 (양점윤).....	205
'이야기 기차'를 읽고 (서가은).....	206
'이야기 기차'를 읽고 (김윤경).....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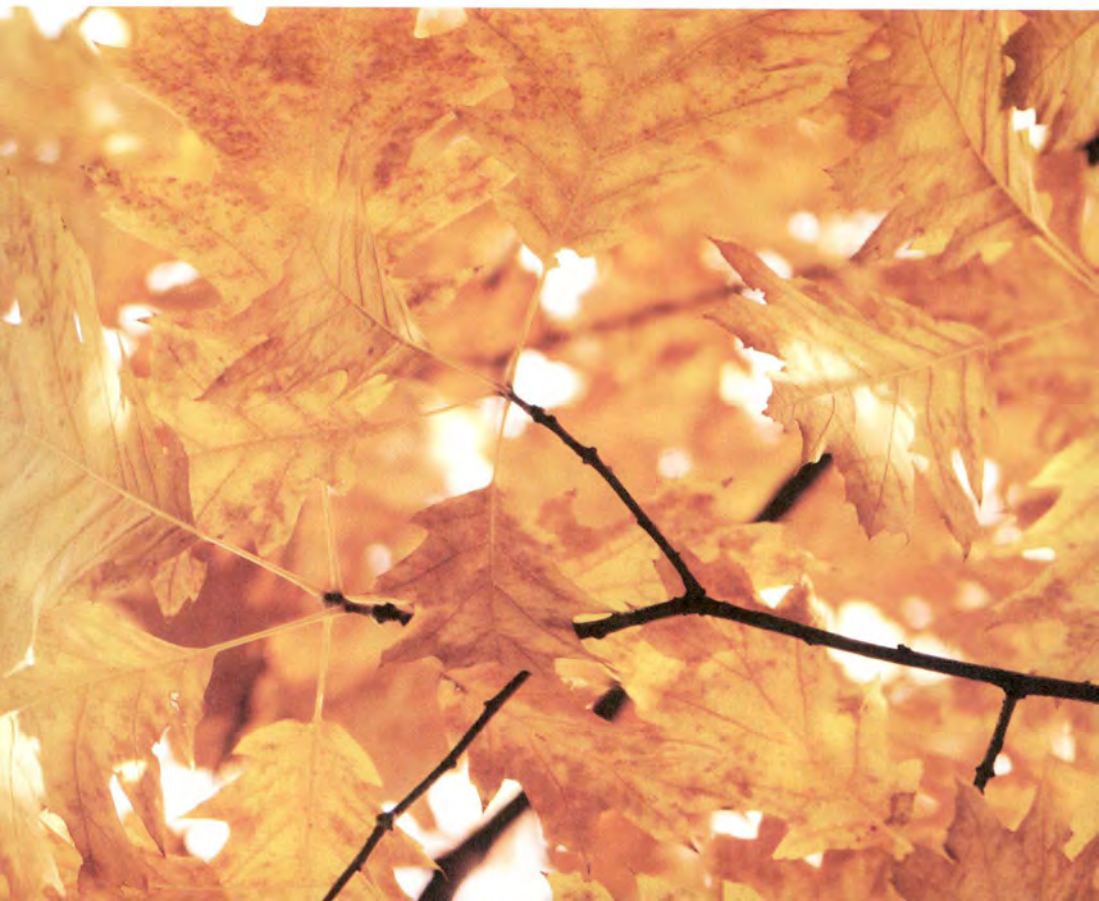
2013년 육군 제2군수 지원사령부 장병 독서감상문 경연 대회 수상작

모든 사랑 이야기는 닮아 있다 (신동철).....	210
사랑하기 때문에 (전찬혁).....	214
책 한 권에서 행복을 찾다 (안영준).....	217
시대를 초월한 마음-진심의 선순환 (박성규).....	221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서상우).....	225
나는 참 형편없는 리더였습니다 (양승혁).....	230

2013년 의정부시 직원 독서경진대회 수상작

철학을 모든 학문의 왕으로 즉위시켜 근대화를 이룩려한 철학자 (정세훈)	236
그들처럼 살 수 있다면 (이정숙)	239
나도 바보가 될 수 있는가 (서명학)	241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잤다 (김경화)	244
문화는 우리들 주변에 있다 (백남협)	248
딸에게 꼭 필요한 교육 (김운진)	253
컬립과 승부목이 완성하는 악당의 철학을 읽고 (강미정)	256





사춘기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봄이
어김없이
하얀 기쁨을 데려왔다.

지난겨울
잎들을 내팽개치고
벌레들에게 살이 찢기고
피를 내주는 동거를 택한 대가가
안타까웠지만
담담하게 이겨내는 나무의 의지가
눈의 환희를 불러왔다.

꽃봉오리가
마치 아기가 눈을 뜨듯
바들바들
있는 힘껏 힘을 내어 팔을 펴낸다.
줄기 속 박혀있던 묵은 고통을 씻어내듯
더욱더 환하게 희망을 보여준다.

달빛 여정

의정부시 의정부2동
양혜영

허공에 미소 지은 밝은 달
亭子(정자) 아래 살포시 내려와

벗을 삼으니
風流(풍류)가 절로 나오네

한 잔술에 별빛 담아
향수에 젖고 보니
故鄉(고향) 생각 절로 나는구나

귀뚜라미 노랫소리 가을을 재촉하고
바람에 힘 없이 나부끼는
나뭇잎의 춤사위는
환상의 멋진 논개의 모습

지금 이 순간 나는
술 잔속에 숨어 있는
행복과 어둠을 마셔본다

내 입술에 촉촉이
너를 느껴 보면서

예쁜 꽃

의정부시 호원동
임나연

우리 아파트 옆 화단에 가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예쁜
목련이 피어 있다.
좋아서 높이높이 뛰었더니
내 심장도 좋은지 쿵쿵쿵쿵 뛴다.
바람도 좋은지 살랑살랑 춤을 춘다.

합창 연습을 하러 예술의 전당 가는 길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있다.
하늘하늘 나는 노랑 나비떼 같아
기르고 심어 달려가니
개나리도 좋다고 몸을 흔든다,
바람도 좋다고 몸을 흔든다.

차가 못 오는 초록 마당에는
한빛유치원에서 내가 6살 때 반이던
진달래가 내 머리끈처럼 예쁘게
피어있다.
진달래 반 때 소풍 가서 먹은 유부초밥
김밥, 과자가 생각나 진달래 꽃잎을
따서 먹어보니 물감 맛이 나는 것 같다.
꽃은 예쁜데 맛을 왜 이럴까?
바람도 맛있지는 않은지 얼굴을
찡그린다.

먼

의정부시 용민로
하지수

하늘을 사랑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닿겠지
언젠가는 닿을 거야

너의 소나기, 눈송이, 내리쬐는 햇볕
모든 걸 사랑해

벽찬 마음 가득 담아 하늘에게 외쳤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너에게 난
그저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인 거니?

눈물 섞인 물음표만이
하늘에게 담지 못해 허공을 헤맨다.

그래도
너의 소나기, 눈송이, 내리쬐는 햇볕
모든 걸 사랑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사더라도
이 마음 절대 멈추지는 않을 거야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닿겠지
언젠가는 닿을 거야

그렇게 하늘을 사랑한다.

그림자

의정부시 용민로
하지수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걸로 만족했다
같은 땅 위에 서있다는 걸로 만족했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하늘과 땅 그 사이 거리보다도 멀더라
가까워질 수 없더라

별처럼 아름다운 너를 보고
내 나침반은 오직 너를 가리켰는데
너는 내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더라
가까워질 줄을 모르더라

내 마음을 뺏어내고 토해내도
너를 향해 물어도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쳐도
이 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
넌 알 수 없더라

하지만

너의 행복을 기도하며
난 오늘도 행복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너란 빛이 비쳤다
그 빛이 순간일지라도 나에겐 영원이었다

단풍나무

의정부시 신곡1동
김진렬

그녀는 단풍나무입니다.

그녀의 푸른 잎들은
아무리 따가운 가을 햇빛에도
물기가 전혀 없는 가을바람에도
붉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달빛에만
조금씩 조금씩
잎 끝자락부터 달빛이 배어서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지나고
또또 가을이 지났지만
단풍은 아직도 잎의 끝자락만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천년이 지나
그가 금성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단풍나무는 모두 물들어
파랗던 잎들이 이젠 눈부신 금빛으로 변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되었습니다.

사계절 화가

의정부시 민락동

신연우

봄이 오면 노란색 물감을

파릇파릇 새싹에 뿌려요.

여름이 오면 파란색 물감을

줄줄줄 냇가에 뿌려요.

가을이 오면 빨간색 물감을

울긋불긋 단풍나무에 뿌려요.

겨울이 오면 하얀색 물감을

평평평 온 세상에 뿌려요.

사계절은 몇쟁이 화가인가 봐요.

나비의 날개가 잘리면

의정부시 가능 1동

진주호

궤도를 도는
달 한 마리의 추적
자신을 뒤쫓고
평생 제자리를 찾는
사나운 어둠 속의 눈.

어둠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말없이도 수없이
잠들지 않는 별들
또 홀로 방황하는 머무름.

별이 지면
달이 뜨면
나는 알 수가 없네.
참 알 수가 없네.

나비의 날개가 잘려도
다시 날 수 있는지
허공에 머무른 저 별은
飛行 中인지...
非行 中인지...

사라지는 자리에서 무지개가 핀다

의정부시 가능 1동

친주호

사라지는 자리에서 무지개가 핀다.
빗물이 땅에 스미고
가지가 하늘을 메꾸는 자리
구름이 흩어지고
햇살이 빈 공간을 채워가는 도중에
잠깐 피는 오색달룩한 무지개
그 빛을 잠시 카메라에 담은 적이 있다.
잊혀지고 잊혀지지 말라고 잠시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 마음에 묻어두지 못한 채
그 풍경만 남았다.

조금 더 기다렸다면
일찍 비를 맞고 서 있었다면
그보다 먼저 비를 맞고 서서
함께 이 흐린 날을 날아오를 자신이 있었을까
화창한 날
나는 무지개가 보고 싶다
이 마음에 습도로 햇빛을 받아서
그대와 나와 이어지지 않는 추억들을 잊고
다가서도 다가가도
잡히지 않던 그 무지개를 타고 올라
내 마음에 잊힐리아 없을
무지개 끝 그대 가슴에도 달아두고 싶다.

장마

의정부시 신곡1동
전혜림

장마 장마 장마
지름이 달팽이한테 어떤 날일까?
빗속에서 축제하는 날

장마 장마 장마
청개구리한테 어떤 날일까?
엄마 무덤 떠내려가지 말라고
목쉬도록 우는 날

장마 장마 장마
우리 엄마한테 어떤 날일까?
동생 밤새 쉬한 이불빨래 걱정하는 날

장마 장마 장마
나한테 어떤 날일까?
왠지 찼찼해지는 날

웃음꽃이 피는 독도

의정부시 금오동

이가현

우산도 할아버지
촛대바위, 독립문바위, 얼굴바위도
할아버지를 보고 웃어요!

삼봉도 아빠!
팽이갈매기, 바다제비, 숨새도
아빠를 보고 웃어요!

가지도 큰형!
오징어, 명태, 연어, 송어도
큰형을 보고 웃어요!

석도 작은 형!
명아주, 비름, 질경이, 소나무도
작은 형을 보고 웃어요!

독도 나!
바위, 철새, 물고기, 식물들 모두
우리 가족을 보고 웃어요!
다케시마가 아니라
대한민국 독도를 보고
웃음꽃이 피어요!

가을 산과 낙엽

덕산초 1

윤다빈

가을 산과 낙엽은 친구 사이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허름한 가을 산을 덮어 줍니다.
가을 산이 춥다고 하면
주르륵 내려와 따뜻한 이불이 됩니다.
가을 산이 심심해하면
사뿐히 내려와
비람과 신나게 춤을 춥니다.

변덕쟁이

익순초 5

김나영

가을은 변덕쟁이야
나뭇잎도 초록색이었다가
자기 몸을 고운 색깔로 예쁘게 치장해

가을은 모두 변덕쟁이야
아침에는 입김을 후 불고
점심에는 해맑은 얼굴로 웃어

가을은 변덕쟁이야

가을 속의 비밀 풍경

발곡초 4

김다은

가을바람 불어오면
고개 속인 벼도
무거운 허리 들고
방긋하고 웃어준다.

바람에 몸을 맡긴 참새는
허수아비 몰래 곡식을 먹으러 간다.

허리 아픈 벼는 빨리 옷을 벗고 싶고
배고픈 참새는 허수아비와 친구 되어
곡식 먹고 싶어 한다.

논두렁

의순초 5

신유민

나머지 공부는 늦게 끝난다.
혼자 걷는다.
혼자 걸어서 외로워서 벼들에게 인사한다.

저쪽의 한 벼는 우뚝 서서 인사한다.
나도 같이 인사해 준다.
“안녕하세요.”
벼가 군대 같다
벼 군대와 대화하며 집까지 같이 걸어간다.
“내일도 나머지 공부할게”
내일도 벼 군대와 같이 걷고 싶다.

가을

의순초 5

고민채

바람이 나를 창문으로 부른다.

시원한 바람을 보내준다.

나에게 햇빛을 소개시켜 준다.

햇빛은 나에게 이불처럼

포근한 햇살을 보내준다.

바람과 햇빛이 매일 나를 창문으로 초대한다.

나는 매일 창문으로 가서

바람과 햇빛이라 가을 소풍을 간다.

가을

호원초 2

주신아

가을이 되면
산은 멋을 부린다.

곱게 염색을 하고
땅에 낙엽을 떨어뜨려
땅도 곱게 칠한다.

멋진 손님이나
좋아하는 친구가 오나 보다.

가을

호원초 2

김재현

바람이 이른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
나뭇잎 깨워 같이
운동을 나갔다.
공원이 저 앞에 있다.
바람과 나뭇잎
손을 꼭 잡고
꼭 잡고
공원으로 들어간다.

벚꽃

덕산초 5

김하늘

엄마랑 오순도순
손잡고 잠이 든다.

황사야 저리 가라
친구들을 지켜주고
봄의 전령사가 되는
아름다운 당신은 누구신가요?

잠에서 깨버렸다.
아직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내 옆에 와 있는 당신
벚꽃

가을

덕산초 1
김민서

낙엽이 춤을 춘다.
떨어진 낙엽도 흥겹게 춤을 춘다.
나무는 날아가는
아이들을 걱정한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된다고
낙엽과 바람이 말하며
데리고 간다.

알밤

발곡초 4

홍예진

가시 잠바 어디 있니?
바닥에 뒹굴고 있다.
참 따갑구나!
넌 도대체 어디로 여행 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천적 다람쥐
나를 찾아다니한다고

빗방울

덕산초 3

우민혁

작은 물방울들이
사정없이 떨어진다.
꽃들은 기분 좋아 계속 웃는다.

작은 물방울들이
우산에서 미끄러지면서도
웃고 있다.

봄

덕산초 4

양민준

겨울이 도망갔다.
봄바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과 대화 나누고
햇빛을 데리고 나와
벚꽃과 같이 춤을 춘다.

봄비가 풀들을 샤워시키면
봄바람이 물기를 없애준다.
새싹이 난다.

낙엽의 슬픔

가능초 1

김우석

낙엽을
마음으로 느꼈는데
살려 달라고 말을 했다.
나는 불쌍해서
집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슬펐다.

가을

덕산초 3

용준서

가을은 음악단이다.

단풍잎은 사랑 사랑

다람쥐는 꼬르르

잠자리는 슈우웅

곡식들은 관람객

허수아비는 지휘자

하하 호호

재미있는

가을 음악회

단풍

덕산초 2
양다인

가을이 되면
빨간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가 초원으로 떨어진다.

초원에 누워서
낮잠을 잔다.
“쿨쿨”
소리를 내며
기분 좋게 누워서 있다가

계절이 바뀌면
잠에서 깨어
빨간 옷을 벗는다.

가을이 되면
주황색 옷으로 바꾸어 입고
은행잎과 친구가 된다.

코스모스

가능초 4

성미연

난 코스모스의
마음을 안다.
가을이 없어지기 전에
아름다움을 보여 주려는
마음씨가 참 곱다.
꽃잎을 날리며
단풍나무와 이야기하는 소리
나에게는
가을이 아름답다는 소리로 들린다.

가을

덕산초 3

우민혁

다람쥐가
밤, 도토리
저축하는 계절
청설모는 도둑질하는 계절
동물도 인간도
밤, 도토리
얻으려고
일하는 계절

낙엽

덕산초 5

김복향

가을이면
어김없이
싸우는 나뭇잎들
서열 싸움에서 진 나뭇잎들
바닥으로 추락한다.

추락해서 뽀얀 나뭇잎
봄이 되면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아픔을 참는다.

가을

의정부시 오목로
라촌실

파란 종이 한 장
하얀 구름송이는
하나 둘 모여
조개 밭을 만들고
다시 몽쳐
꿈이 되었다
아니 강아지로 변하고
누가 붓을 흔들었는지
다 지워진
그 위로
백로 한 마리
날아오른다

가을 산

의정부시 오목로 라춘실

많은 것을 품은 가을 산
새봄 새순 키워 숲 이루고
그 숲에 딱따구리 빠꾸기
모두 모여 먹이 구하고

이제 뜨거웠던 여름 지나고
비바람 천둥번개 이겨낸 산
그 품에 향기와 열매가 가득

다람쥐에게 잘 익은 열매 나눠주고
쑥부쟁이 구절초 향기에 끌려 들어간
아무것도 한일 없는 우리네들
한 손 가득 도토리알밤을

따뜻한 색으로 갈아입은 가을 산
향기와 열매로 우리네 마음과 몸을
보살펴 주시는 어머니처럼
너그러움을 산이 나눠 주고 있다

부모님

배영초 6

최다희

조국의 성장기를 몸으로 맞서 이겨낸

자랑스러운 나의 부모님.

조국의 성장통을 모두 하나 되어 견뎌낸

감사한 나의 부모님.

한강의 기적이란 이름 아래, 세찬 물살에도 곳곳이 흘러온 그

시절 젊은 날의 나의 부모님.

진짜 달은 어디에

경민고 1

안수현

진짜 달은 어디에 있는가

휘날리는 풍경의 유리창 속에도

오묘히 흘러가는 강 속에도

흔들리는 내 마음속에도

떠 있건만

흩뿌려진 어둠의

반짝임에 흑해

찾을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그대

진짜 달은 어디에 있는가

잡히지 않는 그대

진짜 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집 세탁기

의정부시 신곡2동
한영숙

오래된 세탁기
돌아간다.
찌^깍 찌^깍,
아픈 몸 이끌고
잘도 돌아간다.

목은 빨래 목구멍까지 쑤셔 넣고
차마 빨지 못하는 고달픔이여!
예순 환갑 다 지나고
마디마디 찾아온 관절염.

찌^깍 찌^깍

이 한 몸 다할 때까지
주인님 위해 일할게요.

오래전 기사 양반
증대질병 진단 내렸건만
충실한 종의 역할
차마 버릴 수 없어.

아픈 몸 부여잡고
오늘도 돌아간다.
휴가 한 번 못 가고.

벚꽃이 질 무렵

송호연

여린 입 그 꽃잎이 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하늘 위 태양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

시린 입술 위로 굳어버린 미소는
봄의 첫 단추 아래 매마름 뒤 단비를 주고

누가 내게 주고 간 미소인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되뇌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한마디..

꽃은 꽃대로 피고 지고
나는 나대로 피고 지고

시린 입술 위로 내려앉은 눈물은
겨울의 끝자락 위로 낙엽 하나를 머금고

누가 내게 주고 간 눈물인지

내 눈잔등에 축축한 이슬을 자아내고
아름다운 희망하나 던져준다.

수없이 많은 질문을 되뇌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여전히 한마디...

꽃은 꽃대로 피고 지고
나는 나대로 피고 지고

연실

송효연

나를 잊지도
그를 잊지도
못했던
그 얇디얇은 실 한 줄에

그가 날 의지하고
내가 그를 의지하며

어떤 일이 있을지도
서로 예감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여린아이들 고무줄놀이의
끊긴 실마냥 그와 난..

아무런 준비 없이 겨울의 이별을
맞이하고 말았다

우리 사이의 실이 얇아서일까
그와 잡은 실을 놓아서일까

그가 놓았던 건 혹여라도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울며 불며 기대하며

나는 보내는 쪽이 되어
그는 떠나는 쪽이 되어

지금 손가락에 실을 감아
그를 미련 삼아 추억한다

아직 잊고 있음을 기대하며
아직 잊고 있음을 망각하며.

강강술래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은

바람 부는 날

낙엽이 나네

어랏!!

비닐봉지와 낙엽이

빙빙 돌아

꼭 강강술래

하는 것 같아

아하!!

비닐봉지와 낙엽은

오늘이 추석인가 봐.

하얀 도화지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이은주

옛날 내가 어렸을 때는
하얀 도화지처럼 순수했겠지.

그러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나쁜 생각 빨간색, 거짓말은 검정색,
놀림은 노란색 등으로
하얀 도화지가 마구마구
얼룩덜룩 물들여져 있겠지.

지금은 지금은
4분의 1만 되어 있을 뿐이지,
좀 더 커서 어른이 되면은
얼마나 더 물들여져 있을까.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얀 도화지의 색깔

개살구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이은주

개살구는,
살구보다 쓰디쓰다.
쓰디쓴 인생처럼

개살구는,
살구보다 뒤쳐진다.
부족함 느끼는 사람처럼

마지막으로 개살구는,
울퉁불퉁 못생겼다.
마음이 못생긴 사람처럼

개살구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많이 닮았다.

가을이 오네

버들개초 3

양나래

가을이 하늘하늘 날아오네
가을바람 저 멀리 손짓하고서
나를 보고 오라고 부르네

가을이 나풀나풀 날아오네
코스모스도 단풍잎도
오색빛깔 날리며 내 옷깃에 날아드네

찬바람 뽕뽕 불면
내 마음도 쓸쓸해지네
가을은 외로운가 봐

액자

용현초 3

추나경

액자는 소중한니다.

좋은 추억 가득

담을 수 있어서

액자는 소중한니다

행복한 얼굴도

담을 수 있어서

액자가 정말 소중한 이유는

우리 가족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털구름

의정부시 신곡2동
박정화

하늘엔 양털 구름
몽게몽게
흘러가고

고속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엉금 엉금 기어가네

양털 구름 불러 내어 타고
하늘길로 날아가면 좋겠네.

추상

의정부시 평화로

이길선

아침에 새가 울고 간다
뜰 아래
오동잎 하날 떨구고
숨죽이고 가만히 선
머리 위엔 바다가 있다,
아프도록 눈 시린 하늘이
이제 곧,
파아란 비를 내릴 것 같다,
이브의 과실이
그녀의 사랑처럼
붉은 불을 하고
수줍은 결실을 기다릴 때에
석양에 불붙어 버린
산은
시집 간 내 언니가 그리웁도록
그렇게 고운 옷을 입고
저 기슭 저 끝으로
조용히 긴 그림자
드리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정부시 부용로
박태진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남보다 잘되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고통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자신감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고통을
감싸 안아야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다.

아물지 않고
아픔으로 남아있는 상처
한 조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단지 조금 더 작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듬어 주며 사는 것이
다.

물의 향연

의정부시 부용로
박태진

물이 춤을 춥니다
세상 그 어떤 춤보다
열정적이고 우아한 몸짓으로
바람을 가릅니다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의 반복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파아란 하늘이 반갑게 손을 내밉니다.
그 끝에
여름의 싱그러움이 묻어납니다.

카푸치노

무명씨

마당 주차장가에
색색의 단풍나무들
아~! 곱기도 하여라
매일이 다르게 짙어지는 색
오늘 새벽 스쳐간 비에
더욱더 곱게 붉어져
저리도 어여쁜 빛깔이 되었나
오늘은 더 여러 번 내려다보다가
아예 방석 깔고 앉아서
카푸치노 커피잔을 흔들흔들 흔들어
향을 날리며
새빨간, 샛노란 색의 향연에
난 커피향을 타고 하늘을 나네

낙엽

무명씨

낙엽 지는 것이
어디 나무 뿐이라
사람의 육신도 세월의 물결에 따라
낙엽이 진다
늘어만 가는 주름
희어지는 머리
아픈 곳은 여기저기
그러나 훔날리는 낙엽을 보며
황혼의 내 인생을 고즈넉이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
이것이 아름다운 낙엽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네

자 화 상(|||)

의정부시 호원1동
김화자

문득
거울 속에서
쫄쫄쫄 볼품없는 얼굴을 본다.

‘꿈’에 대한 아쉬움이
눈 가 주름 사이로
아직도 넘실거린다.
차마
버릴 수가 없었나 보다.

자식들이 놀았던 그 자리
손자들이 놀았던 그 자리에서
지금은
손 손자들이 재물을 피운다.

손 손자들마저
내 품을 떠난다 해도
애틀한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
넘실거리는 욕심도 함께 보내자

그리고 보니
지금
나
꽤
오래 살았구나.

초가집

의정부시 신곡1동
배수빈

할머니 댁 놀러 가자, 우리 모두 같이,
할머니 댁 도착하면 우릴 반겨주는 초가집

처마 아래 매달린 노오란 풍경,
초가집 위에 떨어질랑 말랑하는 노오란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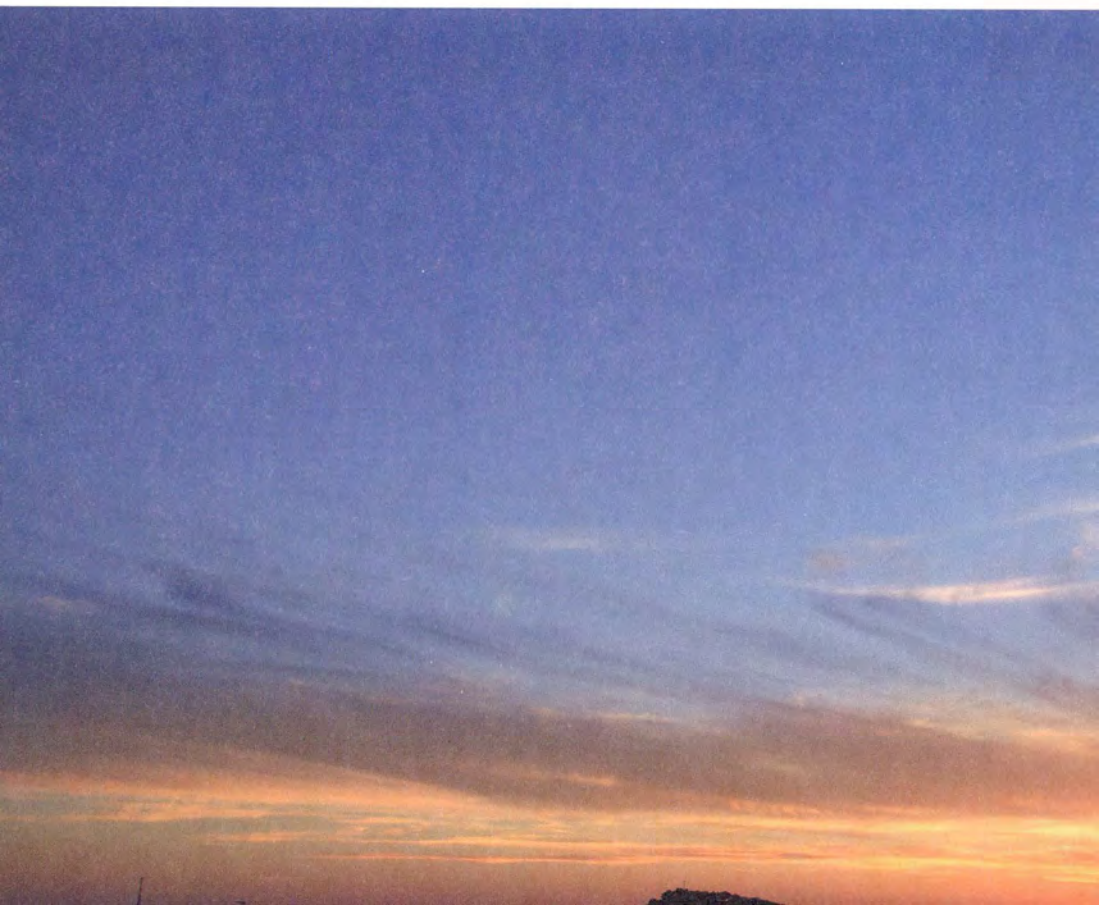
여럿이 동시에 입을 찹,
할머니는 지그시 하하 호호,

마루에 앉아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할머니가 주신 감자, 고구마 먹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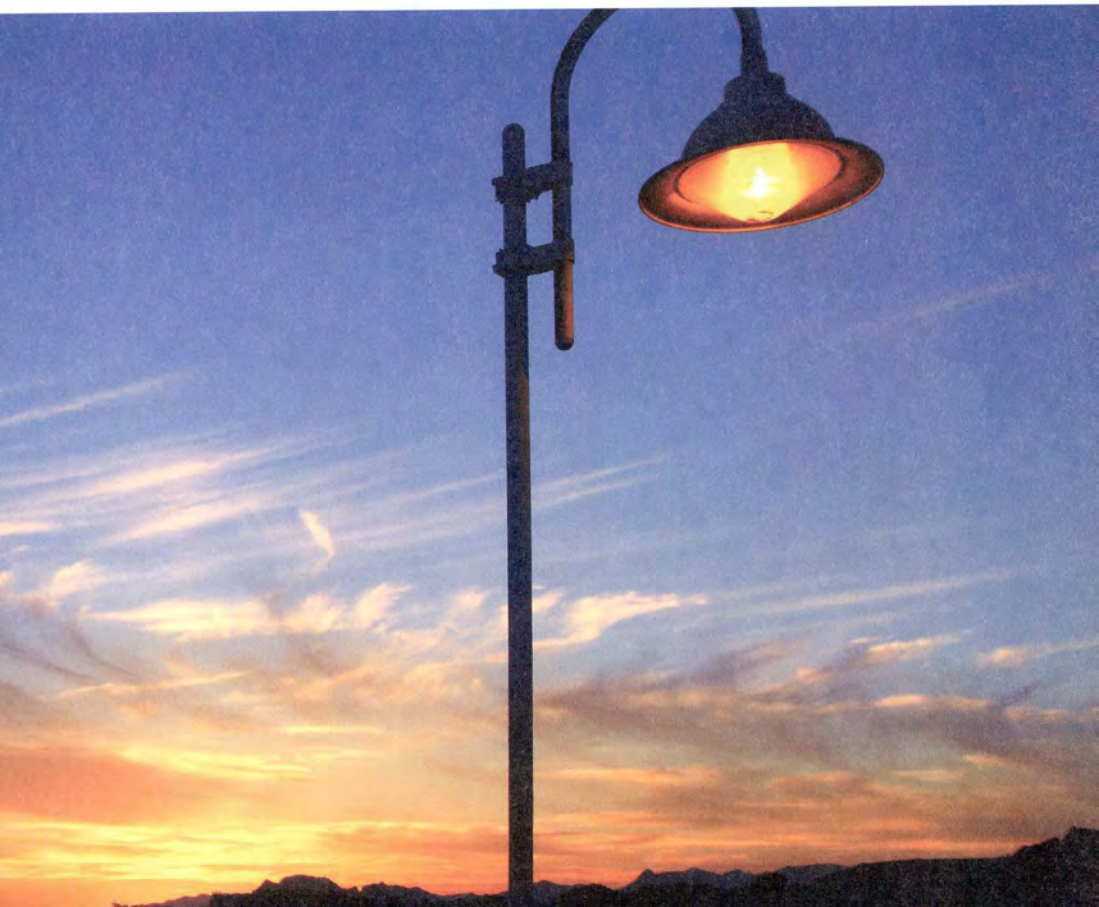
할머니와 도락 도락 이야기꽃 나누다
어느새 하루가 지났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여 백



수 필



일상으로의 탈출

의정부시 의정부2동
양혜영

세탁기 속 빨래 돌아가듯 일주일 정신없고 바빴던 일상을 벗어나 나무와 풀내음이 나를 반기는 그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파란 도화지에 하얀 물감을 뿌려 놓은 듯 높디높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방향을 한다. 반짝이는 날개를 펼치며 자유롭게 이리저리 들판을 누비고 날아가는 고추잠자리는 나를 반기며 웃는다. 아름답고 조용한 음률이 신선한 바람을 타고 나의 얇은 귀를 자극한다. 여름 내내 예쁘게 포장 속에 숨어 있던 보랏빛 포도송이가 살며시 얼굴을 내밀며 주인을 기다렸던 때가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나뭇잎이 하나둘씩 옷을 벗어던지고 가느다랗게 갈색 가지를 보이니 여지없이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뚜벅뚜벅 무슨 소리일까?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의 뒤에서 도란도란 가을 이야기꽃을 피우며 걷고 있는 모습이 참 정답게만 보이니 이야기 소리마저 내 귓가에는 노랫가락으로 들려온다. 배낭 메고 산길을 거닐며 장대 하나 손에 쥐고 이리저리 뭉가 땅을 휘~이 저으며 걸어가는 나이 먹은 아낙네가 나의 시선을 이끈다. 아~ 운동하시는 걸까? 그런데 덩그렁고 푹~튀어나온 저 무거운 배낭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순간 하하하~ 속으로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것은 바로 알밤이었다. 얼마나 많이 주웠길래 잘못하면 구부러진 어깨가 땅에 닿을까봐 염려스러웠다. 그리고 보니 저번 주에는 밤송이가 대롱대롱 가지에서 그네를 타더니만 오늘은 입이 딱 벌어진 채 텅 빈 집만 가지에서 바람에 떨어질세라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다. 내 발 아래 남겨진 여러 모양의 발자국을 보노라니 많은 사연들을 남기고 그들이 걸어간 이 길이 아픔이 아닌 기쁨의 흔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시간이 흘렀을까? 항상 내 몸이 쉬어 가는 그곳에 나는 멈추어 서 있었다. 갈색 타원형으로 선을 뿜내고 굵고 짧은 굴곡엔 회색빛 연기가 머리를 풀어헤치듯 하늘로 향해 승천하는 모습이었다. 누렇게 감싸 안은 흙집 카페 여주인의 손놀림이 분주하고 투명한 넓은 유리창 안에는 미소 띤 아이들이 참새처럼 재잘재잘대며 이에 뒤질세라 웅성웅성 어른들 입가엔 구수한 옛이야기가 가을바람을 타고 문틈으로 흘러나온다. 저마다 이마 위에 새겨진 주름들이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듯 그것조차 아름답게 보인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 벤치가 나

를 기다리는 듯했다. 아픈 다리 잠시 쉬어 가라는 듯. 부드러운 카페라떼 한 잔에 목을 적시니 내 몸은 어느새 달콤한 초콜릿을 삼킨 듯 피로감이 잠자는 것처럼 나른해움을 느꼈다. 찻집에서 귀에 익숙한 클래식 한 곡이 살며시 내 귓가에 노크한다. 무슨 곡인가 유심히 귀 쫓긋하고 들어보니 사랑의 엘가였다.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중에 한 곡이다. 순간~나도 모르게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져움을 느꼈다. 나는 요즘 취미라면 취미일까? 저번에 English story book 10권을 구입했다. 수준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즐겨 읽을 만한 아주 간단한 동화가 삽입되어 있는 작은 영어책자이다. 나이 먹어서 읽어 내려가려니, 힘들고 알 수 없는 몇 개의 단어들이 뇌 속에 파리를 틀고 자리를 잡아 짜증나게 할 때면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에 게 들어가면서 해설을 풀어가는 것도 재미가 솔솔 너무너무 좋았다. 영어 문장을 해석하고 나면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라 할까? 아무튼 성취감을 느껴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차츰차츰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나도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참 오래도 흘렀나보다 해가 증턱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해님이 나에게 인사를 하며 묻는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라고. 대답 대신 밝은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 속에 비친 나의 마음을 저 해님은 알고 있을까? 오늘도 영화와 같은 추억이 과거 속으로 사라져 간다. 내일은 어떤 숙제가 나를 기다릴 것인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여기 찾아와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고 쉬어 가곤 한다. 가끔 이렇게 행복이란 공간을 만들어 여유를 만끽하면서 세상 무대에 서있는 나를 되돌아 본다. 나는 지금 내일 내가 설 무대로 발길을 옮긴다. 예쁘지 않고 보는 이 없어도 나는 그 무대에서 말은 바 열심히 춤추고 노래할 것이다.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삶의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어머니의 열네비가 세워지던 날

의정부시 장곡로

최몽수

내 어머니의 생애(生涯)는 외로움이 뼈끝까지 사무치는 고독한 삶이었다. 나는 “어머니 살 아생전에 열네비를 세워드려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무척 바빠 서둘렀다. 그 날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열네(표행)비 제막식이 거행되던, 그 날만해도 건강하고, 당당하시던 어머니였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머니(金海金氏 文敬公派)는 1921년 4월 15일 5남매 중 오빠 한분을 위로 두고, 큰딸로 태어났다. 1939년 18세의 나이에 전주사범학교에 다니던 16세의 아버지와 결혼하였고, 슬하에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 아버지는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신안군 비금초등학교를 거쳐 중앙초등학교 선생님이로 근무하셨다. '새댁'이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져 따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연로(年老)하신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시골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는 서울공덕초등학교로 전근(轉勤)을 하였다. 농촌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농사짓던 어머니는 결혼 한지 10여년 만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새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그러나 늙으신 시부모님을 농촌에 남겨두고, 홀연히 떠나는 것이 늘 아음 아팠다고 한다.

어머니는 젖먹이 동생을 키우며 아버지 뒷바라지에 바쁜 나날이었다. 하지만, 우리 네 식구는 모처럼 오붓한 서울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 내 어린 시절, 그 때가 가장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6.25전쟁은 우리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고 말았다. 학교에 출근하신 아버지는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단란했던 우리 가정은 하루아침에 험한 가시밭길로 내몰린 것이다. 날마다 퍼붓는 폭격을 피해가며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어머니는 어느날 문득 “두 아들만은 꼭 살려서 시골 시부모님에게 보내야 한다.”는 고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강박감에 짓눌린 어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였다. 열 살이던 나는 걸리고, 네 살짜리 동생은 등에 업고, 유복자인 막내 동생은 뱃속에 안고, 서울을 떠나 천리(500km)길이 넘는 시골 할아버지 집을 찾아 피난길에 오른 것이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한여름 우리 세 식구는 끼니 때가 되어 배가 고프면 밥은 얻어먹고, 잠은 담벼락을

의지하여 새우잠을 자고, 무작정 남쪽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밤낮없이 두어 달 동안 걸어 온 농촌 들판은 어느덧 황금빛 물결로 넘실대고 있었다. 끝도 없이 멀게만 느껴지던 할아버지 집이었다. 하지만 추석을 며칠 앞두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쟁으로 연락이 두절된 서울 식구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느 날 뜻밖에 우리 세 식구가 나타난 것이다. 두 분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며 두 손자를 부둥켜 안고 “아이고 내 새끼들 왔구나!”를 연발하며 그 반가움에 흐느끼던 할머니가 갑자기 “너희 아버지는 어디?”하고 찾는 것이었다. 미처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그 불행을 벌써 예감한 듯 그 설움에 북받쳐 손바닥으로 땅을 치며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다. 두 분은 아버지의 생사를 노심초사(勞心焦思) 걱정하시다 끝내 병석에 눕고 말았다. 그로부터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시부모님을 모시었다. 그리고 그 많은 농사를 지으며 아들 셋을 키우고, 가르치면서 젊음을 다 바친 것이다. 그래도 “둘째 아들이 대법원 서기관으로 막내아들은 대법원 기관실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 어머니의 위안이고, 큰 보람이었다. 지금의 큰 아들은 문예 창작 공부에 몰두하고 있고 둘째는 법무사로 막내는 법원 연수원에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있다.

어머니의 “시부모님 모시는 그 효성은 참으로 극진하였다. 살아생전에는 효도를 다하여 봉양하였고, 병환 중에는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였다. 또 시부모님이 작고하신 뒤에는 정성으로 3년 상을 모두 치렀다.” 그 지극한 정성에 감탄한 동네 어른들은 “그 효성은 모든 여인들의 귀감이 된다.”고 칭송을 하며 그 효행을 지도읍 향교에 알렸다. 향교에서는 “그 효행을 다시 서울 성균관에 추천하였고, 그 사실을 확인한 성균관장 최근덕은 1997년 3월 3일 그 효열은 타의 귀감(龜鑑)이 되므로 표창합니다.”라는 표창장을 어머니(김성엽)에게 내렸다. 그 효행을 성균관에 추천해주신 향교 전교민, 그 효열(孝烈)을 표창해주신 성균관장님, 그리고 열녀(효행)비를 세우는데 도움주신 모든 분들의 그 은혜 잊지 않고, 오래도록 가슴깊이 담아놓을 것이다.

우리 삼형제는 온 정성을 모아 오석(烏石)을 조각(彫刻)하고, 갈고 다듬어 아담한 열녀(효

행)비를 고향 동구 밖에 세웠다. 열녀비 제막식은 온 산과 들에 신록이 싱그러운 따뜻한 봄날(1998. 3. 28)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향교의 주관으로 전교님의 테이프 절단과 비문 낭독에 이어 지도읍장의 축사와 문중의 답사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날 귀빈으로는 향교 전교님과 그 임원, 신안군청 내무과장 김상진, 지도읍장 최명옥, 지도읍민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천리 길을 머다 압고, 찾아준 서울 덕우회 회원, 지명중학교동창들의 그 성의는 나를 더없이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 날 대법원과 신안군청, 덕우회, 중학교 동창회에서 보내온 화환은 그날의 행사를 더욱 빛내주고 있었다.

나는 열녀비 제막식 잔치날에 대접할 음식으로 소, 돼지 각 한 마리를 준비하였고, 흥이 다섯 상자, 도시락 300여개, 떡과 생선을 마련하였다. 그날 참석한 덕우회 친구들은 그 때 먹었던 “육회 맛은 천하 일미였다.”고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며 침을 삼킨다. 그 날 잔치를 모두 마치고, 한 자리에 모인 문중 어르신들은 “소를 잡고, 손님을 접대한 잔치는 서촌마을을 생긴 이래 우리 집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수고 많았다.”고 나를 칭찬을 해주었다. 그 순간 열녀비를 세우며 동분서주하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가슴이 뭉클하였다. 덩달아 동네어르신들도 “홀로 외롭게 살아온 어머니를 위해 효열비를 세웠다.”며 “아주 장한 일을 했다.”고 격려해주었다.

어머니는 열녀비가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내색은 한 번도 없다. 그 삶의 외로움이 얼마나 크고, 고독하였으면 열녀란 말조차 입에 올리는 것이 거북하실까? 불효자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다. 열녀(효행)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한 많은 어머니의 삶에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열녀(효행)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효행과 정절의 행적은 후손들의 길잡이가 되어 귀중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고, 또한 시부모님을 효성으로 모시고, 한평생 아들 셋을 위해 일부종사(一夫從事)한 장한 어머니의 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어머니가 천리 길의 할아버지를 찾지 않고, 만일 우리 삼형제를 서울에 그대로 두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과연 어찌되었을까?

요즘 시대의 여인들은 옛날과 달리 정조 관념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매년 이혼율도 급

증하는 추세다. 또한 “부모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내다 버리는 자식도 있다.”고 한다. 부모에 효도하는 자식, 홀로되어 정절을 지키며 시부모를 효성으로 모시는 며느리,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홀어머니, 그분들의 행적을 찾아 널리 알리고, 포상하는 제도를 넓히면 많은 사람들의 인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내 어머니의 효행과 그 정절의 효열비는 많은 여인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18세의 나이에 최씨 가문에 시집와서 30세에 홀로되었다. 그 험난하고, 고된 삶을 오직 효열의 정신으로 살아오신 분이다. 93세의 어머니는 기력도 정신도 쇠잔하고, 거동마저 불편하시어 이제는 열녀의 품위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 나도 이제 부모가 되어 어머니를 바라보는 불효자의 마음속에 효열비는 삶의 지표가 되고 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떠나보내던 날

의정부시 장곡로

최용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저 멀리서 착실하게 다가오는 겨울의 발소리 벌써 들리는 듯하다. 내 어머니는 2011년 12월 23일 요양원으로 보내어졌다. 어머니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가기 싫다.”고 하였다. 나도 싫었다. 하지만, 안 갈수가 없었다. 오늘 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2년 전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떠나던 그날을 문득 생각나게 한다.

어머니는 90세를 넘기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몸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가끔 엉뚱한 헛소리까지 하였다. 어쩔 수없이 간병인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병세가 호전되어 6개월여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환이라 완치는 안 되고, 약으로 조심조심 겨우 지내시던, 어느 날부터 밤이면 사고를 치신다. 어떤 날 밤에는 거처하는 방바닥 장판을 뽕뽕 뜯어 놓는다. 왜 그랬느냐고 물으면 “온통 방바닥이 곰팡이 천지여서 뜯어냈다.”고 한다. 또 며칠 지나면 걸레를 가지고 밤새도록 증얼증얼하며 방바닥을 닦고 있다. “벽에서 물이 쿨쿨 샌다.”는 것이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부스럭 소리에 잠이 깨어 거실로 뛰쳐나갔다. 그런데 어둡컴컴한 거실 출입문에서 허수아비가 무슨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다. 너무 무서워 “누구나!”고 소리쳤다. 뒤따르던 아내는 뜻밖의 고함소리에 놀라 “여보 왜 그래요” 하면서 전기불을 켜고 있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등골이 오싹하여 식은땀이 솟았다. 한밤중에 어머니는 빨간 털모자를 쓰고, 양말은 한 짝만 신고, 이불보따리를 등에 메고, 거실을 서성거리셨다.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먹먹하였다. 어머니는 방에 설치된 TV선과 전화선을 모두 뜯어 그 줄로 밤새도록 이불을 공공 묶고, 남은 선으로는 어깨와 목을 칭칭 감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등에 묶여있는 이불보따리를 벗겨내고, 방 안으로 모시면서 “왜 자꾸 이러세요, 속상하게!” 그 말끝에 어머니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주머니는 누구시요, 어디서 왔소, 참 고맙소!”하였다. 그래도 나는 알아보고 헛웃음을 치며 “얘야 아까는 검은 한복을 입은 두 아주머니가 찾아와 빨리 가자며 끌고 가는데, 신발 한 짝이 없어져 찾은 중이었다. 아이고, 혼났

다.”며 “여기 우리 집 맞느냐?”고 물으셨다.

그 증세는 날로 더해졌다. 어느 날은 “식사를 삼고, 죽는다.”고 고집을 부리고, 또 “얼굴에서 까만 모래가 나온다.”고 가위로 얼굴을 긁어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입던 옷을 가위로 잘라서 바느질을 하기도 한다.

아내는 허리디스크가 심하여 어머니를 끌어안고, 일으키고, 눕히는 일은 못한다. 내가 옆에서 조금씩 돕지만, 더 이상 버티기는 나도 힘이 들었다. 그래서 두 동생을 불러놓고, 의논하였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간병인이 있는 병원은 적잖은 비용이 문제였다. 그 때문에 요양원에 모시기로 하였다. 나는 목사인 큰사위 김서방에게 시설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 연락이 왔다.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인데, 시설이 좋다.”며 오늘 중으로 들어왔으면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란 다. 나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와 마주앉아 어렵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 있으면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때, 김 서방이 그러는데 간호사도 있고, 간병인이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하면서 설득을 하였다. 하지만, 막무가내였다. “나 여기서 지내다 죽으면 안 되겠냐?”며 오히려 사정을 하며 “가기 싫다.”고 하신다. 그 순간 견딜 수없는 죄책감에 눈물보다 더 큰 서글픔이 밀려들었다. “어머니, 내가 거들기가 힘들어서 그래, 그곳에 가는 것이 그렇게 싫어?” 하고 짜증을 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알았다. 네가 힘들다면 내가 떠나야지 어떻게 하겠냐?”며 돌아앉는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서 어머니를 승용차에 태우고, 의정부 집을 떠나 김포에 있다는 요양원을 찾아 떠났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그날따라 눈발이 곧 쏟아질 듯 하늘마저 잔뜩 찌푸려 있었다. 한강다리를 건너고, 김포 시내를 벗어나는데 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이었다. 울퉁불퉁한 시골길은 흐린 날씨를 더 을씨년스럽게 하였다. 무심히 차창 밖을 내다보던 어머니는 쓸쓸한 농촌 들판이 마음에 걸렸는지,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내는 급한 마음에 “어머니 불편하시면 집으로 돌아가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버럭 화를 내며 “차라리 나를 여기서다 버려라.”며 호통을 치며 우셨다. 아내는 당황하여 나를

돌아보는 그 표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는 눈치였다. 그 순간 내 마음도 착잡하고, 난 감하였다.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튼 우리는 집을 나선지 두어 시간여 만에 요양원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목사가 달려 나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와 나는 관리인의 안내로 요양원 곳곳을 두루 살펴보았다. 그 동안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만 홀로 남겨두고, 돌아오려니 몹시 슬펐다. “어머니 우리 갈게요. 이제는 집도 자식들도 모두 잊고, 딴 생각 말고, 밥은 꼭 챙겨 먹어~ 응 곧 올게!” 어머니는 체념한 듯 눈물을 흘리며 “갈 길이 멀더라, 어여 가거라.” 하신다. 아내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훌쩍였다. 어머니를 낳선 땅, 낳선 시골, 낳선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홀연히 돌아서는 내 가슴은 미어졌다.

우리 부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늙었늙었 땅거미가 내렸다. 어머니가 날마다 누워있던 침대가 텅 비어 너무나 허전하였다. 문득 옛날 고려장(高麗葬)이 떠올라 슬픔은 더했다. 나는 큰 아들에게 “할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왔다.”고 말하는데,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내 평생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아내며 엉엉 울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 눈물과 서러움은 어느덧 고회를 넘긴 내 슬픔이었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잠은 오질 않는다. 발코니에 나가 창문 밖을 내다보니 앞동산에는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춥고, 외롭고 쓸쓸하실까?” 나도 모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우리가 떠나올 때 그 요양원 관리인 말이 “한 달 동안은 방문을 자제해 주어야 한다.”며 “자주 면회를 오면 환자분이 이곳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당부였다. 그 후 나는 하루에 두어 차례씩 전화만 하였다. 어머니와 직접 통화는 할 수도 없었고, 담당자에게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그렇다고 한 달 동안 안 가볼 수는 없었다. 딱 1주일 만에 요양원을 찾았다. 그런데 그 때 관리인이 말해준 게 생각나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만일 어머니가 적응을 못하고, 울며불며 따라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어머니 우리 왔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오냐 너희들 왔냐.”며 단념한 듯 눈물을 감

추려고, 등을 돌리며 “점심은 먹기 싫다.”고 가져간 두유를 먹겠다고 하셨다. 그래도 정신은 괜찮은 듯 싶어 안심이 되었다. 관리인에게 근황을 물었다. “그동안 치매 증세는 별로 없었다.”며 엇그제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여 병원에 다녀왔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한 시간여 동안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먼저보다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 다음 날은 내 큰아들 내외가 찾아갔는데, 김서방을 원망하며 또 눈물을 흘리더라.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치매라는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족과 헤어져 요양원에 맡겨진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고 불안할 것이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 치매 환자 한분 때문에 온 가족의 고통, 형제자매간의 우애는 물론이고, 자칫 한 집안이 몰락할 수 있다. 내가 본 요양원은 여느 가정과 달리 요양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고, 때 맞춰 약도 챙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수시로 목욕도 시켜주고, 운동까지 함께 해주었다. 무조건 거부보다는 미리를 대비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가족 간의 끈끈한 정만 그리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 성찰을 할 때라고 본다.

그래도 다행히 내 어머니는 설 명절을 3일 앞두고 (2012. 01. 19) 27일 만에 집에 돌아오셨다. 설 지내고 다시 간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는 요양원에 안 간다.”며 지금은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하신다. 얼마나 그곳이 싫으면 실제로는 아프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신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 불효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은 편안했으면 좋겠다.

빛을 갖고 있는 사람

의정부시 호원2동

김승용

내일이 추석이다. 우리 가족은 추석 전날답게 모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한 후 어머니와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이런 저런 음식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오랜만의 수다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팔순의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은 거실에서 송편과 과일을 먹으며 TV 앞에 모여서 그간의 안부와 각자의 이야기를 꺼낸다. 항상 그렇듯이 조카들 학업성적과 취업문제 등을 안부 인사처럼 이야기한 후 가정사와 사업과 직장에 대해 이야기 하며 무사평탄 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 후 각자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풀어놓는다.

해외여행 갔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지고 자연스레 건강식품 이야기로 가면서 각종 효소의 효능과 건강식품 먹어본 결과에 대한 품평회가 시작된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같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형제라는 것을 새삼 확인이나 하듯 동일한 건강식품을 먹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위나 코골이로 고생하는 것 등이 어쩔 이리도 똑같은지 늦은 밤까지 이야기는 끝날 줄도 모른다. 사회생활 하면서 수많은 만남과 대화를 하지만 명절날 형제들과 나누는 대화는 맛이 다르다 장맛과 같은 오래된 맛도 나고 전문의사 못지않은 처방전 같은 해결책도 나오기에 시원한 맛도 나면서 왠지 모를 아쉬운 맛도 난다. 아마도 멀리 사는 누님이 빠졌기 때문인가 보다.

오늘밤 형 식구들은 안방에서 자고 우리 식구는 어머니 방에서 잠을 잔다. 명절 때마다 항상 그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견 없이 언제부턴가 정해진 룰에 의해 각자 정해진 방에서 잠을 잔다. 아마도 2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다. 나는 피곤하여 형제들과의 많은 이야기를 내일로 미루고 나의 둘째 아들이 잠들어있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거실 한쪽에서는 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아직도 수다 중이다. 무슨 할 말이 저리 많을까? 여자들 수다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미용실 수다는 오지랖, 큰 목소리, 숨넘어가는 웃음소리, 이 3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수다쟁이 반열에 오르지만 어머니와 며느리들은 조용한 목소리와 자제된 웃음소리, 그리고 적정히 배분된 공평한 발언권으로 격이 있는 수다쟁이 반열에 올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어머니와 며느리들 마음속에는 상상하는 만큼 날 수 있는 날개가 남아 있는 것이 틀림없다. 어떤 틀에 얽매었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수다가 이렇게 재미있게 오래 가진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 방에는 나의 둘째 아들이 보다가 잠들었는지 TV가 켜져 있었다. TV 뒤에 걸려있는 여러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잠자고 있는 아들의 돌 사진, 조카들의 유치원 졸업 사진, 군대 간 큰놈이 할머니 품에서 어리광부리는 사진도 있다.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나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다. 그 위로는 색 바랜 흑백 사진들이 어둡게 걸려있다. 둘째가 잠자고 있으니 형광등을 켤 수 없어서 텔레비전 방향을 살짝 틀어서 봤다. 부모님 결혼식 사진이다. 의젓하게 말을 타고 계신 신랑이 아버님이고 수줍은 연지 곤지에 손등 보일세라 웃기 속에 두 손 넣고 다소곳이 앉아계신 어린 신부가 어머니다. 문틈으로 밖을 보니 거실에 앉아계신 어머니가 보였다. 사진 속 다소곳한 어머니는 세월이 많이 흘렀을 뿐 곱게 피어있는 꽃같이 은은한 빛을 갖고 있었다. 나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쳐다보고 고3이라 힘들어하는 아들의 잠자는 얼굴 쳐다봤다.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다. 똑같은 어머니 방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진인데 작년엔 아무생각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던 사진이 오늘은 나를 자발적 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고 과거라는 오래된 미래를 사유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십 여분이 흐른 것 같다. 어느새 생사가 명멸하는 공간 속에 현재의 몸이 과거와 한 몸이 되어있었다. 저 사진 속 세월을 어떻게 말해야하고 표현해야 할지 벅차기만 하다. 언젠가 위험하게 액자를 닦던 어머니에게 “이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라며 뭐라고 했던 내가 문득 떠올랐다. 죄스러웠고 후회스러워졌다. 앞으로는 명절날 어머니 방은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로 해야겠다.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것들을 단 하루밤이라 하더라도 내가 뺏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사진이 보고 싶을 때 아니면 어머니를 느끼고 싶을 때 어머니 방에 잠깐 들어가서 우두커니 서서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마저도 감사할 따름이다.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새 액자가 걸리면 맨 위의 오래된 사진은 더 낡아 보이겠지? 나의 아들도 빛바랜 사진을 보며 오래된 미래 속에서 깊은 사유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빛바랜 사진들이 있는 그곳은 오래되어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은은한 빛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인생이 있고 우리 가족 모두의 이야기가 있는 어머니 방이다.

지난 세기의 겨울 밤, 그리고 우리의 우동

의정부시 호원2동

김세정

겨울이 진정 겨울답기 위해 필요한 건, 단지 추위뿐이다. 추위아말로 한 밤의 우동 한 그릇을 가장 맛있게 만들어줄 최고의 레시피가 아닐까?

1989년의 겨울 밤, 늦게까지 문을 연 열 평 남짓한 옷 가게의 창밖으로는 옷깃을 여민 채 어깨를 움츠리고 거리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보이고, 옷 가게의 안에는 팬히터에 다가가 앉아 엄마가 끓여주는 우동을 기다리는 남매가 있다. 우동을 끓이라고 시킨 것은 남매의 아버지였으나 아버지는 옆 가게 수입 코너의 주인아저씨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추위를 뚫고 곱창집으로 나갈 채비 중이다. 옷 가게의 맞은편, 과일 행상 아저씨가 트럭을 정돈할 찰나, 잠시 그쳤던 싸라기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엄마는 남매 앞으로 양은 냄비째로 우동을 가져다 놓는다. 그 흔한 김치도, 단무지도 없다. 단지 우동을 사오라는 아빠의 심부름으로 두 남매가 신나게 뛰어서 수유 중앙 시장의 초입에 위치한 '제일슈퍼'에서 사왔을, 김가루가 잔뜩 뿌려진 인스턴트 우동이 전부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우동을 따로 덜어 주지 않는다. 엄마와 아홉 살 누나, 그리고 여섯 살 남동생이 모여 앉아 한 냄비의 우동에 젓가락질을 시작한다.

그 겨울 엄마와 동생과 함께 후후 불어가며 나눠 먹던 우동은 얼마나 맛있었던가. 욕심을 부려 젓가락질을 해봐도 입 속에 들어가는 면발은 언제나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만큼이었다.

미끄덩한 면발은, 입술을 내밀어 빨아들이고 더 이상 입 속으로 넣을 수 없을 때에는 앞니로 우동 면을 끊는다. 나머지 면발은 다시 양은 냄비 속으로 찰랑거리며 떨어진다. 떨어진 것들엔 미련을 버리고 입 속에 가득한 우동을 부지런히 씹기 시작한다.

그 밤, 우리들의 우동은 너무나, 쫄깃했다.

내 유년의 한 자락에는 언제나 수유중앙시장이 자리한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좌판과 가게들 중 한 곳에서 나는 태어났고, 열 살이 될 무렵 아버지와 엄마가 집을 구해 살림집을 옮기기 전까지는 가게에 딸린 단칸방에서 살았다. 그러나 나는 가난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뿐더러 학교에 입학하고서도 스스럼없이 그 먼지 많고 어수선했던 옷가게의 단칸방으로 친구를

데려오던 수더분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 시절의 겨울은 어린 나에게도 유독 추운 날들로 기억된다. 지금도 절반 다르진 않지만 그 때에도 뉴스에선 ‘몇 년 만의 한파’니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는 등의 소식을 전했고 옷 가게의 출입문은 언제나 아귀가 맞지 않아 손님이 들어거나 나갈 때는 늘 차디찬 바람을 동반했다. 그러면 동생과 나는 커다란 호랑이가 그려진 두껍고 보드라운 갈색의 인조 밍크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그 시절 참 많이도 먹었던 꿀을 손이 쉴새없이 줄도 모르고 까먹었더라.

시장 안의 다른 집들과 달리 가게방에서 먹고 자고 했던 우리 가족은 다른 가게가 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을 가게 문을 열어놓았는데 어렸던 그때의 나는 왜 우리 가게만 그토록 오래 문을 열어놓는지 알 길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늦은 밤,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놓칠 수 없었던 것은 두 아이를 더 이상 가게방에서 재우고 싶지 않았던 부모의 의무감 같은 게 아니었을까?

겨울, 밤은 지루하도록 길고 저녁밥도 소화되어 출출할 때쯤이면 아버지는 마치 특별한 임무라도 내리듯 우리 남매에게 우동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다. 잘 밤에 무슨 야식이냐고 눈을 흘기면서도 엄마는 냄비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았고 동생과 나는 그때마다 늘 새롭고 신나는 일이 생긴 듯 슈퍼를 향해 달렸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그리고 그 술한 날들 중의 어떤 날들은 또렷하게 기억나지만 지금은 모두,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다. 나의 1989년도는 그랬다. 십년이 흘러 1999년의 겨울엔 대학 생이 되어 남들 다 하는 영어 공부를 하느라 바빴고 난생처음 연애를 하느라 기쁘고 술찜으며 이런 저런 술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시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속력을 지녔으니까.

2009년의 겨울, 나는 말 없고 선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했지만 엄마는 자궁암이

재발해 병상을 지켜야하는 신세가 되었다. 엄마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재작년 겨울, 나는 투병 중이던 엄마와 안녕하였지만 보름 후 열 달 동안 뱃속에 숨겨 놓았던 사내아이를 낳았다. 헤어짐과 만남이 번갈아 찾아온다는 것이, 생에 있어 큰 비밀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감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불쑥불쑥 엄마가 그림다거나 젖먹이 키우는 게 너무나 힘이 들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 역시 시간임을 알았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오려한다. 나의 아이는 어느덧 커서 걷고 밥을 먹고 떼도 쓴다. 아이를 키우며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음식을 먹이는 일이다. 아직 이가 모두 나지 않아서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면 어쩌나 자극적인 것을 먹고 아토피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입 속에 넣고 우물우물 씹는 시늉을 하는 아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다.

며칠 전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우동으로 저녁식사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저를 빼놓고 무얼 먹나 궁금하다는 듯 상 앞에 다가와 우동 그릇 한 번, 엄마 한 번 쳐다보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우동 면발을 조금 떼어 혹여 뜨거울까 한참을 불어서 아이의 입 속에 넣어 주었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제 짧은 생애에 처음 맛본 우동 면발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법 씹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문득, 나는 이 소소한 행복 속에서 코끝이 찡해졌다. 나의 어린 시절 속에도 겨울은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엄마가 끓여주던 우동이 있었으려나. 이제 다시는 엄마가 끓여주는 우동은 먹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잠시 우울해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변함없이 겨울이 찾아올 테고 가끔씩은 우동을 먹을 것이며 때로는 옛 생각에 가슴 먹먹해지는 날도 있을 것임을 안다. 그러나 그때엔 내가 끓여 '호호'하고 불어서 준 우동을 입 속에 넣고 우물거리는 내 아이의 사랑스러운 입모양도 함께 떠오를 테지.

어김없이 추울 거라는 올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나는 몸보다 먼저 내 안의 추억으로 느끼고 있다.

향기로은 사람

의정부시 신곡2동

박영록

창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우리 주변에는 갖가지 냄새들이 코끝을 드나든다. 습도가 높고 기온까지 높은 날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땀 냄새, 머리 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고, 자신에게서도 나는 냄새를 느낄 때가 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각기 다른 냄새가 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가 하면 눈빛과 자세에서 나는 그 사람의 품격을 가름하는 냄새가 있다. 몸에서 나는 냄새를 치장하기 위해 화장품과 향수를 쓰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하거나 명상 등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냄새를 치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향수를 쓰더라도 사람에 따라 은은하고 고고한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저잣거리의 작부가 내는 지분 냄새가 되기도 한다.

옛날 궁중 여인들은 어쩌다 맞이할 수 있는 임금의 은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속옷 은밀한 곳에 사향 주머니를 차기도 하였다. 여염집 여인들도 지아비의 관심을 끌고자 쓰는 냄새의 비방들이 있었다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냄새를 꾸미기 위해 오래전부터 갖가지 방법을 써 왔던 모양이다. 6, 7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때, 프랑스산 향수 샤넬의 냄새는 값이 비싼 화장품을 쓴다는 것으로 부자 티를 내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우리 생활 정도에 비해 꽤 고가인 샤넬향수를 쓰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았었다. 또 그 냄새만으로 샤넬 향수의 번호 몇 번이란 것을 알아내는 것조차 신기하게 여기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에서 추출되는 향수가 개발되어 외국으로까지 수출된다 하니 자신의 냄새를 꾸미기 위한 연구는 쉽나 보다. 이 여름에도 깨끗하게 감아 손질한 머리에 가벼운 얼굴 화장과 풍기가 약간 있는 가벼운 옷차림의 여인네에게서 나는 듯 마는 듯한 향수 냄새는 시원한 청량감을 준다.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봄이 되면 다투어 피는 꽃들도 각기 향기가 다르다. 이른 봄에 피는 대부분의 꽃은 잎보다 먼저 피어 자기의 자태를 맘껏 뽐낸다. 소담스런 목련이 그렇다. 향기보다 백옥 같은 꽃잎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가? 봄이 한창일 때 피는 꽃들은 향기가 진하다. 산에서는 아카시아 향이 밤바람을 타고 내려와 진하고, 넓지 않은 풀 안에서는 라일락이 그 향기를 담 밖으로 넘긴다.

울릉도를 여행하면서 성인봉을 오를 기회가 있었다. 깊은 골짜기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는 이른 봄이었다. 알 수 없는 향기가 코끝을 스쳐 갔다. 두리번거리며 그 향기를 내는 꽃을 찾아보았지만, 주변에는 향기를 낼만한 꽃이나 나무는 없었다. 안내하는 이의 손가락 끝에 절벽에 붙어 작은 꽃망울을 막 터뜨리려는 작은 나무를 볼 수 있었다. 천리향이란다. 아직 꽃이 활짝 피지 않아 향기가 그리 진하지 않지만, 꽃이 활짝 피는 때는 그 향기가 내륙 해안은 물론 북한 함경도 해안까지 이른단다. 그래서 이름이 천리향이란다. 향기가 천 리를 간다는 꽃이다. 이 꽃의 냄새 때문에 일본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난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단다. 교도소 주변에 심은 천리향의 향기가 죄수들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여 난동까지 일으키게 하였단다. 무성하게 우거진 숲길을 거닐면 숲의 향기가 난다. 비 오는 날 갯가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늦가을 시골 고살에는 솔가지 타는 냄새에 된장국 냄새가 난다. 선비의 방에서는 묵향이 배어난다. 절에 가면 향 피우는 냄새가 난다. 서양 사람에게서는 버터의 누린내가 나고 한국 사람에게선 김치에 밴 마늘냄새가 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의 누린내가 싫고, 서양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김치 냄새가 싫단다. 우리는 구수하게 여기는 오징어 굽는 냄새는 더더욱 싫단다. 각 사람에게서 각각의 향기가 있다.

그 향기를 화장품이나 향수로 치장해도 그 사람의 진솔한 향기는 그 치장을 뚫고 향수의 울을 넘는다. 아카시아 향처럼 달콤하기도 하고, 라일락 향처럼 여인네의 속살같이 진하기도 하며, 천리향의 향기처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한다. 난향처럼 바람결에 실려 왔다가 머무름 없이 가버리기도 한다. 싸고 싸서 숨겨도 배어나는 향기가 있는가 하면 감추고 감춰도 드러나는 살타는 누린내도 있고, 돈 냄새도 있다.

자신의 냄새는 자신이 만든다. 그 냄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질이 달라진다. 자신만을 위해 욕심내고 모으는 것에만 전전긍긍 한다면 그 냄새가 향기로울 수 없을 것이다.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남을 위해 가슴을 열 줄 알고 나누면서 산 사람, 비록 진하지는 않지

만, 난향처럼 은은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향기가 될 것이다. 나만을 돌아보지 않는 삶에서 더 좋은 향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무 중에 향기를 진하게 내는 것을 들라면 향나무일 게다. 그 향이 향기로워 이름도 향나무 아닌가. 그러나 향나무는 그냥 있을 때에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 몸통에 도끼 자국이 나야 비로소 향기가 난다. 불에 탈 때 가장 진한 향기를 낸다.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향기야말로 가장 향기로울 것이다.

나의 바람

의정부시 평화로

조현미

아련한 어린 시절, 착한 아이여야 했고 작고 여린 가슴속에 슬픔, 아픔, 분노……. 모든 감정은 가슴 보따리에 공풍 싸매어 두는 게 미덕이고 내 삶이라고 알았다. 꿈꾸던 청소년시절에 가슴 보따리는 점점 커져 갔고 작은 가슴 안에 가둘 수 없어 펑! 터져버렸다. 슬픔, 아픔은 그래도 착한 애였는데, 분노는 나조차도 어쩔 수 없어 길길이 날뛰는 맹수의 발톱처럼 날을 세워 가족도 나 자신도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아름다운 청년기엔 이미 가슴보따리는 터져 버렸는데, 분노란 아인 제 갈 길도 모른 채, 더욱 맹렬히 나를 막아섰고, 나를 해치며, 부모님 때문이라고 소릴 질러댔다. 반평생이 된 나이에, 이제 와서 조금은 알 것 같다. 나 자신 때문이라고, 상처를 키운 것도, 여린 마음에 이겨내지 못한 것도 다 나였다고 핑계 대며 허비하고 바보처럼 살았지만 나의 삶임을…….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리움으로 변하기 전에 어릴 적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푸른 하늘 향해 크게 웃으며, 가슴속 마지막까지 남아주었던 희망과 손잡고 행복의 노랫 함께 하길…….



독후감상문



‘지구 오래 사용 설명서’

『지구 사용설명서(환경운동연합 지음)』를 읽고
권보중 | 이송현

“송현아? 양치할때는 물들어 놓지 말고 컵에 받아서 해야지!” “송현아? 친구 선물 줄 때 포장은 꼭 안해도 되는 거야! 네가 쓴 편지로 포장해도 되고 예쁜 손수건으로 싸면 어떨까?” 모두가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할 일들이라며 엄마가 내게 하는 잔소리이다. 그리고 엄마는 ‘지구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권하였다. 흔히 집에 보관 되어있는 청소기 설명서, 세탁기 설명서, 밥통 설명서는 많이 봤어도 지구 사용 설명서는 처음 보았다. 참 작가 선생님 아이디어 기발하시다.

우크더스라는 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 가족의 구성원들은 어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름 같다는 생각이다. 막쓸레옹씨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마구 쓰나여사는 라디오 켜기, 청소기 돌리기, 불켜고 잠자기를 마구 한다. 머꼬 또 머꼬와 다 버리나는 전기난로를 계속 틀어놓는 버릇이 있다. 현재 지구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족과 비슷하다. 그래서인지 책 아래 지침이 눈에 잘 들어왔다. 선풍기 바람을 약하게 틀고, 에어컨 온도는 26도에 맞추고, 에어컨 필터를 자주 청소하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지구인들은 잘 알면서도 실천을 못한다.

우크더스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보라의 생일이 돌아왔다. 보라에게 기억에 남는 선물은 으뜸선물과 향당했던 선물이었다. 으뜸선물은 방울 토마토였고 향당선물은 다버리나의 반짝이, 스트리폼 알갱이를 아주 큰 포장지로 포장한 것이었다. 선물할 때 사용하는 포장 용기는 대부분 찢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것들은 환경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 그래서 쓸모없는 선물은 주고 받지 말고 직접 음식을 주었던 방울 토마토가 으뜸 선물이었었던 것이다. 우크더스 별에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동물 둥둥, 푸푸, 쏘이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은 둥둥이다. 하지만 둥둥은 가장 슬픈 동물이다. 아이들이 둥둥에게 위험한 장난을 치기 때문이다. 동물원에서 사자에게 무심코 아이스크림을 주는 아이를 보았다. 청말 대책이 없어보였다. 사자가 배탈나면 어쩌라구..그리고 우크더스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면 “야호!”하고 소리를 지른다. 산의 주인은 산속 동식물이다. 산속 동식물은 우크더스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서 자주 짜증을 낸다고 한다. 산에서는 조용히 산풍경만 감상하고 발자국 이외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크더스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지 못하고 과

학기술만을 계속 발달시키자 우크더스 별에는 큰 피해가 다가왔다. 밤이 낮보다 더 환하게 되었고 갈데 없는 쓰레기는 결국 쓰레기섬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멸망을 한 것이다. 우크더스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이다. 엄마의 잔 소리가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어내려 가면서 “우리가 과연 지구에 살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 공기, 물에 둘러싸인 지구인들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마구잡이로 오염시킨다. 조금 더 빨리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매연으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길을 만들기 위해 산에 터널을 만들기도 하고 땅을 만들기 위해 바다를 메우는 간척사업을 하기도 한다. 그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산에 사는 동물들,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디서 살라는 말인가? 그리고 이들 옆에 사는 우리 지구인은 또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내가 낙서하고 그냥 버리는 종이는 중국에서 수만그루의 나무를 잘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중국은 사막이 더 많이 생겨나고 해마다 봄이면 우리나라로 황사 먼지가 날아온다. 내가 그냥 켜놓은 전기는 전기에너지 만들기 위해 발전소를 엄청 돌려야 한다.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지구인들은 미래의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집안 곳곳에 메모지를 붙여 보았다. 공부 안 할 때는 형광등 꼭 끄기, 한번 사용한 종이 뒷면 꼭 다시 사용하기, 거실에는 빈 콘센트 뽑기, 화장실에는 양치컵 물 받아 쓰기, 냉장고 앞에는 고기보단 채소 많이 먹기 등 이렇게 꼼꼼히 지켜야 될 사항을 방문앞에 메모해서 붙여놓으면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것이다. 지구인들은 지구를 아름답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우크더스 사람들이 그 별을 잘못 사용하여 멸망한 것 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가전 제품 설명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다. 각각의 이름, 쓰는 방법이 다르다. 잘못 사용하면 고장난다. 지구 사용설명서도 마찬가지다. 맑은 공기와 푸른 산, 파란 바다 각각의 자연사용법이 다르고 중요하다. 지구인들은 지구 사용설명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지구를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노력해야 한다.

행복과 행운의 차이

『이대로도 괜찮아』를 읽고

호동초 6 나보람

나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 대회에 참여하였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선정도 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은근히 설레었다. 6학년의 선정도서 중 나의 눈에 들어온 책이 바로 '이대로도 괜찮아'였다. 제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참으로 궁금했다. 다양한 생각이 들었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고 호기심을 자극한 이 책의 첫 장을 넘겼다.

이 책은 연우라는 아이가 어떤 여자아이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이다. 천사의 집에서 나온 아이였는데, 연우는 이 아이를 '클로버'라고 이름 붙여 주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이름을 왜 클로버라고 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여러 번 읽어보니 알 것 같았다.

세 잎 클로버가 행복을 상징하고, 네 잎 행운을 뜻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다. 두 클로버 모두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에 연우가 아이의 이름을 왜 '클로버'라고 지었는지 알게 되었다.

나도 네 잎 클로버를 찾은 적이 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화단에 토끼풀이 피어 있어서 그냥 재미삼아 찾아보았는데, 거기에서 네 잎 클로버를 찾은 것이다. 그 때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엄마, 저 네 잎 클로버 찾아왔어요!" 라고 소리쳤었다. 그러자 엄마도 같이 좋아하시며

"그래? 엄마는 여태까지 한 번도 네 잎 클로버를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딸에게 행운이 오려나 보다!"

라고 하셨다. 생각해보니 행운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행복이 더 좋은 거잖아? 그럼 네 잎 클로버는?'

그런데 읽다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다. 왜 연우는 클로버에게 잘 해준 걸까? 그 이유는 책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다. 연우의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여 고모네 집에 맡겨져 있을 때에 연우의 사촌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큰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클로버가 천사의 집에서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꼭 그 때가 생각나서 잘해줬을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연우는 클로버를 좋은 뜻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었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납치라고 하면서 연우를 나무랐고, 클

로버를 천사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았다. 꼭 연우와 클로버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는 하는 방해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책 중간 중간에 있는 그림도 정말 인상 깊었다. 포근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이 진정한 시골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도시에서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부러웠다. 그리고 잠시나마 내 마음이 초록빛으로 젖어들었다. 그림을 그리신 유명희 선생님께 너 무나도 감사하다.

나는 연우의 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랐을 것이다.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처음 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나라면 천사의 집 아줌마가 나쁘게 생겼더라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클로버를 천사의 집으로 되돌려 보냈을 것이다. 클로버가 조금은 불쌍하지만 말이다. 나중에 클로버를 허락을 맡고 데리고 오면 되는데 굳이 숨겨서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연우였다면 좀 더 당당히 행동했을 것 같다. '클로버를 며칠동안만 데리고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부모님과 천사의 집 아줌마께 허락을 받고 데리고 있으면 부모님과 갈등도 생기지 않을테고 클로버도 나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우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바로 아이를 좋아한다는 점이다. 나는 겁이 많아서 아는 아주머니들이 아기를 들어보라고 하면 못 든다. 그리고 아이를 좋아해도 진심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연우를 본받아야 할 것 같다.

나의 장래 희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어린이들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좋아해야 하는 직업인 만큼 연우처럼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많이 길러야 하겠다는 결심이 섰다. 어려므로 나에게 큰 교훈을 준 '이대로도 괜찮아'가 6학년 선정도서인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책을 소개해 주고 싶다. 다른 친구들도 나처럼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게 뜻 깊은 교훈을 주신 정미 작가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클로버도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징검다리 이주홍 동화나라

『우체통과 이주홍 동화나라』를 읽고
의정부시 금오동 김명선

“우체통과 이주홍 동화나라”는 작가의 마음과 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학과 풍자, 그리고 순박한 동심의 따뜻한 글과 함께 포근한 그림 속에 잘 녹아 있는 작품이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의 작품이지만 지금 아이들도 충분히 공감하며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감동을 선물한다.

탄생 100주년이 훌쩍 넘어버린 향파 이주홍! 그는 일제시대 카프작가이면서도 카프작가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동시대 작가 방정환, 이원수와 달리 자칫 고풍으로 빠지기 쉬운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놓아 재미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가치 있는 웃음을 주었다. 그것은 이주홍이 아이들 삶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처음 소개되는 1987년 발표된 <북치는 곰>은 설날 밤이면 땅에 내려와 신발을 훔쳐가던 야광귀 가족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자 당돌한 막내 폴폴이가 사람들이 방해작전으로 걸어놓은 체를 보고 콧방귀를 뀌다 북치는 곰인형에 정신이 팔려 그만 제 신발까지 잃어버리고 하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였다. 비록 가족들의 웃음거리가 된 폴폴이었지만 덜렁대는 우리 아이들을 꼭 닮은 거 같아 귀엽고 사랑스럽기까지 하였다. 1983년 발표된 <은행잎 하나>는 겨울이 되면 아기은행잎은 은행나무 어머니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한다. 하지만 이내 엄마를 잃고 울던 한 유치원생 아이에게로 떨어져 그 마음을 공감한다. 아기은행잎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은행나무 어머니에게로 돌아와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문득 딸아이가 태어났을때 폐에 문제가 생겨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 곁을 떠나려 하는 딸아이를 붙잡으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마도 우리 아인 아기 은행잎처럼 내 곁을 잠시 떠나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달 후 기적같이 치료되어 내 곁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문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내 눈시울을 적시며 감정 몰입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930년 어린이 잡지 신소년에 발표된 <우체통>은 e메일과 카톡이 일상화된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싱거울 듯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숙희의 애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이야기였다. 우체부가 우체통에서 편지를 꺼내는 걸 본 적이 없던 숙희는 편지가 땅 속에 구멍

이 뚝려 있어 아버지가 계신 일본까지 갈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고는 어머니가 숙희 먹이라고 준 개떡을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우체통에 넣게 된다. 이 장면은 숙희의 순수한 동심이 보여 보느니로 하여금 웃음짓게 하는 장면이었다. 다음날 다시 돌아온 개떡을 보고 숙희는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머니의 설명을 통해 편지가 전해지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숙희의 엉뚱한 상상력과 맑은 동심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편의 동화 모두 쓰여진 시기는 다르지만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며 삶의 진리를 일깨워 주었고 단지 재미와 웃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의 주제를 저절로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정감어린 말투와 요즘 미디어에서 보는 현란한 색채가 아닌 담백한 수채화같은 그림 또한 이 동화의 따뜻함을 더해주는 쏠쏠한 재미였다. 또한 참을성 없고 급한 우리 아이들에게 기다림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똑똑하고 영리하진 않지만 어린 야광귀와 노란 은행잎 그리고 숙희의 감성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꼭 지닐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좀더 풍요롭고 살만하지 않을까? 이 책의 시대와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까지 우체통과 이주홍 동화나라는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우체통과 이주홍 동화나라

저 자 : 이주홍 저, 김동성 그림

출판사 : 웅진주니어

출간일 : 2006년 8월 20일

목민지관(牧民之官)의 이순신

『목민심서』 「임진년 다시 쓰는 이순신전」을 읽고

의정부시 호원2동 강동화

이순신! 그는 고독한 목민지관의 삶을 산 불멸의 영웅이었다.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28세에 무과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했었다. 그 후 32세의 늦은 나이에 재도전하여 무과에 합격하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는 냉혹하리라 만큼 엄격하고 철저했던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처음 무과시험에 낙방했을 때 스스로 포기했더라면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그저 평범한 필부로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삶의 뒀안길을 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올바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삶을 산 이순신은 어찌 보면 괴짜로 보이기도 하지만 집념이 강한 긍정형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였기에 임진왜란 당시 40여회의 해전에서 전승무패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세계 해전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서 자랑스러움 그 자체이다.

나는 임진년 다시 쓰는 이순신전을 읽으면서 4세기 전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순신장군의 삶을 보면서 정약용선생이 집필한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에게 원했던 덕목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순신장군의 모습을 재조명해서 목민관의 덕목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한다.

첫 번째 덕목은 율기(律己)로 목민관은 스스로 몸가짐을 올바르게 갖추고 청렴함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에 쓰이게 되면 죽음으로 충성을 다 할 것이요, 만약 쓰이지 못하면 등에서 발갈이 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한 이순신장군의 좌우명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22년의 관료 생활 동안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장군은 자신보다는 대의를 우선에 두었다. 즉 모든 일은 나라와 백성을 우선에 두고 위국헌신의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이었다. 바로 율기는 요즈음에 살아가는 모든 조직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리더는 올바르고 정의로우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의 공복(公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목민관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전(吏典)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아랫사람을 은혜로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순신이 나대용을 발탁하여 거북선을 제작하도록 한 것이 임진왜란 당시 전승의 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그는 한산도에 운주당을 짓고 기거하며 장수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일개 병사들에게도 전술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이야기하도록 했으며 항상 부하들과의 사소통을하며 전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병전(兵典)은 '백 년 동안 군대는 쓸 일이 없더라도 하루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순신은 최초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으로 시작하여 전라좌수사에 이르기까지 늘 자신의 직책에 성심을 다했다. 그리고 장수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인 강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결국 그러한 마음으로 초지일관하여 첫 전투지인 옥포해전으로부터 마지막 노랑해전에 이르기까지 전승무패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특히 명랑대첩 직전 다른 장수가 지휘한 칠천량해전이 패배하자 선조는 아군의 손실이 컸다는 이유로 수군을 폐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선조에게 "지금 신에게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우겠으며 또한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가버려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장계를 올려 수군폐지를 막았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13척의 배로 일본군 133척 함대와 맞서 승리한 명랑대첩으로 역사의 한 획을 장식했다. 이러한 전승의 비결은 꾸준한 전술개발과 더불어 지형, 기상을 고려한 용병술과 카리스마 넘치는 용맹함과 포기하지 않는 긍정형 리더십을 발휘한 이순신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네 번째는, 해관(解官)의 덕목으로 목민관은 벼슬을 마치고 물러나는 모습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왜적과 싸우는 동안에도 임금과 무능한 조정 신료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모함을 받았다. 그러나 결코 이순신 장군은 좌절감에 빠지거나 동

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는 그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노량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지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 이순신은 해관의 경지를 뛰어넘는 장수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수많은 리더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한 번 되돌아 보고 그 목표가 자신만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나아가서는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민관의 덕목을 진정으로 실천한 이순신장군, 그는 언제나 우리 마음 속의 목민지관이다.



정선 목민심서

저 자 : 다산연구회 편저, 정약용 저

출판사 : 창작과비평사

출간일 : 2005년 3월 30일

가치 있는 미래

「꽃들에게 희망을」, 「행복한 청소부」, 「터널」을 읽고
솔희초 5 학민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과 목표가 있을 것이다.

<꽃들에게 희망을>은 내 안의 무언가를 찾아내어서 모든 사람과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행복한 청소부>의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겼다. 이처럼 자유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터널>은 남매간의 우애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의 화목함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동생도 터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하지만 자신의 오빠를 위해서 용기를 내었다. 내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가족의 화목함이다.

지금의 나는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겨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과 복잡한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런 꿈과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꽃들에게 희망을

저 자 : 트리나 폴러스 저, 김석희 역

출판사 : 시공주니어

출간일 : 2000년 5월 1일



행복한 청소부

저 자 : 모니카 페트 저, 안토니 보라틴스키 그림, 김경연 역

출판사 : 풀빛

출간일 : 2000년 11월 1일

힌트

『꽃들에게 희망을』, 『행복한 청소부』, 『터널』을 읽고
솔피초 5 김연우

애벌레들은 진정한 나비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 오로지 애벌레 기둥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모든 삶이라고 생각했다. 줄무늬와 노랑나비 애벌레는 애벌레 기둥에서 만난 후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왔다.

어느날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를 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자신이 애벌레 기둥에서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닌 노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에게도 나비가 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랑나비를 통해 모든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다.

청소부 아저씨는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청소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직업에 만족하고 사랑했다. 처음엔 청소부 아저씨가 대학교수를 하지 않겠냐는 권유에도 끄떡하지 않고 청소를 하는 아저씨가 이상했다. "어째서 그렇게 하찮은 직업을 계속하지?" 하지만 아저씨가 청소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청소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남에게 뽐내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직업을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터널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다. 처음엔 노는 성향이 달라 두 남매가 싸우지만, 터널에 갔다 온 뒤, 그들은 더욱 친해졌다. 또한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서로 성향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세 책을 읽으며 내 꿈과 가치관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 꿈은 외교관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벌레처럼 필요없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부 아저씨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행복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족을 배려함으로써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나도 가족들을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꽃들에게 희망을』을 이라는 책에서 노랑나비와 나비들이 번데기를 지나 나비가 되어 하늘

을 날며 행복을 전하는 것처럼 나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행복을 전하는 나비가 될 것이다.



터널

저 자 : 앤서니 브라운

출판사 : 논장

출간일 : 2002년 9월 1일

꿈꾸는 나

『초정리 편지』를 읽고
솔외초 5 조현서

감동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초정리 편지’라는 책이 있다. 그 책 속에는 우리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분, 바로 세종대왕이 계시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하셨다. 그 문자는 찢아찌아 족도 사용하는 쉬운 소리글자, 한글이다. 한글, 즉 문자언어는 장운이와 덕이처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준다. 또한 문자언어는 역사성과 기록성이 있어 오랫동안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처럼 글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다.

나의 꿈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리더이다. 리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다방면에 뛰어난 세종대왕이고, 둘째는 여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힐러리 로덤 클린턴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위에 두 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야 한다.

대통령에 관한 영화들이 있다. 우리 가족은 영화들 중 ‘피아노 치는 대통령’과 ‘굿모닝 프레지던트’라는 영화를 보았다.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란 영화에는 한민욱이라는 대통령이 나온다. 그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한 대통령이다. 또, ‘굿모닝 프레지던트’란 영화에는 세 명의 대통령이 나온다. 제일 처음 나오는 대통령은 김정호 대통령이다. 그는 244억만 어마어마한 큰 금액으로 복권에 당첨되었다. 마음 속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돈을 불우아동에게 기부하셨다. 그 다음은 차지욱대통령이다. 곧은 성품을 가진 그는 불쌍한 국민에게 신장 이식을 해 주었다. 그 분의 아버지는 어려울적 “국민을 사랑하기 앞서 옆집 배고픈 아이부터 챙겨라”라고 하셨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온 분은 한경자대통령이다. 그녀는 첫 여성대통령이지만 무능한 남편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하고, 탄핵 위기까지 처하였다. 하지만 한경자 대통령은 현명하게 잘 해결해냈다.

세종대왕과 힐러리 로덤 클린턴, 오늘 만난 영화 속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의 이상향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이다. 이와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바로 세종대왕의 말씀인 “하늘 아래 백성들은 모두 天民으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훗날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사람으로써 꼭 가슴 속

에 새겨야 할 말이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세종대왕이 즐겨 찾으셨다는 초정리 약수터에 가서 나의 꿈과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져야겠다. 나의 꿈이 점점 더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초정리 편지

저 자 : 배유안 저, 홍선주 그림

출판사 : 창작과비평사

출간일 : 2013년 2월 15일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광송초 6 김의진

이 책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집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의 주제는 사랑이다. 이 책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 준다.

구두 수선공 세몬은 교회에 있는 미하엘이라는 청년을 만나 집으로 데리고 온다. 미하엘은 세몬의 집에 있으면서 세몬의 부인 마트로나가 미하엘을 대접할 때, 그리고 신사가 장화를 만들어달라고 할 때, 두 아이를 데리고 온 부인이 왔을 때 환하게 웃었다. 그는 세 번 웃고 난 뒤, 몸에서 빛이 났다. 미하엘은 자신이 천사이고,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여 그 질문을 풀러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사람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이다. 톨스토이가 가난한 농민을 돕고, 배려하면서 농부를 통해 인간은 신에게 봉사하며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톨스토이즘이 스며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톨스토이즘의 5계명을 다시 되새겨보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 자 : 톨스토이 저, 박우정 역

출판사 : 온스토리

출간일 : 2013년 4월 20일

‘힘들어도 괜찮아’를 읽고

‘힘들어도 괜찮아’를 읽고

몸런초 3 추나검

‘힘들어도 괜찮아’는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는 아오키 형과 시게루라는 아이가 나온다. 여기에서 아오키형은 16살에 죽었다. 시게루는 아오키형과 같은 병에 걸려 장애인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시게루가 너무 불쌍했다. 왜냐하면 아오키 형이 죽은 뒤부터는 시게루는 누구에게 안기거나, 사랑받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 내가 만약 시게루였다면 너무 나도 슬프고, 외로웠을 것이다.

시게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처음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병 때문에 혼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에도 여동생이 요강을 들고 오지 않으면 못 쓴다.

아오키 형은 죽을 때 어떤 꿈을 꿔다고 한다. 어떤 캄캄한 방에 계속 어둠을 따라서 길을 갔더니 죽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시게루도 이 캄캄한 방에 들어서는 꿈을 꿔는데 다행히 빛이 한 줄기 들어왔는데 그 빛에 부모님과 친구들, 선생님이 시게루를 불러서 다행히 살았다.

왜냐하면 캄캄한 길들 혼자 가는 게 외로워서 싫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을 딱 펴면 시가 나오는데 너무 좋았다.

‘사람은 슬픔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늙어간다.’

눈물의 강을 건널때 마다 다정해진다.

수많은 언덕을 넘고 수많은 강을 건너면서 상처받고, 즐거워하며 단련된다.

진정 강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 시를 읽고 ‘아, 이 시는 옳은 시다.’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슬픔이 닥칠 때마다 이겨내서 훨씬 용감해지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에 글쓴이의 말에서 k양, l군이 나온다.

k양은 14살에 죽었다. 몸무게가 10킬로그램 정도 밖에 안 나와서 관이 아주 작았다. 죽었을 때 몸무게가 10킬로그램이면 뼈가 10킬로그램이라는 말을 듣자 k양이 너무 불쌍했다. 왜냐하면 아마도 제대로 먹지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살아있을 때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 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1군은 20살이 되면서 훈련학교를 졸업하고 인쇄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쓰러져 죽었기 때문이다. 나 같았으면 너무 아까워서 죽은 다음에도 억울하고, 분했을 것 같다.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아'는 모두 불쌍한 아이들이 나오는 책이다. 지금 나는 우리 가족에게 사랑받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힘들어도 괜찮아

저 자 : 오카 슈조 저, 다치바나 나오토스케 그림

출판사 : 웅진주니어(웅진씽크빅)

출간일 : 2007년 9월 28일

개그맨

「개그맨」을 읽고
나눔작은도서관 이현아

내가 이 소설책을 고른 이유는 바로 책 제목 때문이었다. 개그맨이라는 단어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다. 자기 자신을 재료삼아, 대중 앞에서 개그를 치고, 끊임없이 망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용감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집중해서 책을 읽었던 것 같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개그맨을 사랑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무명시절 때부터 사랑하였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한적한 바에서 처음 만났고, 개그맨은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고 있었다. 여자는 말없이 글을 쓰는 개그맨의 모습에 아주 쉽게 그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가 아닌 '개그 아이디어'였고 그때 쓴 글이 훗날 CF에 등장할 정도로 유행이 되었다. 개그맨은 물고기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하지만 그 사람이 기르는 물고기는 오래 살지 못하였다. 그러면 그는 시든 꽃을 버리고 새 꽃을 사는 사람처럼 새로운 물고기를 사곤 했다. 그때마다 개그맨은 그 여자를 만났다. 비닐봉지 안 물속 물고기를 손에 들고 그녀와 산책하는 것은 평범한 데이트에 긴장을 부르고 있었다. 물이 새거나 너무 흔들면 곤란하므로 자연히 걸음을 늦어지는데 그것도 좋았다.

무명시절이 끝나고 드디어 그 사람이 TV 속에 비추어졌다. 한번은 걸인 행세를 하고 나왔는데 다 떨어진 옷에 이상한 가발을 쓴 그는 사람들을 실 틈 없이 몰아붙이며 웃겼다. 사소한 수치심 하나까지도 김숙이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는 개그맨이 무척이나 대단해보였다. 여자는 느꼈다. 내 애인의 사랑스러움을 그대로 전해주는 TV는 얼마나 신기한지, 가끔씩 여자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들이 잡힐 때, 예를 들자면 곤란한 순간에 미세하게 떨리는 눈썹이라든지, 하품을 참을 때 부풀어 오르는 인증을 발견할 때 여자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와는 다른 맥락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의 유행어를 따라하는 사람을 볼 때는 더없이 기쁘고 즐거웠다. 어느 날 밤인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여자는 앞 동의 거실을 한참 들여다 본적이 있다. 온 가족이 개그맨들이 나오느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있었다. 그 거실 안에 TV가 있고 그 TV속에 내 연인이 들어
있단 생각을 하니 친구 한 명 없는 이 낯선 도시가 너무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책을 다 읽은 뒤 여자는 조용하고 소심하면서도 작은 것에 신경 쓰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
나한테 느껴졌다. 나와 생각이 같았던 부분에서는 격하게 공감해서 정말 재미있었고 주인공
의 성격에 어떨 땐 답답해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몰랐던 것을 깨달았던 것
같기도 해서 정말 좋았다. 또, 약간은 힘들었던 무명시절을 잘 견뎌서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유행어가 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 개그맨도 무척이나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나도 그치
럼 끊임없이 노력해서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개그맨

저 자 : 김성중 저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출간일 : 2011년 9월 16일

‘가시고기’를 읽고

‘가시고기’를 읽고

어룡초 5 고희재

처음 겉표지만 봤을 땐 이 아이가 병든 몸으로 가시고기를 키우면 희망을 얻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병든 아이를 아빠가 가시고기와 같은 사람으로 들본다는 이야기였다. 이런 아빠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읽고, 엄마의 사랑 못지않게 아빠의 사랑도 깊다는 것을 느꼈다.

가시고기는 맑고 낮은 하천에 살면서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바다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끼들을 다른 고기로부터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새끼들이 깨어날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새끼들이 깨어나면 얼굴을 돌 틈에 박아두고 스스로 새끼들의 먹이가 되어 죽는다. 이런 가시고기의 수컷의 희생과 다르지 않은 주인공, 다음이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은 감동적이었다.

주인공 다음이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엄마는 프랑스에서 화가와 결혼한 사실을 아빠에게 찾아와 알린다. 그래서 아빠는 다음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는 다음이의 상황을 모르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음이는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자신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아빠가 다음을 미워하거나 슬퍼할까봐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다음이는 어른스럽고 참 강한 것 같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라면 그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어리광을 피우거나 엄마 곁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듯이 강한 다음이 뒤에는 강한 아빠가 있었다. 엄마는 다음이 곁을 떠났지만, 아빠는 모든 시련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다음이 곁을 지킨다. 뿐만 아니라 아빠는 돈이 없어 매일 같이 원무과로 끌려가는 일이 반복되어도 아빠는 다음이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했다.

그런데 이런 아빠한테 불행이 찾아왔다. 다음이 돌보느라 자신의 몸을 챙기지 못했던 아빠

에게 간암이 찾아온 것이다. 결국 아빠는 이 간암으로 인해서 다음이를 엄마에게 보낸다. 다음이는 건강을 되찾고 공부도 하게 되지만 아빠는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

아빠의 삶은 책의 제목처럼 가시고기와 많이 닮아있었다. 아빠는 다음이를 떠나 보낼 때의 슬픔을 자제하려 쳐다도 안보지만 그것이 더 다음이와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느낀 아빠를 보면서 안쓰러웠다. 그리고 자식들의 마음과 앞날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깊다는 것을 느꼈다.



가시고기

저 자 : 조창인 저

출판사 : 밝은세상

출간일 : 2007년 4월 23일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를 읽고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읽고

어룡초 5 고희재

나비넥타이를 좋아하는 제제에게.

제제야, 안녕? 난 멀리 대한민국에 사는 회재누나라고 해. 너희 나라와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야. 네가 나오는 이 책을 읽고 너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은 너에게 망나니, 나쁜 놈 등 안 좋은 말을 했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너와 같이 가난하고 귀찮을 많이 듣고 오해를 많이 사는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

너희 나라는 여섯 살이 되어야 학교에 갈 수 있는데 너희 집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학교에 가게 된 걸 보고 참 안쓰러웠어.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을 빼먹는 것을 보고 집에서처럼 맞게 될까봐 조마조마했어.

많은 사람들은 제제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혼내기만 했는데, 제제가 지어준 ‘핑기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어서 고민이 있거나 심심할 때는 그 나무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고 시간을 보냈지? 나는 너의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제제 너와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해도 쉽게 그 비밀을 말하진 못할 거야. 이런 행동은 너의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걸거야.

또한 쓸쓸하고 외로워하는 아빠를 위해서 고급 담배를 사다 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리지만 칭찬은 커녕 매만 맞는 너를 보고 참 슬펐어. 우리 사회에서도 나는 좋은 뜻으로 한 일로 귀찮을 듣는 일이 있어. 그럴 때면 나도 너처럼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실직을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더욱 힘들어 하시는 아빠를, ‘가난한 아빠를 둔 건 슬픈 일이야’라는 말을 해서 아빠를 더욱 죄책감만 들게 한 건 내가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 이런 너의 말을 들은 아빠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은 심정이었을 거야. 이제부터라도 말을 조심해야겠어.

2013년 의정부시 올해의 책



두근두근 내 인생

저 자 : 김애란 저

출판사 : 창작과비평사

출간일 : 2011년 6월 20일

두근두근 내 인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의정부시 호원동 황계연

“아버지와 어머니는 열일곱에 나를 가졌다.” 라고 쓰인 첫 줄을 읽고, 이 책이 과연 “올 해의 책”으로 선정된 것 맞나? 하고 의아스러웠다. 하긴 아이 남기를 기피하는 작금의 세태에 뭔가 애기꺼리가 되긴 하겠네 하며 책을 읽어 내려갔다. 우선 작가는 글 솜씨가 좋다고, 말을 참 맛나게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낱말도 아닌, 아! 그랬다, 이런 말들은 공들여 쓴 책이 아니면 만나기 쉽지 않은, 맛보기 어려운 언어들이었다.

특히 나이 어린 주인공이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할 때나 내면의 생각을 글로 썼을 때가 그랬다. ‘그 말이 몸피를 줄여가며 만든 바깥의 넓이를 가늠하는 일’이라던가 ‘천 개의 풍향을 상상하는’ 또는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와 같은 표현은 작가 생각의 깊이를 가늠하게 해준다. 대학을 졸업 하고도 제 생각을 톡 떨어지게 글로 쓰지 못하고, 긴 문장을 말도 안 되는 낱말로 줄여서 신조어를 생산해 내는 풍조에 경고라도 하는 듯 작품의 한 줄 한 줄은 신중하게 선택한 듯한 말들로 채워져 있다.

소설의 줄거리는 열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조로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 신체 나이는 80세를 사는 아름이가 자신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다 죽어 가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아주 간결한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간다는 이면에는 의학의 발달과 의료 혜택의 덕이 큰 몫을 차지하는 이 때에도 불치의 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축복된 삶을 깨닫지도 못한 채 물질의 허상을 쫓아 생을 낭비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들에 밀려 내 생각을 정리할 틈이 없고 차분히 독서할 여가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밖에서의 지식 유입보다는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인간적 고뇌나 성찰은 지혜를 터득하게 해주고 그 지혜의 재료들은 독서를 통해서 수집 가능하다는 평소 나의 생각은 주인공 아람이가 매우 짧은 동안의 학교생활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채우는 방법으로 많은 양의 독서를 하고 많은 시간 생각하는 것으로 표현한 작가와 공감할 수 있었다.

내게 있는 머리 큰 아들 녀석들은 요즘 여자들이 도무지 개념 없고 받을 줄만 안다고 한탄하는데, 아람이의 엄마아빠가 비록 열일곱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어도 세상을 향해 떳떳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며 제 몫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나는 그 개념없다는 우리의 아이들도 '부모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작가의 말에 희망을 본다.

이 작품이 비록 간단한 줄거리에 무거운 소재를 가벼운 느낌으로 보이게 썼지만 저자가 작품을 쓰기 위해 들였을 공력은, 이곳저곳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일 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50쇄를 찍어낸 것으로 보상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이 풍요로워 감사할 줄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었다.

이것은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다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의정부시 녹양동 김미영

나는 뭐든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짜증부터 난다. 이 책은 나름 성질 급한 내게 프롤로그부터 맘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이 책이 눈 밖에 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2013년 의정부시 올해의 책 추천 소식을 듣고 나는 기꺼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리곤 40년 이상 된 나의 책력을 자랑하며 심운경 작가의 책을 추천하는 글을 자신있게 썼다. 내가 감동받았던 책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고자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렇게 좋은 책을 추천할만한 내공이 있다는 걸 은근히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얼마 후 발표된 선정작은 작가도 제목도 낯선 김애란 작가의 작품 “두근두근 내 인생”이었다. 차라리 가공할 내력을 가진 작가의 작품이었거나 누구나 알만한 베스트셀러였다면 쉽게 수긍이 갔을 것이다.

여러 시민들의 추천작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선정된 이 낯선 책의 정체가 무척 궁금했다. 어디 얼마나 잘났나 보자하며 집어든 책이 처음부터 곱게 일컬 리가 없었다. 그런데 프롤로그부터 깔려있는 젊은 부모니 늙은 자식이니 하는 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은유하고 있는 것인지도 답답했다, 하지만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야기에 깊이 몰입되고 있었다. 또한 그 순수한 영혼이 풀어가는 결코 녹록치 않은 인생 이야기가 궁금해 더 빨리 책을 넘기고 있는 날 발견했다.

이 책의 화자는 한아름이라는 열일곱 소년이다. 밝고 명랑했던 열일곱 소녀 최미라와 비록 치기어린 체고 중퇴생이었지만 따뜻한 가슴을 지녔던 한대수는 어느 날 어린 부모가 됐다. 부모가 되면 싫어하는 일이 좋은 일보다 훨씬 많다는 걸 여러 번의 계산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생명을 품었다. 어린 부모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 쉬울 수가 있으랴! 하지만 한아름은 어린 부모의 신산한 삶을 기쁨으로 일순간 바꿔 놓을 수 있는 정말 사랑스런 아이였다.

하지만 아름이는 어느날부터 무력무력 늙어갔다. 건강한 육체에 주름만 늘어가는 단순한 외모 변화만이 아닌 모든 생명이 겪는 죽음과 노화를 병으로 앓고 있었던 것이다. 정기검진

시마다 마치 당연히 정해진 수순이라는 듯 몸의 각 기관이 하나씩 망가져갔다.

그러나 한아름은 건강하고 씩씩하다. 물에 빠진 자식을 건져내지 못하는 악몽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엄마에게 오늘 제가 수영선수나 수중발레 선수가 되는 꿈을 꿀 거라며 위로한다.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연을 팔아 도움을 받는 불우환우돕기 방송에 나가야하지만 아들이 받아야 하는 상처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에게 재밌는 이벤트라도 되는 양 신청을 종용하기도 한다. 아픈 아들을 가진 어린 부모에게 힘을 주기 위해 늙은 아들은 때로는 코미디언처럼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어른처럼 능청맞기도 하다.

물론 어린 나이에 노인의 얼굴을 하고 몸의 모든 기능이 급격히 노화되어 가는 아름이에게도 상처는 있다. 다른 이들보다 빠르게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고 있었기에 삶의 상처는 당연히 존재했다. 취재차 아름의 집을 방문한 작가와 피디는 아름의 아픔과는 별개로 이번 방송분의 시청률 대박 여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아름이에게 과연 성욕이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며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 때 아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지만 아름이는 본인의 참담함보다 고생하시는 부모를 위해 좀 더 방송에 충실하려 노력한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이 전파를 탄 후 기적처럼 아름이에게도 첫사랑이 찾아온다. 서하라는 친구는 편지를 통해 마음을 교감하며 아름이의 온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생애 처음 마음을 나누고 애달파했던 그 여자친구는 한 시나리오 작가 치망생이 만든 가공의 인물이었다. 무한 긍정 아름이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가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땐 무너지고 말았다.

하지만 크고 작은 상처와 부침 속에서도 한아름은 다시 일어났다. 절망 속에도 키가 크는 푸르른 나무처럼 희망을 한아름 안고 다시 일어났다. 아름이엔 삶의 시작이자 마침표가 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고 영혼을 교감하는 소울메이트 장씨 할아버지도 버팀목이 되어주

셨다. 그리고 아름에겐 반드시 완성해야 할 글이 있었다. 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써야 할 자신과 부모의 이야기이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굳이 아름이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엄마 뱃속에 새롭게 잉태된 새 생명처럼 언제나 삶은 희망으로 지속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철없던 어린 시절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백혈병에 걸린 가녀린 여인이 되고자 열망했던 적이 있었다. 기왕 병에 걸려야 한다면 창백한 얼굴로 남자 주인공의 순애보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여주인공이 되고 싶었나보다. 물론 지금은 백혈병 환우들의 극심한 고통에 대해 대략이라도 들어 알고 있기에 어린 날의 철없던 동경에 대해 죄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다.

내 유난하던 병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앓고 싶지 않았던 병이 있었으니 그것은 화상과 조로병이었다. 화상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동반하는 병이라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고 조로병은 한창 젊은 나이에 노인의 얼굴을 하며 죽어가는 게 안타까웠다. 탄력을 잃고 주름진 얼굴에 머리까지 빠진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었다. 그런 이유에서였을까? 처음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을 땐 왜 하필 조로병일까 의아했다.

하지만 아름의 생애 대해 읽어가면서 그들의 순수한 영혼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 병에 대한 어리석은 나의 선입견과 오해가 부끄러웠다. 절망 속에서도 쉬지 않는 심장처럼, 슬픔 속에서도 곳곳이 자라나는 희망처럼 두근두근한 삶의 통찰을 보여주는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에세이류나 여행기와 같이 언제든 읽기도 덮기도 편한 책을 선호해왔던 내게 오랜 만에 읽어본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은 빠져들했던 즐거움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아직도 추천작에 대한 탈락의 아쉬움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다음 해에도 여러 사람들이 진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추천되고 선정되길 바래본다.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의정부시 신곡2동 김혜진

처음에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도 들어본 적 없는 생판 처음 보는 책이어서 그런지 빌려놓고도 읽기가 귀찮고 뭐가 싫은 느낌도 있었지만, 한 번 읽어보자고 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더니 계속 막힘없이 쪽쪽 책이 읽어져나갔다. 이 책은 아직 파릇파릇한 나이이자 고등학교 생활의 시작인 17살, 아름이의 이야기이다. 아름이의 부모님인 대수와 미라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름일 남았고 아름인 현재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려있다. 조로증이 무엇이라면 빨리 늙는 병으로 현재 조로증의 원인과 치료방법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아름이의 나이는 17살이지만, 몸은 80살로 노인처럼 약하게 살았다. 아름이는 ‘이 웃에게 희망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된다. 이름은 서하. 서하랑 메일을 주고 받으며 우정을 키워나가고 서하에 대해서 점점 궁금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서하는 실제 인물이 아닌 30대 남자 시나리오 작가였다. 아름이는 이 사실을 알고 한동안 게임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서하가 아름이를 찾아오고 아름이는 서하를 이해해준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부터 자신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틈틈이 노트북으로 쓴 글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 처음에 이 책을 보고는 단순히 연애 소설인 줄로만 알았다. 제목에 두근두근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내 느낌상으로는 연애 소설같았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고 나니까 아름이의 부모님인 대수와 미라의 연애 얘기와 아름이의 생활에 관한 얘기가 합쳐져서 책을 보는 내내 웃기도 해보고 살짝 눈물이 나기도 했었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런 병을 앓고 지내는 아름이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고, 아름인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아마 나 같으면 무섭고 힘들다며 이미 지쳐 누워 버렸을 텐데, 정말로 아름인 대단한 것 같다. 아름이가 책에서 힘들었던 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라고 대답했는데 왠지 그 말에 공감이 간다. 아플 때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남겨져 있으면 쓸쓸한데, 아름인 그걸 계속 견뎌야 했으니 아름이의 기분이 상상이 가고 나도 아플

때 혼자 있어본 적이 있어서 그 느낌이 아픔이란만큼은 아니지만 공감이 간다. 그리고 이 책에서 아픔이의 부모님이 하시던 말쑈와 아픔이가 하는 말들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나는 “미안해 하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슬퍼할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네가 나의 슬픔이라 기뻐.” 이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는 완벽하게 되지 않지만, 어렵잖아 이해가 가는 내용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나는 아마도 평평 울어버리고 말 것 같다. 이 책에선 작가님이 쓰신 문장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좋았고 어떤 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도 있었다. 아픔인 자기가 친구가 없고 외롭다고 말했지만 난 아픔이에게 최고의 친구는 장씨 할아버지라고 생각한다. 허물 없이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책에서 보면 서로 여러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무엇보다 장씨 할아버지가 시원시원하니 대답을 잘 끄고 좋은 대답을 내놓아서 좋다. 아픔인 장씨 할아버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하는 게 정말 어른스럽고, 장씨 할아버지는 항상 툭툭대면서도 아픔이를 챙겨주는 모습도 보기 좋고 아픔이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때 아마 미소가 지어졌던 것 같다. 이 책에는 중간 중간에 코믹한 요소들도 들어가 있었는데 특히 아픔이가 뭘 말하고 대수와 미라가~하는 거 어떨까? 이러는데 계속 피식피식 웃음이 났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내가 그걸 읽으면 죽을 때 까지 뭘세로 산다고 그랬는데 분명 이 부분은 진지한 부분인데 이 말이 너무 웃겨서 빵 터져버렸다. 아직은 젊고 어린 부부다 보니까 유머 감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유머 감각은 많은데 아픔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난 이런 부모님이 있으면 왠지 좋을 것 같다. 나랑 공감대도 잘 맞을 것 같고. 내 부모님은 나를 늦게 낳으셔서 조금, 요즘 시대에 맞지는 않았는데 젊은 부모님이시면 왠지 취향도 비슷할 것 같고 공감대가 좀 더 많이 형성될 것 같다. 물론 내 부모님이 싫은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나랑 충분히 공감대가 맞지만 그러면 좋겠다는 내 마음이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졌다.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내가 만약 이 상황에 처해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생

각이 들었다. 나도 자주 아픈 스타일이라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장염에, 여러 가지 질병은 다 걸려본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병이 들이닥친 적은 없었다. 이런 병이 만약 나에게 온다면, 위에 서도 한 번 언급했지만 아람이처럼 깨끗하게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다른 사람들도 말로만 버틸 수 있다 하고 정작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해있으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뭐든지 이겨낼 수 있고 완벽할 것 같아도 큰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아람이는 대단한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나도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괜히 뜬금없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람이랑 서하람 메일을 주고 받는 걸 보면서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이랑 얘기를 나누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재미있어 보이고, 스릴 넘쳐 보인다.

세 번째로는 아람이의 성격을 보면서 내 성격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람이는 자신을 속인 서하를 용서해주었다. 나 같았으면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으로 다가온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람이는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줬다. 내 성격은 그렇게 너그럽지는 못해서, 아람이처럼 용서를 해줄 순 없을 것 같은데 아람이는 나와 다르게 이해를 해줬다. 나도 이런 아람이의 성격을 본받아서 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성격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격을 단번에 고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미라와 대수의 연애 시절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 어린 나이, 17살에 아이를 가지고 서로의 부모님들에게 꾸중을 받았지만 서로를 믿고 끝까지 아이를 지킨 어린 부모. 첫 만남도 특별했고, 서로에게 좋은 짝이 되어주었던 것 같다. 나도 나중에 커서 정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책 마지막에는 아람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직접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부모님의 연애 시절 첫 만남을 그린 글이다. 마지막까지 아람이는 자신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자신을 사랑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여드렸다. 나는, 부모님께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내가 아마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속 썩이지 않는 것. 이게 내가 현재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효도인 것 같다.

그리고 책을 다시 한 번 읽다가 알게 된 것이 이 책의 제목이 왜 두근두근인지 알 것 같다. 아름이와 서하가 메일을 주고 받을 때 아름이가 서하에게 보낸 메일 중 이런 내용이 있었다. 두근두근해,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두근두근 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이 책에서 아름이와 서하가 서로에게 추천해준 노래를 한 번 들어봤는데 'Antifreeze'와 'Glide' 중에서 나는 Glide가 더 좋았던 것 같다. 멜로디도 맘에 들고, 가사의 내용도 왠지 이 끌리는 내용이라서 좋았다. 이 노래 두 개는 지금 내 핸드폰 음악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웃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한, 정말 좋은 책인 것 같다. 요즘 내 또래 친구들은 책 읽기를 싫어하고 컴퓨터 게임에, 핸드폰 사용에,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혹시 내가 새로 알게되는 친구나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2013 의정부시 책에서 찾는 꿈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것도 있지만 책의 내용이 우리 나이에 읽을 만 하고 책 중간중간 나와있는, 요즘 학생들이 쓰는 비속어도 있어서 조금은 더 친숙하게 이 책이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덕분이고 좋은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의정부시 민락동 박금주

아버지는 자기가 여든 살이 됐을 때의 얼굴을 내게서 본다.

나는 내가 서른넷이 됐을 때의 얼굴을 아버지에게서 본다.

- 작가의 프롤로그 중에서 -

내 나이는 마흔둘이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딸은 열일곱이 되었다. 북한군도 무서워 한다는 사춘기 중2병을 거치고, 이 시대의 가장 고독한 삶을 맞이 할 고등학생이 되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은 겉모습 뿐이고, 사회가 지정해 놓은 고등학생이란 표본 모습이다. 모든 고등학생이 학업이란 묵중한 짐을 어깨에 메고 엉덩이가 무거워질 정도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삼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는 엉덩이가 뚱뚱해지길 원한다. 책상 위에서 책과 씨름하며 스탠드의 작은 빗줄기를 벗삼아 학업에 정진하길 바란다. 그런데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듯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순리인가 보다.

교과서보다는 연예인에게,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친구들의 수다에, 중간고사보다는 학교 축제에 반짝이는 에너지를 쏟는 열일곱의 소녀를 보며 나는 엄마로서 '방황'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만, 아마 딸아이에게는 추억이란 글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득 그런 모습을 보며 나의 열일곱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열일곱은 지금의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나는 지금 나의 딸의 모습에서 나의 과거를 본다.

한아름은 조로증이란 병을 가진 열일곱 소년이다. 그 병명을 눈치챈 건 아름이가 세 살 때라고 한다. 그 뒤부터 아름이는 한 시간을 하루처럼, 한 달을 일 년처럼 살아간다. 열일곱의 아버지 한대수, 어머니 최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름이란 지금 부모가 자신을 낳았을 때 나이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긴 삶에서 열일곱 살에 일어난 일들이다. 운동만 열심히 해서 체고에 들어간 한대수는 태권도 시험에 나가게 된다. 그러나 심판의 부당한 경고와 벌점에 화가 나서 이단 옆차기를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정학을 맞게 된다. 잠시 방황하고 있는 사이에 미라를 만나 덜컥 아빠가 되고 말았다. 부모가 된 대수와 미라는 더 이상 청소년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들은 젊음의 순간을 부모의 의무와 바꾸어야 했다. 아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안 순간 가슴에 슬픔이란 단어를 안고 살아야 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름이의 소원은 ‘부모를 웃기게 하는 자식’이 되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이유는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을 살고 싶어서라고 아름이가 말했다. 정말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아름이를 통해 대수와 미라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젊음을 모르고, 미래에 다가올 늙음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다.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름이는 열일곱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아버렸던 것이다.

나에게도 열일곱이 있었는가 싶다. 나는 그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알려면 지금의 나의 딸을 보면 된다. 물론 환경은 바뀌었지만... 누구에게나 두근두근한 인생의 순간이 온다. 아름이가 처음 세상에 나와 엄마의 심장을 마주했을 때, 떠나는 마지막 길에 쿵-쿵-쿵-쿵 하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서하의 편지를 받고 처음으로 열일곱의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는 두근두근거렸다. 세상의 모든 것은 두근두근하게 한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므로 늘 새롭다.

한대수와 최미라도 그 두근두근 인생의 날이 있었다. 아름이는 자신이 그 날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름이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줄 때가 부모에게는 두근두근 거리는 날들일 것이다.

이 소설을 읽고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아름이가 너무나 큰 아이였다는 것이다. 몸은 따라 마음이 빨리 자랐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자주 철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소리친다. “언제 철들래, 제발 언니처럼 행동해” 라고……. 하지만 이젠 그러고 싶지 않다. 빨리 철든 자식은 부모를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 가장 큰 기적은 보통의 삶에 있다. 보통의 삶을 살다 보통의 나이에 죽는 것. 아름이가 말했던 그것, 나는 그런 삶을 꿈꿀 것이다. 이제 열일곱의 딸도 엄마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볼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더 열심히 더 즐겁게 그리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두근두근 내 인생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서울시 도봉구 창5동 염진숙

의정부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다. 주인공 아람이는 올해 열 일곱, 그러나 몸은 빠르게 노화되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주름진 피부, 흐려져가는 시력, 힘없는 손과 발..... 아람이의 부모는 딱 아람이 나이일 때 아람이를 낳았다. 방향하던 고등학교 시절, 서로는 우연히 숲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고 임신까지 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된 아람이 아빠는 처가 도움으로 스포츠 매장을 차리지만 작은 마을에 고가의 스포츠용품은 판매가 되지 않았다. 끝내 문을 닫게 되고 30대를 넘은 아람이 부모는 희귀병을 앓는 아들로 인해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 아람이는 그런 부모를 위해 글을 쓰기로 한다. 자신의 부모 이야기를... 아람이는 오래보다 옆집 장씨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낸다. 병원에서 살다시피하는 아람이는 컴퓨터 게임, 음악, 글쓰기로 시간을 보낸다.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는 아람이는 그 후 메일을 주고 받는 이성친구가 생긴다. 이제야 아람이는 제 오래 즉, 열일곱 살로 살고 있는 것에 두근거리려한다. 그러나 그 소녀가 남자임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아람이는 더욱 심각한 몸상태가 되어 끝내는 미세하나마 있던 시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병문안을 온 장씨 할아버지와와의 대화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병으로 인해 혹은 자신으로 인해 청춘을 잃어버린 부모님께 미안함을 느끼며 부모의 삶 이야기의 글을 남기고 눈을 감는다. 부모보다 더 늙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던 아람이, 그런 아람이를 돌보아야 했던 어린 아람이 부모, 그래도 긍정적으로 삶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다. 책 뒤에 아람이가 남기고 간 부모님의 삶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부모님의 방향했던 학창 시절, 어린 나이에 사랑을 하며 느껴지는 감정. 임신한 후의 여러 가지 갈등, 결혼 허락받는 과정, 아이 낳은 후의 행복감 등이 서술되어있다. 뒷부분을 읽으면서 이 글을 남기고 간 아람이 생각에 쉽게 책을 덮지 못했다.

두근두근 내 인생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의정부시 용현동 이서진

사람의 평균 수명은 68~100세 사이다. 요즘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수명이 점점 더 연장되고 있다고 한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긴 시간이 갖는 여유? 아니면 그 시간들만은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 그러나 그 오랜 수명 동안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 전에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기를, 누군가의 가슴 속 깊숙이 내 이름을 새겨놓고 가기를 말이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한다. 어딘가에 내 자취라도, 어딘가에 내 향기라도, 어딘가에 무엇이라도 놓고, 누군가가 날 기억하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흔적을 놓고 가는 것이다. 그럴 시간이 사람에겐 있다. 100년이란 시간이 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100년이란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말이다. 이를테면 시한부, 그들은 최대한 진하게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건 대부분 가족 정도뿐일 것이다. 특히 무척 어릴 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은 더더욱. 그들은 가족에게라도 자신을 각인시키려고 한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하자면, 가족에게 자신만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 선물로 당신들은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이 책의 주인공, 아람처럼 말이다.

물망초의 꽃말은 참 서글프다. 그 꽃은 아름답지만 개화 기간이 무척 짧다. 그래서일까? 꽃말은 바로 ‘Don’t forget me’이다. 나를 잊지 말아요..., 아름을 꽃으로 표현하자면 물망초이다. 마치 독 건드리면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것만 같으며 눈물처럼 흘뿌려질 것만 같은 꽃. 그러면서도 ‘나를 잊지 말아’라고 말하는 그런.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꼭 아름 같은 꽃이다. 당장이라도 사라질 것 같아 무언가를 남기고 가려한다. 물망초가 사라지기 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는 것처럼. 아름은 꼭

물망초처럼,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갔다. 바로 자신을 가장 기억에 오래 둘 부모님께. 오히려 그때 생명이 다한 게, 오히려 더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아름은 가장 아름다웠다. 물망초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아름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보다 빠른 시간을 달린 아름은 시간을 너무 빨리 달렸기에 지쳐버려 외관에는 신경을 쓸 수 없었다. 그랬기에 주름살이 자글자글 생겨났다. 마치 '노인'처럼. 그 이후에도 시간은 지체하지 않았다. 남들이 하루를 살 때 아름은 그보다 더 살았다. 17세, '아름다움'이 꽃피는 나이이나 아름에게는 한 떨기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버린 나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아름은 자신의 흔적을 이 뻑뻑한 세상에 남기고 떠났다. 그의 죽음을 애도할 사람은 많지 않다. 스티브 잡스, 반기문 UN총장 등처럼 유명하지도, 돈이 많지도, 친구가 많지도 않았다. 이 세상에, 특히 대한민국에 자신의 획을 남기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요즘이야 뭐, 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갈 뿐이니까, 오히려 아름은 평범을 갈구하였지만 그 특별함이 그에게 특별한 인생을 선고한 것이다. 그의 인생을 더 꽃피게 한 것이다. '수하'라는 가상인물은 아름에게 그랬다, "나는 너를 산이라고 부르고 싶어, 해발고도가 높은 산은 해발고도에 따라 다른 꽃이 핀대."라고. 그러나 나는 아름을 꽃이라고 부르고 싶다. 한 줌에 잡힐 물망초처럼, 그러나 잡으면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만 같은 그 꽃을, 그러나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 꽃이 아름이라고.

나의 꿈은, 어떤 행성은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의정부시 의정부2동 조용언

나의 꿈은, 어떤 행성은
슬픔도 그리움도 노래하지 않지만,
오직 거기에 있을,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한 권의 책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 『스물의 노트』 中 -

나 의 꿈 이 멀 어 져 간 다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몫이다. 그것이 아름답건 혹은 추하건 간에, 잊히지 않는 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인간이거나 인생이란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은 희미해지는 기억을 소생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시작은 작가의 단편 『달려라, 아비』일 것이다. 독자도 그럼겠지만, 작가에게도 가장 힘들었기에 가장 아련했던 삶의 한 시기를 쉽게 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니, 쉽게 잊을까봐 그것을 꼭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저마다 평생 간직하고픈, 결코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품고 산다. 때로는 그 기억 하나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만화 영화의 주인공은 이런 말을 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지워진다면, 그때 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잊지 못해 슬픈 것처럼, 저마다의 기억 속에서 오래오래 숨쉬고 싶어서 이렇게 가파르고 숨차는 길을 달리는지도 모르겠다.

그 불모의 의지는 ‘엄마’와 ‘아빠’를 그리고 그 시절의 ‘나’를 환각된 기억 속으로 불러온다. 그리고 책을 펴든 수많은 이들은 그들이 불러내는 저마다의 누군가를 상시하면서 울거나 웃거나 혹은 쓸쓸하거나 기뻐하면서 기억과의 조우에 감동하는 것이다.

산다는 건, 알록달록한 풍선 끝에 꿈을 매달아 높이 띄워 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는 날이 많아질수록 삶의 농도는 짙어져갔다. 눈물이란 단순한 수분 성질이 아닌 탓일까…… 슬픈 감정이 짜내는 그것은 바닷물과도 같았다. 염전에 가득 고인 바닷물. 작열하는 햇빛에 수분이 모두 증발하면 남게 되는 순수한 소금 알갱이들. 한때는 그런 소금이 되고 싶었지만, 그 상태를 견디어내기엔 내 그릇이 작다는 걸, 이제는 알 것도 같다. 소설가 김연수의 말처럼, 인생은 스물을 기준으로, 스물 이전과 스물 이후의 나날들로 나뉘는 것만 같다. 스물 이후에, 지금 나는 스물을 다섯 번째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늘 헉헉거리기 일쑤지만, 어쨌거나 겨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나는 고비(가까스로 넘겼기에 지금 살아있지만)를 맞고야 말았다. 나에게 주어진 중력이 너무나도 버거웠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소유한 것들, 그것들의 가치가 깨어지는 경험이나 내가 정보보다는 비정상에 가까운 마이너의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스물에 읽었던 김애란의 소설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조금 더 애처로웠고, 조금 더 막연하거나 쓸쓸했다. 그 안에는 꿈을 잃어가는 ‘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면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니,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게 그것뿐이었다는 게 더 알맞은 표현일 것이다. 그 즈음에 어느 자리에서 “난 니들이 어떻게 살지 다 보인다, 보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 나이 많은 선배였다. 응?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은 골몰한 표정으로, 무슨 뜻이지? 했다.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세상을 모르겠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 뜻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내가 가장 멀리했던 말은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의 꿈은 나의 그리움은 무엇이었을까?

소설 속 주인공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내게는 S가 있었다. 세상 밖, 저 멀리로 사라진 S가……,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말이다. 나에게 S가 있었고, 그 시간은 변치 않을 것 같았다. 내게 처음으로 김애란의 소설을 추천했던 것도 S였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달려라, 아비』 소설을 집어준 것도 S였고, 현대미술관을 데려가준 것도 S였고, 홍대 거리를 구경시켜준 것도 S였으며, 스물이란 시간 속에서 꿈을 잃어가는 '나'를 다독여준 것도 S였다. 따지고 보면 S였기에 가능했던 일들이 많은데, 지금의 나는 마치 S 따윈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가 곁에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닐 것이다. S는 나보다 세 살이 많던 한 학년 선배였다. 시오노 나나미와 앤 라이스 등의 환상 작가를 동경했고,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서 데생을 하던 엉뚱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가 나를 위로했던 건, 내가 늘 슬퍼 보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때 나는 어렸고, 아니, 어리다는 핑계로 모든 걸 기만했었고, S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 늦봄 즈음이었을 것이다. S는 돌연 세상을 떠났다. 그가 짙어졌던 무겁고 고통스런 짐은 무엇이었을까. 짐작하는 게 있어도, 차마 떠나간 자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될 뿐이었다.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 책꽂이 한쪽에 꽂힌 것처럼, S도 내 마음 한편에 꽂히게 되었다. 그리고 조용한 나날이 흘렀다.

또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짧으면 짧고, 길으면 긴 시간이었다. 그간 나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한테는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어.”하고 말하면, 상대방 친구들에게서도 “나한테도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어.”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셋이 모인 자리에서 한참이나 웃음이 계속 되었다. 결국 너도 나도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삶의 무늬를 무시워했다. 내가 그들과 다르면 어쩌나, 나 혼자 뒤처지면 어쩌나……. 그제야 “난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 다 보인다, 보여.”라는 말이 이해됐다. 그 말을 이해하는 데, 못해도 십여 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그리고 다시 읽은 『두근두근 내 인생』은 좀 더 친숙했다. 거기에는 꿈을 잃어가는 ‘나’도 있었지만, 다시 꿈을 찾아가는 ‘나’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스물에 썼던 일기를 지금 다시 쓴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나의 꿈은, 어떤 행성은……. 그 이후에는 어떤 문장, 어떤 감정들이 찾아올는지……. 창가와 마주한 낮은 책상에 앉아 나는 스물의 노트를 덮었다. 노트 옆에는 이별보다는 또 다른 만남을 고했던 『두근두근 내 인생』이 놓여 있었다. 나 또한 S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S에게 또 다른 만남을 고하며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손가락을 꼭 한번 오므렸다 폈다.

답아내지 말아야 할 눈물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의정부시 호원2동 최경희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오래전 친구와 대화도중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에 보태 ‘이해한다’는 말 뜻의 실상은 ‘이해하기 노력 중이다’의 줄임말이라고 덧붙였다. 언젠가부터 나는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한 희망 같은 것이라 여기는 건조한 사람이 됐다. 이해한다가 아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기에 언제나 감정은 마지노선을 넘지 못하고 쉬이 사그라졌다. 안구건조증은 메마른 내게 내려진 천벌 같은 것이었다. 눈물은, 내게는 더위와 목마름에 지친 사막 여행자의 눈에 어른거리는 신기루의 다른 이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눈뜨기가 힘들 정도로 메마름은 일상이 돼버렸다. 우는 걸 포기하는 인생. 그런 삶도 있다. 나처럼. 그럴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를 향한 갈망은 커져만 갔다. 그것이 내 말대로 불가능할지라도 말이다. 그 간절함이 닿았던 걸까? 마구잡이로 사기만 했지 읽지 않은 채 버려둔 책 무더기 속에서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을 우연히 발견했다. 책은 내게 이렇게 속삭였다.

“네가 나의 슬픔이라 기뻐, 나는” 아직도 책 속에 적힌 이 문장이 귓가에 맴돈다. 어쩌면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서 기쁨을 발견한 것 같다. 이것이 곧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증명하는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 본 적도 없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의 슬픔이 된 적도 없다는 말이 된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상처 받지 않기 위해 언제나 사람과 거리를 두었고 사랑에 빠진 내 모습이 금급해 타인을 내 삶에 초대했고 끝끝내 타인으로 이별했다. 조로증에 걸려 신체 나이는 80세 노인인 17살의 소년과 17살에 아이를 낳은 34살의 젊은 부모 이야기로 요약되는 김애란의 소설은, 이런 내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진실로 가능해질 때는 자신의 삶에 타인을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앉아 그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라고 말한다. 당신이 나의 슬픔이라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구

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나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진실로 가능하다는 것을 17세의 늙은 아들과 34세의 젊은 부모의 인생으로 확인했다.

소설가는 작품 안에서 삶과 죽음의 병렬관계를 역순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야기는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나는 아름이가 17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지 못한 채 단 순히 소년이 남보다 5배 이상의 속도로 살아가고, 늙어가고 또 죽어간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조건반사적인 독서 이해로 인해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무게 없는 슬픔으로 망막에 맺혔다. 게다가 TV프로그램 <사랑의 리 퀘스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와 그의 가족들 이야기에 면역이 되었는지, 아름이의 슬픔이 전해지는데도 공감만큼은 쉽지 않았다. 차라리 내가 느끼는 슬픔은 죽음이 불러오는 상실감과도 같았다. 그러나 눈이 멀어가고 치아와 머리가 빠진 노인의 모습인데도 아름이가 아직 17살 밖에 안된 소년이고, 그에게 1년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들로 인해 탄생과 죽음의 관계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슬픔의 위치를 달리하게 됐다. 아름이의 부모는 딱 지금의 아름이 나이일 때, 아름이를 가졌다. 철없는 고등학교생이 한때의 불장난으로 아이를 가졌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들은 부모가 됐다. 착하지만 능력 없는 아빠와 아들 병구완으로 청춘의 생기를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에서 어린 아들의 조로증은 부모의 삶을 자양분 삼아 무력무력 자라나는 삶의 슬픔이 된다.

놀라운 건, 깊은 주름으로 새겨지는 이 슬픔이 살아간다(살아있다)의 기쁨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거다. 다시 말해, 소설가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름이의 말대로, 시인은 꽃이 피는 순간을 목숨이 터져 나온다고 표현하듯이 삶의 생기를 끊임없이 반추하게 만드는 죽어가는, 혹은 늙어가는 소년의 이야기는 동정의 눈물을 단호히 거부한다.

대신 늙음을 죽어간다는 동의어로 이해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삶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게끔 한다. 소년의 17년간의 삶은 3살 때 조로증이 발병한 이후로 집과 병원을 오고가는 길목에 있다. 이기지도 못할 병에 걸린 것을 납득하고 인정하고 체념하는, 별 것 없는 삶이었다. 그럼에도 그 길목에는 슬픔과 고통보다는 살아있다는 생의 기쁨과 환희가 더 많이 놓여 있다. 부모보다 먼저 늙어가는 자식의 죄스러움은 어린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수 없는 어린 부모의 미안함은 늙은 자식을 살게 한다. 생기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탄생과 삶의 기쁨을 소년과 그의 가족에게서 엿보고 되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80 넘은 아버지의 어린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장씨 할아버지와 아람이의 우정도 탄생과 죽음의 결코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슬픔의 진정한 공유, 즉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탄생과 죽음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심원으로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타인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소녀 서하와의 풋사랑도 소년에게 슬픔이 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아람이의 말대로 소녀를 만난 적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소녀는 소년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줬다.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존재하지 않는 소녀에게 소년은 고마움을 표할 수 있었다. 김정치마의 Antifreeze의 노랫말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처럼, 소년에게 소녀는 분명 존재했다.

탄생과 죽음도 결국엔 같은 의미이다. 억지로 그것을 시작과 끝, 획득과 상실, 기쁨과 슬픔으로 나누는 것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살고 있는 우리가 만든 자기합리화 또는 자기 위안 장치일 뿐이다. 아람이의 17년 삶이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는 소년이 부모를 위해 남긴 소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책의 맨 마지막에 수

죽은 아픔의 소설은 17살의 소년소녀가 탄생의 신비를 경험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늙었으나 살아있는 고목 밑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소년소녀의 시툼 몸짓은 마치 고대로부터 전해져오는 풍요를 기원하는 춤 같았다. 부모의 삶을 소년은 부모보다 늙어버린 육신으로 이해했다. 17살에 부모가 된 철없는 소년소녀는 자식보다 젊은 자신들의 육체로 아들의 삶을 이해했다. 때문에 네가 나의 슬픔이라서 기쁘다고 아버지는 말할 수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다. 그리하여 탄생과 죽음은 그 슬픔의 자리를 바꾸고, 삶은 온전히 이 순간 살아있음의 기쁨으로 채워진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당신이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 프롤로그 중에서 -

살아간다는 죽어간다는 완곡한 반어법 표현이다. 늙어간다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방증일지 모른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제보다 딱 하루만큼 늙었다. 더 이상 젊다고 우길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도 나는 누군가의 슬픔이 되어본 적이 없다. 온전히 타인의 삶을 끌어안고 슬퍼해 본 적도 없다. 왜 이렇게 매마른 삶을 살게 됐을까? 아픔의 늪과 달리 내가 상상하는 늪은 그저 죽어간다는 시각적 재현에 불과했나보다. 그 몰이해가 자신조차도 이

해 못하는 지경으로 치닫게 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말은 스스로가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밖에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7세의 늙은 소년의 짧지만 생기 가득한 삶이 내게 전해준 것은 늙음의 대리 체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때 빚어지는 기적 같은 살아있음의 기쁨에 관한 대리 체험이었다. 나는 너무 오만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단언한 지난날의 나는 삶에 너무나도 건방졌다. 그 오만과 건방은 내 삶에서 물기를 제거했고 삶이란 영토는 점점 사막화됐다. 문득 안구건조증이 내면의 내가 외면의 내게 보내는 어떤 신호였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울고 싶다는 신호 말이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나는 오랜 시간 모른 척했다. 인간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슬픔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바보처럼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의 나는 그저 겹늬였을 뿐이다. 진정으로 늙는다는 건, 주름에 누군가의 슬픔을 깊게 새기는 것이다.

김애란의 소설은 어떻게 포장해도 결국 신파다. 17살에 80 먹은 노인의 모습을 한 조숙한 소년 한아름이 바라보는 삶과 세상 이야기가 어찌 안 슬플 수 있을까. 주인공에게 굳이 동일시되지 않더라도, 소년과 그의 가족이 체험하는 슬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이야기 앞에서 독자로서 해야 할 일은 눈물콧물 닦아내는 손수건 한 장 준비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김애란표 신파는 이별과 죽음의 장송가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손수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별을 상징하는 노란 손수건은 필요 없었다. 30대 초반의 젊은 소설가가 쓴 소설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 충만하다. 이별의 슬픔보다 만남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소설이었다.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닦아내지 말고 흐르는 대로 놔둬야만 한다. 그것이 흐르기 위해 흘리는 눈물 본연의 모습이자 의지이다.

젊은 부모를 위해 아름이가 남긴 「두근두근 그 여름」을 읽고, 나는 책의 맨 앞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거실 한편에 앉아 구멍난 겨울 내복을 벌써부터 기우고 있는 늘어버린 내 어머니의 주름을 가만 세어봤다. 30년 후의 내 모습이 거기에 있다. 엄마도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철없는 딸년의 얼굴을 가만 바라본다. 아마도 딸년의 얼굴에서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물었다. “엄마,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날래?” 엄마는 웬 뜬금없는 소리냐며 “내가 왜 네 딸로 태어나, 너는 너를 똑 닮은 딸을 낳아야 해, 그래야 내 맘을 알지”하신다. 그 핀잔에 나 또한 뜬금없이 이렇게 답한다. “응, 그렇게. 꼭” 이제야 소년의 텅빈 노화에 무게 없는 슬픔을 동반하는 상실감이 아닌, 살아있기에 슬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쁨 수밖에 없어 흘리는 눈물이 고인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희망이 아니라 가능한 희망이었음을 확인한데 따른 진짜눈물이었다. 젖어버린, 녹아버린 눈물샘에서 흘러넘치는 눈물 방울에 맺히는 세상이 망막에 채색되어간다. 삶이란 인공 눈물에 의지해 바라보는 게 아니다. 자신의 삶에 타인의 자리를 스케치하고 그곳을 슬픔으로 기쁘게 색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눈물을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다. 아름이처럼 나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은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이다. 그저 내가 할 수 일이라곤, 이 눈물이란 단어가 몸피를 줄여가며 만든 바깥의 넓이를 가늠하면서 닦아내지 않고 흐르는 대로 내비두는 거였다. 두근두근, 살.아.있.음.의 환희는 그렇게 찾아왔다.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익정부시 호원1동 최은실

두근 두근..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은 고사하고 이런 말을 써본 것도 언제였나 싶었다.(아무리 소설이라지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궁금했다. 대체 삶이 얼마나 즐거우면 인생을 놓고 두근두근이라고 말하는지, 막말로 말하자면 그 면상한번 보고 심단 심보였다.

그 즈음 난 하나도 두근 두근하지 않은, 그렇지만 무료할 수도 없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육아. 신날 거 하나 없이 정신도 하나도 없는 삶. 지겹게 힘들지만 티는 하나도 안 나는 반복되는 일상. 제발, 한 일주일만이라도 나 혼자 좀 살아 봤음 좋겠다고 두 녀석 앞에서 푸념 할 때도 있었다. 그 즈음이었다. 눈에 거슬리는 제목의 이 책을 만난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난 오해와 선입견으로 책을 집었다. 얼마나 어떻게 설레는 삶을 사는지 얘기가 좀 들어보겠단 생각.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나도 그 설레는 삶을 사는 방법 좀 배워야겠단 심산. 외국 어디 좋은 데라도 놀러가는 애긴가? 그럼 설레만 하지. 아님 남녀의 뽀한 사랑 애긴가? 그것도 뭐 표현해 내기 나름이니 나쁘지 않겠군. 설마 세상은 참 아름답지 않나요? 라는 어느 미쓰의 애긴 아니겠지.

책도 읽기 전 위임업이 이리도 길 수 밖에 없던 건 내가 책을 읽으려고만 하면 내손을 붙잡고 냉장고 앞에 가서 '냠냠'을 달라고 칭얼대는 둘째 녀석 때문이었다. 내가 네 녀석때문에 소설책 한 권 제대로 못 읽고 산 세월이 얼마며 이게 얼마 만에 내가누리는 문화생활인데 이마저 빼앗으려 하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18개월 된 아들 녀석에게 투덜덜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는 말 안듣거든.” 물론 그때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말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다. 말

안 듣는다, 그게 얼마나 부모를 미치고 펄쩍 뛰게 하는지,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과 고래고래 악을 쓰며 다투는 건, 그들이 처음부터 나쁜 성격을 타고나서 그런 것이 아니란 걸 말이다.

아이를 재우고서야 찾아온 나만의 시간, 누구라도 한번쯤은, 낮의 서툰했던 일과 잘못된 일을 되돌아봄직한 깊은 밤. 내가 이 책을 읽으며 내 아이들에게 얼마나 용서를 구하고, 내일 부턴 잘하겠노라고 얼마나 굳은 다짐을 했는지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열일곱 살 남녀 고등학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아름. 제 부모는 서른 넷. 이제 아름이의 나이는 제 부모가 저를 낳았던 그 나이 열일곱 살. 어떤 수식어 없이도 나이의 언급만으로도 싱그러움을 주는 나이 열일곱에, 한 여자아이와 남자아인 부모가 되어 자녀를 책임지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인 아름이는 죽음을 준비한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했다.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응.”

“뭘 잘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말이야.”

“응.”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굴렸다. 그러곤 너무 차분해서 어딘가 어색하게 들리기까지 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렇다. 모든 부모가 되짚어보면 이런 말을 생각을 최소한 한번쯤은 했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전에는 말이다. 다만 아이가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태어나 자라주면 건강은 당연히 되고, 건강하게만 자라서 뭐에 쓰겠냐,,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어쩌면 부모들의 원초적이고 가장 큰 바람은 자녀의 건강일텐데 말이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을까?’

나는 그 찰나의 햇살이 내게서 감히 떠나가지 않도록 다급하게 차판을 두르렀다.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을 다시 살고 싶어서’

생각해보면 왜 낳아야 하는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를 낳고 사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 말이(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내가 잊고 살았던 어릴적 내 모습, 내가 가치 있다 여기던(현재는 다른 가치 있다 생각되는 것들에 의해 그 가치를 잃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게 사실이다..

책을 읽는 내내 난 내 속에 부끄러움과 감사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감당하며 글을 읽어내야 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능한 어린 부모는 아픈 아이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짜 부모였고, 제 부모보다 아는 것 많고 생각 많은 늙은 아들은 가장 웃긴 아들이 되려는 꿈을 지닌 진짜 아이였다. 난 어린 부모가 아님에도 아이 앞에서 투정 부리고 짜증내는 진짜 부모도 아니었지만, 내 부모 앞에서 어떤 딸이 될까 고민하지도 않은 자녀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 자녀의 건강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신체적 장애를 지닌 내 부모가 건강하게 자라는 나를 보며 가진 것 하나 없이도 왜 그리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인생이 정말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 내가 해놓은 일들에 비해 세상에서 난 너무 작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가하고 느끼는 것, 그것들이 내게 서러움과 불평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허무함을 느낄 때 난 이런 글을 발견했다.

“어?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늙으면 나처럼 되겠구나 하고요.”

“다를 수도 있지.”

“왜요?”

“나이는 몸으로만 먹는 게 아니니까.”

나이를 몸으로만 먹는 게 아니듯 인생이란 게 원인과 결과를 딱 부러지게 내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두근두근 설렘으로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린 숨쉬며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그것이 비록 다시 아이와의 반복되는 전쟁으로 마무리 될지라도) 그것이 바로 “두근두근 내 인생”이겠지.

이 독후감상문으로 응모를 해도 될까 한참을 망설이게 되었다. 마치 아름이를 이용해 시나리오나 구상하려던 (이서하 아닌) 이서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숨을 다해가면서도 한편의 글을 남기려했던 아름이의 맘을 알기에 나도 아름이를 기억해줄 글 하나쯤은 남겨두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됐다.

살을 사랑하는 소년 아름의 이야기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의정부시 가능3동 한일규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 도서관 서가에서 처음으로 이 책의 제목을 봤을 때, ‘히’하고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냈던 기억이 있다. 아직 20년밖에 살아보지 않은 나이지만 적어도 그 20년을 살아오며 인생에 두근거리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궁금하고 설레기에 ‘내 인생’앞에 ‘두근두근’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일까? 문득 호기심이 생긴 나는 서가에 꽂혀있던 책을 쏙 뽑았다. 그리고 멈출 수 없이 문장의 계단들을 눈으로 밟아 내려갔다. 소설의 주인공인 아름은 ‘조로증(早老症)’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불치병에 걸린 소년이다. 그래서 나이는 17세이지만 80세 노인의 얼굴을 가졌다. 문제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도 여든의 노인인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신체의 기능들이 다 노쇠하여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었다. 심장, 구강, 시력, 뼈, 폐 등 아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하루가 다르게 시름시름 앓아갔다. 그러느라 아름은 성장의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도 세 살, 가혹하다 싶을 만큼 어린 나이에.

조로증은 몸이 겪는 고통보다도 심적인 괴로움이 더 큰 병이라고 한다. 하긴, 누군들 제 나이의 얼굴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쭈글쭈글한 노인이 되고 싶겠는가. 하지만 아름인 그런 자신의 상황을 비교적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아버지나 이웃의 장씨 할아버지 등 어른들에게 아빠도 나이 먹어보라는 등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는 등 농담을 건네기까지 한다. 비록 학교라는 곳에 가보진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병마와 싸우며 병실이나 방안에서 보냈던 아름은 글이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읽어댔다. 이유는 단 하나였을 것이다. 무료해서. 그러나 곧 글들에 빠져든 아름에게 책은 더 이상 심심풀이용이 아닌 더없이 좋은 친구이자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문학, 어학, 철학, 생활실용서 등 아름이 읽지 못할 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며 무엇을 배우는지는 모르지만 아름은 스스로에게 줄곧 숙제를 내오며 그것을 풀었다. 하루는 ‘부모님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 느낀 점 적기'라는 숙제를 냈는데 그러한 모습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았던 숙제와 아름이가 스스로에게 준 숙제는 이렇게도 다른 것이구나 싶었고 이 애는 부모님을 꼼짝이도 생각하는 아이라는 생각이었다. 아름은 부모님께 선물하기 위한 '이야기'를 쓴다. 그 이야기는 바로 부모님의 만남을 중심으로 그린 추억의 더듬거림인데 소설의 맨 마지막에야 그 이야기 '두근두근 내 여름'의 전문이 나와 있어서 중간엔 잠깐씩 등장하는 그 이야기의 부분들에 굉장히 궁금해 했던 것이 생각한다.

이 소설은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 아름이 뿐 아니라 아름을 둘러싼 인물들의 사연도 그려져 있어 더욱 재미있었다. 아니,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아름의 이야기도 따뜻한 온기로 피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아름이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아주 작은 생명이었을 때, 엄마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그 두근거림을 함께 느끼며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듯 어렸던 자신의 부모를 그려내는 장면이었다.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고에 들어갔으나 시합 중 부정심판을 한 심판에게 이단 옆차기를 날려 정학 당한 아버지와 아들 부자집에서 귀한 막내딸로 자라 예쁜 얼굴에 고운 노래로 남심을 흔들던 어머니. 어렸던 그들이 인생에 대해 고민할 즈음 이뤄진 서로의 만남과 사랑, 갈등(유일한 갈등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아름의 임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탄생까지 두근두근 거리는 심장으로 모든 것을 지켜봐왔다는 듯 아름은 이야기한다. 아름은 부모님도 그렇지만 자신의 주변을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옆집 장씨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인 치매 노인 큰 장씨 할아버지의 티격태격 말다툼, 구멍가게 아저씨가 드라마에 몰입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어스름한 저녁 어김없이 연속극이 시작하면 쥐죽은 듯 고요해지는 동네의 풍경 등을 아름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다. 물론 친구라고는 책들과 유일한 동네친구 장씨 할아버지뿐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름에게도 친구라 부를 수 있을만한 이가 친구보다는 애뜻한 감정으로 연인보다는 멀찍한 거리로 다가온 적이 있었다.

황반변성 판정을 받은 아름은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입원치료가 급했지만 아름의 집은 14년 동안 댄 병원비에 빠듯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한 부모님의 고뇌를 알고 아름은 '이웃에게 희망을'이라는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심한다. 방송이 나간 이후 아름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그녀, 이서하의 등장이었다. 방송직후 시청자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비롯한 지원과 많은 응원, 격려, 비웃음(?)까지도 받았던 아름에게 가장 큰 떨림을 주었던 건 단연 이서하라는 아이에게서 온 이메일이었다. 처음엔 자꾸만 다가오려 하는 낯설고 신비한 존재가 두려워 겁을 내던 아름도 친구가 생긴 것만 같은 기분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녀와 즐거운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나도 너처럼 머리카락이 없었던 소녀는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신과 대화가 잘 통했다. 병실에서의 생활, 한밤중 자다 깨서 했던 일 등 사소한 것부터 밤새 통증으로 괴로웠던 상태에게 들려주고픈 노래를 선물하는 등의 위로까지 이전부터 자신의 또래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게 해준 것만 같은 서하와의 편지는 아름을 투병 중에도 생기 있게 만들었다.

그러다 그 애의 혈액형은 무엇일까, 신발 사이즈는 몇일까,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일까, 그 애는 어떻게 생겼을까, 입맞춤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하며 자신의 입술을 혀로 때만져보는 등 점차 사람의 감정이 싹트는 아름이었다. 하지만 아름은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아니, 딱 한번 욕심을 냈었지만 사진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물음에 며칠이나 답장이 오지 않아 지옥을 맛봤던 터라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서하와의 대화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둘은 꾸준히 사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편지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을 얻었다. 물론 서하가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17세의 소녀가 아닌 시나리오를 쓰는, 그것도 이번엔 불치병에 걸린 소년과 소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하는 36살의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이 소설의 작가가 참 잔인하다고 느꼈다. 시력을 잃어가는 아름이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서하에게 쓸 편지와 올 편지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을 모습을 상상하니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하라는 아이는 애초에 36살 시나리오 작가의 새로운 스토리에서 탄생한 허구의 인물일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름은 정말로 시력을 잃게 되니 이 어찌 긍정소년 아름에게만 이토록 가혹하고 잔인한 신의 장난, 아니 소설의 전개란 말인가!

여담이지만, 소설 속 '이웃에게 희망을'의 담당PD인 승찬과 36살 시나리오 작가를 보고 느낀 것이 있다. 투철한 직업정신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였다. 승찬은 아름이 방송 후 메일을 주고받게 된 소녀 역시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방송 소재로 쓰기 위해 서하의 메일주소를 알려달라고 한다. 서하가 가상인물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실재하는 소녀였다면 과연 그런 방송출연에 반가워했을 것이냐 말이다. 또 시나리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위해 아름을 이용한 것이냐 다름없다. 그 의도 자체도 불순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는 것이 큰 잘못된 것이다. 과연 내 일만 중요한 것인가, 내 일만 잘 된다면 타인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인가, 내가 만약 내 직업을 갖게 된다면 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는가. 여러 생각을 갖게 해주는 두 인물의 모습이었다.

시력을 잃은 아름에게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다. 그 좋아하던 책도 읽을 수 없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 정리되지 못하고 너저분히 굴러다니는 머릿속 글자들을 바라만보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것.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계속되었다. 기상 식사 진료 식사 치료 취침 또 기상 식사 진료 식사 치료.....아마 무척 괴로웠으리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그러나 죽고 싶다고 홀랑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아름은 하루하루를 외롭게 버티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한다. 아름은 이별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는 그제야 부모님을 위해 써뒀던 이야기를 선물한다. 그리고 조금 뒤 아름의 의식이 아득해지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은 아름이 눈을 감기 직전까지 부모님께서 자신의 소설을 읽으며 눈물 섞인 웃음을 '쿵' 흘리는 것을 듣고 어느 부분이 그렇게 부모님을 웃게 한 것일까 궁금해 했다는 것이다. 마음이 몽클한 와중에 그 부분을 읽고 나는 픽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글을 너무도 사랑하는 이 소년의 마지막이 참 그 자신답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소설을 다 읽고 느끼는 바가 많다. 누구보다도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깊은 마음으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볼 줄 알았던 아름의 모습에 소설을 읽는 매순간,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앞서 나는 아직 20년밖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인생에 두근거리는 순간이 많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말인즉슨, 삶이 즐겁지 않았고 수많은 실패에 대한 실망으로 어찌할 줄을 모르던 날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름은 뭐라 했는가. 실패를 겪어보고 싶다고, 자신은 실패를 겪어볼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다. 실패를 겪을 기회가 없었다면 무슨 기회인들 그 아이에게 주어졌을까 싶다. 멀쩡한 팔다리에 또렷한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에 불안과 원망을 품고 있던 나에 비해, 자신을 둘러싼 많은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아름인 이른 아침 어머니가 밥을 하기 위해 황토 쌀독에서 쌀을 푸곤 독 뚜껑을 닫는 소리, TV오락프로의 연예인의 재치 있는 애드리브, 여러 색이 뒤섞인 저녁 구름, 버스에서 시끄럽게 조잘대는 여자애들, 어머니의 빗에 낀 머리카락,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발톱 깎는 소리, 한낮의 물리치료실에서 라디오를 통해 나른하게 들려오는 복음서가 등을 보고 들을 때 살고 싶어진다고 했다. 이외에도 아름이가 살고 싶은 순간은 셀 수 없이 많은 듯한데, 참 신기했다. 당연하고 특별한 것 없는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삶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니. 결국은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에 두근두근, 자신을 감싸 안은 세상이 품은 많은 것들에 두근두근 반응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아름에게 삶은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살아 있음 자체로도 기쁜 것이었다.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와 심박을 공유하며 자신이 장차 살아가게 될 세상을 바라봤던 아름인 열일곱 짧은 생의 끝자락에서 그 기분 좋은 느낌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된다. 아버지와와의 진한 끌어안음이 그것이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마치 하나로 합쳐진 듯 맞닿은 가슴에서 같이 두근대는 모습은 아름이가 떠나기 전, 아름에게 유독 모질었던 하느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일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 느낌은 아무나 겪어볼 수 없는 것이니까.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알고 때로는 어른들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아이 아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그래도 영락없는 17살의 귀여운 소년의 모습이 아름에게서 많이 보였다는 거다. 서하와의 입맞춤을 상상하며 혼자 입술을 달싹인다든지, 한 때 엄마를 힘들게 했던 옛사람에게 곤란한 질문을 해댄다든지 하는 모습에서 말이다. 아름이가 듣는다면 좋아하지 않을까싶어 웃음이 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막 20살을 넘긴 나는 내가 다 컸다고, 이제 고독함과 삶의 무게를 어느 정도 아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 역시 아름이 못지않은, 어쩌면 아름보다 철이 덜 든 건방진 청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며 이런 내 모습을 자각시켜주고 또 고단한 삶의 그 어디쯤에 당도했다고 한참 힘들어했던 내게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부디 아름이가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노인처럼 굴지 말고 건강히, 여느 도래들처럼 철딱서니 없는 짓도 해보며 날뛰길 바란다. 물론 책도 읽어가면서 말이다.



기 타



달마산과 보길도

기행문

의정부시 장압동 김철중

언제부터인가 기억은 흐리지만 남도의 끝 해남은 항상 따뜻하고 편안한 향수로 그리운 곳이다. 바쁜일상에서 도망치듯 떠나온 달마산 산행과 보길도의 여행, 편안한 휴식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출발한다.

1. 달마스님의 미소

달골재에서 흰눈썹 새벽달과 시작한 산행. 만만하게 생각하고 준비없이 떠난 산행이었는지라 내몰치는 비와 바람 그리고 역센 덩불숲을 헤치며 오르는 산행이 만만치가 않다. 해남의 금강이라 했던가.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는 병풍 두른듯한 기암 바위산의 풍광과는 달리 그 능선을 넘어넘어 오르며 몸으로 느끼는 달마산의 살갗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건조하고 갈라진 바위 조각들이 버려진 무덤인 양. 해풍을 안고 세월을 버티면서 남은 흙먼지 하나 없이 덩불과 바윗 조각들로 가득한 산이 못내 안쓰럽다. 그저 앞서가는 사람의 공무니만 좇아서 지글거리는 바위 조각에 미끄러질까봐, 가시돋힌 깡마른 덩불에 굴하지나 말아야지 하며 한걸음 한걸음 내딛기에 바쁜데, 야트막하게 얹히고 올라온 이들을 조롱하는 듯 능선을 좇아 올라 한 고개 넘었나 싶으면 또다른 봉우리가 앞에 펼쳐져 알미운 마음마저 들게 한다.

드디어 불췌봉(489m)... 남도 쪽빛 바다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눈이 부시다. 북쪽으로는 남도의 명산 두륜산(701m)이 위풍당당하다. 서산대사가 “만세토록 허물어지지 않을 땅”이라며 자신의 가사와 발우를 불안케한 대가람 대둔사를 안고 있는 산이다. 동쪽으로는 그 옛날 바다의 영웅 장보고의 해상왕국 완도가 보인다. 남쪽으로는 바위암릉이 도솔봉(421m)을 지나 멀리 땅끝까지 내달리고, 서쪽 해남반도 해안 너머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가 어스레하다.

서쪽 자락 아래에 불교의 남방전래설을 간직한 미황사가 등지를 틀었다. 불현듯 고찰을 품어안은 포근한 가슴으로 망망대해를 응시하고 있는 넉넉하고 당당한 달마산이 쫓아가게 다가온다. 그리고 보니 지나온 암봉능선을 따라 곳곳에 야생화와 가득하고 과실이 매달린 나무들과 후덕한 동백나무가 달마산과 더불어 있었구나 싶다.

마치 평생을 바다에서 해풍과 싸우며 지켜내온 자신의 가족 앞에서 환하게 웃고있는 한 늙은어부의 까칠하고 깊게 패인 주름에서 맑은 행복을 보는 느낌이다. 눈푸른 달마스님의 미소가 해남의 바다 위로 부서지어 달마산에 와닿는다.

2. 원효와 고산

땅끝에서 한시간가량 바다를 미끄러져 가서 담은 섬, 보길도. 십수년 전, 처음 이 섬에 왔을 때 만났던 고승이 떠오른다. 친구들과 무전여행 중에 보길도 예송리 검은 자갈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땐 하늘과 바다와 자갈밭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밤이 내렸을 때였다.

갑작스레 퍼붓는 비바람에 많던 사람들은 모두 민박으로 철수하고 그 와중에도 우리 일행은 텐트를 자갈밭 위에 치며 거른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물을 구해야 했다. 마침 바다 위에서 조그만 배로 휘젓고 다니는 원주민에게 근처에 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랜턴도 없이 헤매다 찾아낸 웅달샘... 아직도 빗방울이 굵게 내리고 있었지만, 샘에서 떠마신 물은 꿀맛 그 자체였다. 물을 길어 밥을 하고, 숯능에 커피까지... 그 사이 비는 그치고 달무리진 해안에는 우리 일행과 허연 달빛에 반짝이는 젖은 자갈밭. 그리고 고산이 즐겼던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환상적인 밤이었다.

동이 트고 아침을 맞이하는 해안에서 우리 일행은 다시 그 웅달샘을 찾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그저 쓰레기와 거품이 가득한 음푹 패인 웅덩이.

변덕스런 달씨덕에 선명한 무지개도 보는 행운을 안고, 늦은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날 시원한 공기를 가르며 자전거로 보길도를 돌아본다. 동천석실로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다듬어지지 않은 산길이었다. 그 옛날 고산은 자신보다 30여년이나 연하인 부인과 노년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즐겨올라 차를 즐겼다 하니... 산길을 오르면서 턱에 차오르는 숨을 나도모르게 억지로 참는다.

동천석실에 오르지 부용동이 한눈에 들어온다. 과연 이 곳이 섬인가 싶다. 해풍을 막으며 부드럽게 솟아오른 산으로 둘러싸인 섬안의 따뜻한 분지.. 석양을 받아 더욱 평화로와 보이는 이곳.. 부용동정원이다. 인조 14년에 고산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거처할 집을 짓고 그에 딸린 정자와 연못 등을 만든 곳. 1636년은 왕이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한 때로, 항복을 반대하던 윤선도는 벼슬을 버리고 은거를 결심하여 해남 연동(蓮洞)의 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섬에 별서(別墅)를 짓고 거기에 정원을 꾸민 것이다.

정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은편 산기슭에 조성한 거처하는 살림집이 있는 낙서재(樂書齋) 주변. 낙서재는 서실(書室)을 갖춘 살림집으로 복향을 하고 있고, 옆으로 흐르는 작은 시내를 남음계(南吟溪)라 이름 붙이고, 남음계의 양편에 곡수당(曲水堂)과 무민당(無愆堂)의 두 건물을 지었다. 둘러보니 지금은 물이 말라 남음계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고 그 옆에 누군가의 묘자리 덕에 평퍼짐하고 트인 자리가 있어 맞은편 동천석실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여기 산허리의 바위 위에 마련한 동천석실(洞天石室) 주변. 동천석실은 천하의 명산경승으로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을 ‘동천복지(洞天福地)’라고 한 데서 이름지어진 곳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아 전망하며 사색에 젖기 안성맞춤인 곳이다.

그리고 동리 입구의 연희장 세연정(洗然亭) 주변이다. 세연정은 이 곳 부용동에서 가장 곱들

여 꾸민 곳으로, 해변에 바로 인접한 동구(洞口)에 인공으로 물길을 조정하면서 연못들을 만들고 정자와 대(臺)를 지어 경관을 즐기도록 하였다. 동구를 흐르는 내를 돌로 된 보로 막아 만든 곡지에는 큰 바위들을 점점이 노출시켰으며, 방지에는 한 쪽에 네모난 섬을 만들고 그 섬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았다. 방지의 동쪽물가에는 돌로 된 네모진 단 두 개를 나란히 꾸며 놓았는데, 이 곳은 무회가 춤을 추고 악사가 풍악을 울리던 자리이다. 방지 남쪽에는 나지막한 동산이 있는데 세연정은 이 동산 위에 세워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용등정원은 고산이 죽자 곧 황폐하게 되었고, 3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초석이 흩어져 있을 뿐 과거 건물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주변에 인가가 산재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덕에 유적은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어 연못이나 건물 자리들이 완연하다. 이 정원은 건립 연대가 확실하고 유적이 온전히 남아 있는 데다 조선시대의 정원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큰 규모의 별서정원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 보길도 사람들에게 고산은 거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고산은 산 곳곳에 정자를 만들어 놓고 준마를 타고 다녔으며, 낙서재 건너편 산에 석빙고를 만들었고, 바위를 깎아 연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었으며, 인공산을 만들었다고 한다. 윤선도가 이 곳에 들어올 때에 식솔이 1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 그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든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의 시 중엔 “보리밥 꽃나물에 알마초 먹은 후에 ~” 라는 시조가 있다. 고산이 시의 내용처럼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보다는 선비라면 으레 그러해야 한다는 심정에서 읊조린 것이었을 게다.

북쪽 한양을 바라보며 지은 살림집에 거처하며 오매불망 다시금 임금이 자신을 부르지는 않을까 기다리며 혹여나 중앙관리들이 이 곳을 방문할 때면 조용한 섬 보길도 입구 세연정

에서 떠들썩한 연회를 베풀고 떠나는 관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항구에서 청별의 아쉬움을 달랬던 고산.

폭풍주의보로 배가 묶여 여기 청별항에 하루 더 묶기로 하였다. 맑은편 노화도의 변화한 불빛이 거세지는 바람에 일렁이는 파랑 위로 잠잠이 젖어든다. 모자를 눌러쓰고 하늘을 바라보니 그 옛날에도 거기 있었을 법한 제법 선명한 반짝임이 하나, 둘, 셋.

땅막의 썩은 물을 마시고 법이 내 안에 있으니 따로이 구하러 갈 이유가 없다하여 유학길을 접고 이 땅의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일생을 발로 뛰며 몸바친 한 고승과 대의를 핑계삼아 아름다운 남도의 섬에 들어앉아 그저 기회가 오기를 바라만 보며 여생을 안위하며 선비를 자처했던 한 거부.

두 사람의 인생이 청별항의 세찬 밤바람과함께 가슴으로 스미어 든다. 내일은 이 바람이 몇어들어 배가 뜰 수 있어야 할 터인데.

3. 땅끝에 서서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어 배가 떴다. 찬 기운이 가득한 바다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갑작스레 폭풍과 함께 배를 삼킬듯한 파도가 부서지고 우리 일행이 보길도를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배웅하는 듯하다.

땅 끝에 서서 더는 갈 곳 없는 땅 끝에 서서 돌아갈 수 없는 땅 끝에 서서 돌아갈 수 없는 막바지 새 되어서 날거나 고기 되어 숨거나 바람이거나, 구름이거나, 귀신이거나 간에 변하지 않고는 도리없는 땅 끝에 홀로 서서 부르는 불러 내 속에서 차츰 크게 열리어 저 바다만큼 저 하늘만큼 열리다. 이내 작은 한 덩이 검은 돌에 빛나는 한 오리 햇빛 애린 나 <김지하, 애린 전문>

이 시를 읽고 무작정 땅끝으로 달려왔던 기억이 아련하다. 백두산에서 치달려온 산줄기가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남해 바다에 발을 담근 채 가쁜 숨을 내뿜는 곳, 이곳은 땅의 끝이며 바다의 시작이고, 바다의 끝이며 땅의 시작이다. 생성과 소멸의 그 한가운데에서 맞는 감회란 어떤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 유적도 줄 수 없는 감동 그 자체다.

수목처럼 스며 가는 정 한 가슴 벅찬 마음 먼 발치로 백두에서 토말까지 손을 흔들게 십수년 지켜온 땅끝에서 수만년 지켜갈 땅끝에 서서 꽃밭에 바람일 듯 손을 흔들게 마음에 묻힌 생각 하늘에 바람에 띄워 보내게 <손광은, 토말탐에 새겨진 시>

토말가는 길 한켠 버려진 초소에 섰다. 남도 쪽빛 바다 위로 부서지는 햇살에 눈이 시리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맘을 떨치고자 이 곳을 찾았던 흔적이 눈에 맺힌다. '사람이란 빛을 밝히는 햇불이리지. 모두모두 사람이 되어라' 어찌면 자신에게 읊조리며 끄적인 글이겠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 아쉬운 마음으로 차창 밖을 바라본다. 이곳저곳 난잡하게 개발되어지는 토말 선착장의 풍경이 눈에 들어와 내 마음을 불편하고 슬프게 한다. 언젠가 지극한 마음으로 이 곳 땅끝을 찾은 이에게 해가 되지나 않았으면.

이국적인 섬 제주도에 다녀와서

기행문

광동고 2 박소정

2013년 10월 15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긴 시간동안 잘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비가 오는 날이라 날씨가 어둑어둑해서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기대로 버스에 올랐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움직이기 힘들었다. 이제 겨우 집에서 나온 지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피곤해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역시 여자, 바람, 돌이 많다는 말이 실감나게 느껴졌다.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 처음으로 들린 용두암에서는 사진을 찍는 내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눈을 온전히 뜨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웠다. 바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주도의 자랑거리인 용두암은 자연이 만든 작품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용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위엄이 있었다. 날씨가 맑으면 더 멋있었겠지만 이렇게 멀리 여행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다음 제주 자연사 박물관을 갔는데 제주도의 풍습과 서식 동물 등등 자연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여서 그런지 평소 박물관은 지루하고 잘 가지 않는데 이 날 만큼은 즐거웠다.

저녁이 되어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밥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리조트를 구경했는데 들어오면서는 보지 못한 풍경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왔다. 의정부에서 볼 수 없는 야자수들이 많아 우리나라 같지 않고 열대 지방인 나라에 온 것 같았다. 특히 울레 길을 걸었는데 길 위에 불빛들이 수놓아져 있어 마치 내가 왕실의 공주가 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은 어제와 다르게 날씨가 상쾌하고 맑았다. 그래서 기분 좋게 아침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산굼부리로 이동했다. 산굼부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고 웃겼다. '산이 굽은 곳인가? 산이 굽은 부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분화구라고 산굼부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분화구라고 하니 용암이 흐르고 삭막한 배경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막상 가보니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정말 내 눈앞에서 보는 풍경이지만 거짓말 같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었다. 역새풀이 온 세상을 덮어 놓은 것 같았고 하늘은 푸르려 흰색과 푸른색이 내 마음까지 깨끗해지게 만들었다. 좀 더 올라가니 앙증맞은 그네도 있고 올라갈 때도 멋있었

지만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또 색달랐다.

산굼부리를 내려와 다음 예정지는 승마장이었다. 말을 타러 간다고 들은 순간부터 차장 밖으로 지나는 장면들이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밖에 안 보였다. 승마장에 도착을 하니 말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고, 동물원에서는 구경만 했는데 만질 수도 있으니 신기했다. 말과 같이 사진 찍는데 가만히 있어 온순할 줄 알았는데 앞에서 친구들이 타는 말들을 보니 엄청 활동적이었다. 말을 타기 전에 '내 몸무게를 말이 감당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타고나니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아 재미있었고 말이 마지막에는 빠르게 달려 스치는 바람이 기분이 좋았다.

승마를 타고나서 간곳은 섭지코지라는 곳이었다. 섭지코지는 바다를 끼고 있는 넓은 들판이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초록색 잔디밖에 보이지 않았다. 초록색과 파란색을 보고 있으니 자연이란 이런 것이구나, 몸으로 느껴졌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바다와 초원이 한눈에 보여 이 장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진으로 다 담고 싶었지만 사진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역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었다. 다음으로는 성산일출봉을 갔다. 성산일출봉에 가니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가서 발을 담갔다. 발을 담그고 바닷가 앞에 작은 웅덩이가 여러 개 있어 손을 담그는데 소라, 게 등등 작은 것들이 꿈틀꿈틀 움직여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손에다 올려놔더니 갑자기 움직여서 놀라기도 했다. 친구들과 함께 바다 생물들을 구경하니 시간이 금방 가서 좀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가야했다. 이렇게 둘째 날은 멋진 곳을 세 곳이나 갔다 와서 숙소에 돌아와서도 사진 찍은 것을 구경하느라 힘든지도 몰랐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지 새삼 알게 되었고, 항상 TV, 핸드폰만 보고 살다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니 똑같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활력소같이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충전해 준 하루였다.

셋째날은 다음날 집에 간다는 아쉬움과 길 줄 알았는데 짧은 시간을 원망하며 천치연 폭포로 향했다. 폭포라고해서 높은 산을 올라야 할 줄 알았는데 평지를 조금만 걸으니 금방 폭

포가 나왔다. 비록 낮은 곳에 위치했지만 선녀가 내려올 만한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폭포 주위에는 물고기들도 있고 오리들도 있어 새끼 오리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다음으로 주상절리를 갔는데 '1학기 때 지구과학에서 배운 주상절리를 실제로 보러 간다니, 사진으로만 봤는데 직접 보는 느낌은 어떨까?' 설렌 마음으로 도착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볼 수는 없었지만 전망대에 가서 보니 정말 검은 육각형의 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이 별집을 연상케 했는데 너무 신기했다. 어떻게 파도가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돌들을 보면서 다 같이 감탄을 자아냈다. 다음 예정지는 용머리 해안이었다. 바다라고 해서 해변을 기대했지만 오산이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바닷가였는데 암벽 등반 하는 느낌도 이런 느낌일 것 같다. 바닷가의 돌들이 모두 거칠고 파도도 썰다. 걸어 다니기 힘들어 바닷만 보고 걷게 되어서 주변을 많이 둘러보진 못했지만 가끔 가다가 줄무늬가 있는 절벽들, 맑은 웅덩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며 즐겁게 갔다. 거친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멋진 볼거리들을 선사해주고 조개, 물고기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포근한 곳이기도 한 것 같다. 다음으로는 민거나 말거나 박물관을 갔는데 장난감 같은 외모를 가진 건물이어서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았다. 박물관을 구경하는데 다른 박물관들은 지식을 얻거나 문화재를 보는 등 지루한 느낌이 든다면 이번에 방문한 곳의 느낌은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안에 들어온 것 같은 유머러스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호기심의 세계로 인도했다. 기이하고 신기한 사람의 얘기들도 많고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코로 뱀을 넣어 입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의 영상이었다. 눈물이 나는데도 곳곳이 하는 장면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상에는 별이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다. 민거나 말거나 박물관을 끝으로 오늘 하루도 끝이 났다. 다음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관광지를 한 두 개 밖에 못가서 아쉬웠다.

드디어 마지막 날 처음으로 한림공원에 갔다. 식물원인지 동물원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원이었다. 선인장 열대 식물들 등등을 보니 괜히 남쪽지방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과 의정부에서는 구경도 못할 식물들이 많이 있었다. 한림공원을 돌아다니다가 분재원에 들어갔는데 큰 나무들을 어떻게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고 내 키보다 다 작으니 너무 귀여웠다. 다음으로는 도깨비 도로에 갔는데 피곤해서 자느라 보질 못했다. 친구들 말로는 오르막길에서 차 시동을 끄고 가만히 놔두니 차가 스스로 올라갔다고 했다. 직접 보고 싶었는데 그놈의 잠 때문에 구경을 못한 것이 아쉬웠다. 도깨비 도로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끝이 났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향하였다. 많이 친하지 않던 친구들과도 대화도 하며 친해지고 내 기억 속에 제주도 장면 하나하나 새겨 마음은 가볍게 추억은 풍부하게 얻어간 좋은 날들이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3박 4일 동안 우리나라지만 보지 못한 색다른 광경들을 구경하고 첫날 빼고 나머지 날들은 날씨가 맑아 선생님이 “너네는 참 복 받은 거다. 날씨도 좋고 가을 제주도가 구경하면 정말 맛있는 시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맑은 날씨와 사고 하나 없이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혁명기 중국을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

영화 「인생」 평론

의정부시 호원2동 이경훈

장예모 감독의 영화를 바라보는 일은 항상 쉽지 않다. 그는 항상 사회를 문제적 시각으로 표현하려는 생각으로 가득한 듯하다. 20세기와 21세기의 장예모 작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무자비한 독재 군주에 대한 변명으로 가득한 21세기의 작품들에 비하면 20세기의 장예모는 대단히 따뜻한 휴머니즘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은 20세기 작품군의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하겠다. ‘인생’은 모택동이 장개석을 물리치고 중국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당시 살아가던 한 가정과 사회를 표현한 영화다. 영화는 시종일관 이 가정에 대한 시점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사에 영화는 지루해질 틈이 없다.

공산주의는 뭐고 자본주의는 뭔가.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먹을 식량과 따뜻한 잠자리 뿐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항상 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할 때는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 반대로 서민들 역시 어느 이데올로기든 간에 빵과 집을 줄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그런데 서민들에게 이토록 영향을 주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은 생뚱맞게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서민들은 그저 지식인들에게 당하는 입장일 뿐이다. 주인공 부귀는 원래 서민이 아니라 서민이 된 사람이다. 영화의 초반부는 부귀가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는 도박판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부모와 처자식마저 죽거나 도망쳐 외톨이가 되어버린다. 도박을 하는 자체는 영화 내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부귀가 ‘부르주아’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바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곧이어 혁명이 일어날 중국에서 부귀의 계층 변화는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원래 서민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매우 매력을 느낄 것이다. 당연히 부자들을 모두 없애고 인민들에게 공평한 일거리와 의식주를 마련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나 부유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된 부귀에게 공산주의는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하는 의문점을 남기는 것이 영화 초반부의 역할이며, 중국의 체제 변화에 따라 부귀의 삶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가 바로 영화의 포인트라 하겠다.

전쟁과 혁명은 진정 불가분의 관계인가? 전쟁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변화라면 그 사건의 가치 판단 기준은 전쟁에 있는가, 이데올로기에 있는가. 중국의 혁명은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시켰고 또 바꾸어놓았다. 부귀는 혼자서 노모를 모시고 힘겹게 살다가, 도박을 끊었다는 말에 돌아온 아내와 재회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자고 결심한다. 하지만 생활은 너무나 궁핍하여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 본래 그림자극에 소질이 있던 부귀는 떠돌이 광대가 되어 그림자극 공연을 하다가, 엮힌 데 엮힌 격으로 전쟁이 일어나 부귀는 전선에 투입되고 가족과는 연락조차 못한 채 하루하루 생존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장개석 진영에 있던 부귀는 살기 위해 모택동 군대에 투항하고, 군대 내에서 그림자극을 공연하면서 연명해간다.

전쟁이 끝나고 부귀가 돌아온 마을은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있었다. 영화 중반부가 보여주는 1950년대의 모습은 공산주의가 바람직하게 굴러갈 때 일어나는 극도의 지상낙원을 보여준다.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도 저만하면 정말 공산주의는 행복한 체제라고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모두가 노동을 하고 모두가 공평하고 배부르게 밥을 먹으며 매일 밤 작업장에서 웃고 떠들며 일할 수 있는 노동자와 민민의 천국. 그것이 바로 중반부 영화에서 보여주는 첫 모습이다. 부귀와 가족들은 공산주의의 신봉자가 된다. “닭이 자라면 거위가 되고, 거위가 양이 되고, 양이 소가 되고 마지막에는 공산당이 된다.” 부귀가 아들 유경에게 가르치는 사상은 사회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살필 때 마지막에는 공산주의에 다다른다는 결론으로 오히려 부르주아였던 과거를 청산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지금의 생활에 너무나 만족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부귀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는 진정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반동분자를 용서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이탈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더 컸다. 공산주의에서는 누구도 유별나서는 안 된다. 모두가 철저히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부귀는 상부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며, 피곤해하는 유경을 억지로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한 유경을 혼내기도 한다. 다만 그는 혁명 이전과 이후를 모두 경험하였고 혁명의 과정에 참여했던 산증인이기 때문에 뻗속까지 100% 공산주의의 일원이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경과 봉화는 달랐다. 유경은 “공산주의를 위해” 철을 모은다는 말에 아버지가 아끼는 그림자극 상자를 부수려고 하고, 봉화는 남편과 함께 집안에 모택동의 초상을 정성스럽게 그린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산주의 사회에서 났고 자랐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함께 행복해했다. 이들은 진정한 혁명의 아이들이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계층인 것이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만능이 아님은 곧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유경은 상부 계급인 위원장의 실수로 죽고, 봉화는 반동분자로 의사들이 내몰린 산부인과에서 미숙한 간호사들의 실수로 죽는다. 공산주의가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은 그 아름다움을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꾸어놓는다. 그 약점이란 바로 지나치게 체제의 유지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반동분자로 몰릴까봐 아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삶. 행복해하던 마을 사람들의 안에는 누구나 언제 공동체에서 멀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한 칸에 자리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봉화와 유경의 연속된 죽음은 혁명을 신봉하던 혁명의 아이들의 죽음이며 결국 공산주의의 죽음이다.

그리고 봉화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만두. 장수하여 좋은 세상을 보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한다. 부귀와 아내는 더 이상 지금의 세상을 낙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부귀와 만두가 집으로 오는 길에, 예전 봉화가 그렸던 모택동의 초상이 하얗게 바랜 배경은

매우 시사적이다. 공산주의가 저물어가고 있다. 혁명의 아이들은 죽고, 공산주의 간부였던 춘생의 삶은 비참해졌다. 부귀는 새롭게 다음 세대를 키우려 한다, 만두는 새롭게 병아리를 샀다. 다시 병아리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것이다. 병아리가 거위가 되고, 거위가 양이 되고 양이 소가 된다. 하지만 그것이 공산주의의 극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부귀는 그의 인생에서 항상 환경에 끌려 살아왔다. 만두를 비롯한 새로운 세대에게 부귀는, 아니 장예모 감독은 무분별한 가치관을 명령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법을 알고 깨어있으라는 지식인으로서의 경고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을까.

가슴으로 토해 내는 시

박경리 「옛날의 그 집」 시 비평

의정부시 신곡2동 남영태

2008년 5월5일 박경리 선생님은 길고 고달픈 인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셨다. 폐암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힘든 삶을 마감하셨다. 그 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가 바로 “옛날의 그 집”이다. 이 작품은 읽을수록 작가의 삶과 일치함을 느낄 수 있다. 작가의 삶과 연관시켜 이 시를 감상하여 보자.

1연에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이 부분을 읽을 때, 6·25전쟁 당시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작가의 고통스런 삶이 떠올랐다. 비자루 병이 나무를 쓰러뜨리듯 전쟁이라는 참상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 넘어서, 선생은 비통한 아픔을 안고 평생을 홀로 살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하고야 말았다.

2연에 ‘빈 창고 같은 웅덩이처럼 큰 집, 나는 혼자 살았다’ 이 구절에서는 화자의 고독함과 쓸쓸함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로보아 선생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평생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고달픈 삶을 만나면 누구든지 울고 싶을 것이다. 여기 화자가 소쩍새처럼, 꿩처럼, 땀샘처럼 목이 터져라 하고 운 것처럼 선생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으로 인해 물긴 했지만 절망 속에 빠져서 평생을 허송세월로 보내지는 않았었다. 아래 연을 통해 그런 사실이 더욱 확실히 입증된다.

3연에 보면 선생님의 하신 일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이 구절을 살펴보면 선생의 하신 일을 떠올려 보았다. 선생은 <토지문학관>을 건립하시어 후배들이 찾아오면 유기농 채소를 뜯어 대접하며 힘을 북돋우어 주시곤 하셨다. 이것은 선생님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뿐 아니라 4연에 보면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주었고’라는 구절이 보

인다. 또 하나의 고난 극복 방법으로 글쓰기를 택하였다.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신다. “제가 이런 시련이 없었으면 어떻게 ‘토지’라는 대작을 쓸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런 시련 덕분에 글을 쓸 수 있었으니, 이 시련이 나에게서 큰 힘이 되지요.”

시련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생의 태도는 그 분의 명성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만한 인품을 지녔기에 얻은 명성이구나.’ 명예만 쫓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명예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4연의 마지막 부분에 사마천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다. 사마천이 무엇을 생각했던 말인가? 사마천에 대해 알아보았다.

‘BC 108년 아버지에 이어 태사령에 임명된 사마천은 먼저 역법개정에 종사하여 BC 104년 태초령(太初曆)을 완성하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통사(通史) 편찬에 착수하였다. BC 99년 한(漢)나라 장군 이릉(李陵)이 흉노와 싸우다가 패하여 포로가 된 사건이 생겼다. 이릉의 처분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일가 멸족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마천 혼자만 이릉의 충절과 용감함을 칭찬하고 변호했으므로 무제의 격분을 사서 궁형(宮刑)에 처해졌다. 몇 년 후 출옥하여 중서령(中書令) 직책으로 복귀하였다. 그 뒤 정신적 타격에도 꺾이지 않고 용기를 내어 통사 저작에 전력을 기울여 마침내 《사기(史記)》 130권을 완성하였다.’

사마천이 궁형이라는 남성의 상징물을 제거하면서까지도 살려고 한 것은 ‘사기’ 저술을 마치 고자 함이었다는 내용을 알고 나서 박경리 선생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았다. 박경리 선생님 또한 시련이 있었기에 ‘토지’를 쓸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시지만 좀 달리 물어보면 ‘토지’를 쓰기 위해 시련을 이겨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두 분 모두 시련 속에서 대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시련이 우리 인생에 정금같이 큰 가치를 심어준다는 말과도 같을 것이다. 성경에서도 “시련은 인내를 남고 인내는 소망을 남느니라.”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사마천을 떠올렸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6연에 더욱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다. 이 대목은 가장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오래 남는다.

‘모진 세월 가고
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힘들고 고달픈 삶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천상병의 ‘귀천’에 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님도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으로 검거되어 옥고를 치르는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전기 고문을 당하여 몸과 마음이 망가진 상태에서, ‘귀천’을 발표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이로 인해 정신병까지 얻어 폐인이 되다시피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다.

이 분들은 이다지 힘든 삶을 살았으면서, 어떻게 이런 시구를 가슴으로부터 토해 낼 수 있었을까? ‘늙어서 편안하다, 세상살이 소풍, 너무 아름다웠다.’ 평범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

려운 작가들의 사상이 들어 있다. 이것을 어찌 직업 의식이라고 보겠는가. 이 분들이 어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를 지녔다고 하겠는가? 이러한 고인들의 심오한 경지는 장인 정신의 구현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일삼는 현대인들, 아니 우리들이 지표로 삼아야 할 덕목은 아닐런지.....

무제

송헌고 2 정혜민

의식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눈을 뜨지 않고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누워있는지 느꼈다. 오랜만에 고약한 잠버릇이 기어 나왔는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없고 책상 밑에 구겨 들어와 있었다. 오랜만에 피곤한 일 없이 폭 자나했는데 봉인해놓았던 잠버릇도 기어 나 오고 심지어 꿈자리도 안 좋았다. 그만큼 현실의 내가 많이 피곤한 상태란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눈을 떠 시간을 확인하고 더 잘 수 있으면 자자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눈을 떴다.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창문을 다 가려버린 터라 햇빛은 들어오지 않았다. 옆에 놓인 핸드폰으로 손을 옮겼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켜지지 않아 의아해하던 참에 달콤한 수면시간을 방해받지 않으려 전원을 꺼버린 사실을 떠올렸다. 핸드폰을 도로 낚두고 벽에 걸린 시계를 찾아 고개를 돌렸다. 6시 37분 쯤. 일어나기도, 그렇다고 다시 잠들기도 애매하고 짜증나는 시간이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이미 뜨고 있을지도 모른다. 산등성이 위로 아주 작게, 조금만 솟아 올라와있을 것이다. 아직 자신을 삼켜버린 산에게서 달아나지 못한 것처럼. 나는 모처럼 일찍 일어나보자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향했다.

예전의 집은 2층이라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주위 건물에 막혀 바깥 풍경을 보기 힘들었다. 그에 비해 16층이라는 이 새 집은 참 좋았다. 바깥도 주차장과 도로를 빼면 앞이 확 트인 단지 외곽의 아파트였다.

해가 떴을 거란 예상과 달리 아직 어스름하고 산이, 나무가, 자동차들이 까맣게 보였다. 하지만 저 멀리 짙은 어둠 아래 물이 흘러내리듯 남색 빛이 보였다. 마치 수채화처럼 남색 빛은 점차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그리고 그 아래 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산등성이는 하얀 빛이 덮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한 순간밖에 바라볼 수 없는 저 풍경을 바라보며 따스한 햇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웠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란 관문을 지나 아침이 되는 이 시간의 길목이 너무 황홀해 그 풍경 속으로 녹아들고 싶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면서 흰 빛이 점점 더 올라온다. 저 흰 빛이 있기 전에 산과 하늘의 경계는 필시 주홍빛이었을 것이다. 그 빛을 놓친 게 아쉽기는 하나 지금 눈앞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새벽이다. 해 뜰 녀

이자 달 질 녘인. 밤과 낮이 서로의 자리를 뒤바꿀 환상적일 때.

이 때까지 왜 내가 이런 진풍경을 놓쳤을까. 단 한 번도 새벽을 지금까지 바라본 적이 없었다.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겠지. 인문계 고졸이라는 학업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힘들게 취직해 악착같이 버텨온 지난 시간에 지칠 대로 지친 몸이, 내 마음이 새벽을 볼 시간에 잠이나 좀 더 자자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기 싫다는 그 게으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다는 듯이 그토록 바라보기를 바라왔던 이 시간의 길목, 단 한 순간을 매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안타까웠다. 해는 매일 뜬다. 매일 뜨지만 하루하루 뜨는 태양은 다르다. 너무 짙은 어둠만이 깔린 밤보다는, 푸른 빛이 도는 고요한 새벽에 홀로 둥이 뜨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 그 분위기를 동경해왔다. 그렇게 입으로만 좋다, 좋아라 하던 새벽을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역시 내 게으름은 어디 가지 않는다. 도망가지도,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새벽은 내 게으름을 일깨워준다. 좋아해 하면 할수록 내 게으름이 더 와 닿는다. 좀 더 부지런해져볼까. 엄마가 내게 늘 잔소리했듯이 떠오르는 태양을 본 김에 희망차게 다짐을 해볼까. 무슨 다짐을 할까. 이번 여름, 순식간에 떨어진 별뿔별을 보며 소원을 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놓치기는 싫었다. 매일 일찍 일어나 푸른 안개가 가득 낀 이 하늘을 바라볼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쉽게 말하자면 결국 일찍 일어나기와도 같은 다짐이니까, 홀로 실실 웃음을 흘렸다. 결국은 이것뿐인가. 이거라도 어디야. 밝은 창밖을 뒤로하고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출근이나 하자.

선생님께

녹말초 4 이예은

사랑하는 글쓰기 선생님께,

벌써 가을이 왔네요.

선생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봄이었는데 그 때는 제가 연변에서 와서 한글도 제대로 못해서 받침도 못 쓰고 글도 못 읽어서 힘드셨죠?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께서도 잘 가르쳐 주셨지요.

지금은 한글도 척척 수학도 척척 정말 잘한다고 학교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지역아동센터에서 열심히 친구들과 공부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특히 글짓기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도 참 고맙습니다.

여 백



2013 의정부시
올해의 책 독후감상문 공모 수상작



아이러니한 인생의 경계들을 허물다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 최우수작

의정부시 의정부동 임지연

『두근두근 내 인생』에는 삶의 아이러니가 있다. 조로증 때문에 겉모습은 노인이지만 속은 열일곱 살인 주인공과 열일곱에 부모가 되면서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그의 어린 부모의 인생이 아이러니다. 그들이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더 아이러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조로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리지 않고 어린 부모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러니하다. 책 속에는 어른과 아이의 경계, 부모와 자식의 경계, 늙음과 젊음의 경계, 아픔과 건강함의 경계, 죽음과 삶의 경계, 현실과 꿈의 경계가 존재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구분지어 놓은 이 경계들 때문에 이야기 속 인생들이 아이러니해진다. 하지만 이 경계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우리가 진짜로 봐야하는 것들을 보게 해준다. 주인공인 아름과 그 부모에게서, 이웃집 장씨 할아버지에게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서하에게서도. 『두근두근 내 인생』은 이런 단려있던 경계의 문을 조금씩 열어서 그 속으로 내 자신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듯한 느낌이다.

주인공 아름은 자신의 병이 만들어 놓은 늙음과 젊음의 경계에 갇혀있지만 그는 지혜롭게 경계를 허물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며 팔십의 몸을 가졌더라도 아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를 수 있는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죽음을 앞둔 늙은 노인의 모습이 아닌 지금 막 인생을 시작하는 열일곱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시련에 맞선다. 젊지만 늙은 혹은 늙었지만 젊은 조로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 늙음과 젊음의 벽을 허물고 오직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한다.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 아름은 부모의 열일곱의 시절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는 것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된다. 아름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 빨리 달려온 자신의 젊은 시절을 꿈꾼다. 보통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할까에 대한 꿈을 꾸지만 아름은 열일곱의 나이를 꿈꾼다. 열일곱이라는 시간

에 서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온전히 느끼고 즐길 수 없어 아람에게 열일곱은 꿈과 같다. 이런 아람에게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가 온전하게 살지 못한 열일곱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한 인격체의 완성점이 된다. 사실 아람의 부모도 아람과 비슷하다. 열일곱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경계에서 혼란을 겪게 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자식과 부모의 경계에서 보면 열일곱 살이었던 그들의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철이 없고 어려도, 아무리 철이 들고 늙어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이다. 아람의 부모는 아픔을 겪으면서 좋은 부모로 잘 성장했고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픈 자식을 돌보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고 진정한 부모, 어른이 되어야 하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다. 자신보다 더 늙어가는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고통은 그들 자신이 늙는 고통보다 몇 배가 될 것이고 이것을 겪은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다. 현재의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청춘 시절을 바쳤지만 그들은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다. 아람의 부모는 잃어버린 청춘 때문에 조금은 미완성이었던 인생을 아람을 통해 완성하게 된다. 아픈 자식이 성장하여 꿈을 이루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순간이 진정한 부모로의 완성점이다. 이런 경계들을 허물기 위한 노력은 어린 부모와 늙은 자식이라는 특이한 관계를 그냥 조금 특별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로 바꿔준다. 이야기 초반의 어린 부모와 늙은 자식의 만남이라는 아이러니가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에 '어린'과 '늙은'의 타이틀을 뺀 그냥 보통 부모와 자식 간으로 남는 것이다. 꿈을 가지고 사는 자식과 그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부모로 말이다. 어림과 늙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 서로를 아프도록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만이 남아있다. 비로소 세상이 만든 경계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며 아이러니한 인생을 잘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된다.

누구에게나 수많은 인생의 경계가 존재한다. 인생을 얹히고설리게 해 아이러니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몫이라면 그 인생의 경계를 허물어 설레는 삶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성장한다. 누구도 부모와 자식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얹혀있는 실타래 같은 경계들이 더 꼬여버릴 수도, 자연스레 풀릴 수도 있다. 아름의 인생은 다른 인생들보다 조금 특별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다른 인생들보다 더 꼬여있었다. 그것을 푸는 건 아름의 몫이었다. 아름은 자신의 아이러니한 인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었다.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아름의 부모는 자식의 병이 힘들지만 오히려 아름을 위해 슬퍼할 수 있다는 것, 그 슬픔의 대상이 아름이라는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한다. 아름은 자신이 늙었다는 것도,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도 그냥 인정한다. 자신과 이메일을 주고받던 서하라는 여자아이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결국 아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담담하게 서하를 받아들이는 아름의 모습은 그가 그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자신의 삶처럼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을 아름은 그냥 받아들이되 자신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향한 불만과 저주로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는다.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죽음을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가고 있고 언제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르지만 아름은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아프기 때문에, 몸이 늙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일곱의 아름의 인생도, 늙어가는 여든의 아름의 인생도 언제나 두근두근해 보이며 죽어서도 그의 인생은 그가 쓴 소설을 통해서 여전히 두근두근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다. 조로증이라는 병과 어린 부모의 존재가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아름이 그의 인생에 임

하는 태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특별해졌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어나면서부터 꼬여있을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하게 꼬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꼬이지 않는 인생은 없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꼬인 것을 지혜롭게 잘 푸는 것이다. 아름이처럼, 또 그의 부모처럼. 그렇게만 한다면 책 속 그들의 인생처럼 우리의 아이러니한 인생도 그 경계를 넘어 두근두근할 것이다.

두근두근 우리 학교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우수작

의정부시 호원동 최지연

이 소설과 나는 절묘한 타이밍에 만났다. 그 만남은 갓 엄마가 된 33살의 내가 34살 작가가 묘사한 34살 부모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작되었다. 엄마로서 아직 미숙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 나에게는 작가가 벌써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하여 통찰하여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대단하고 궁금했다. 그것도 평범한 부모에서 벗어나 미성년에 임신을 하였고 조로증에 걸린 사춘기 아들 아픔이름 둔 부모의 심정까지 감정이입하여 그려내었다니 작가의 어른스러움에 탄복하며 글을 읽었다. 처음에 이 소설은 요즘 내가 줄줄이 읽던 육아서의 연장처럼 느껴졌다. 부모로서의 소양과 마음가짐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지럽게 떠오른 것은 내 자식, 내 부모가 아니라 교직 생활 중 보았던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었고 그들과 나의 관계였다. 내가 수많은 부모 자식들을 보아오며 그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더욱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 방법이 뜻밖에 이 소설 안에 있었다.

작가는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이해하여 내 그릇이 더 커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여든 살 몸을 가진 17살 아름이는 마음을 키워 몸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많은 책을 읽는다. 그러나 청작 아름이의 마음이 비약적으로 자란 시기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아름이의 마음이 그만큼 더 커졌을 때였다. 아름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갖기 전 시기에 대하여 소설을 쓴다. 책의 앞 장에 등장한 그 소설은 작가와, 또 아름이 부모와 같은 또래인 내가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리 세대의 청소년 문화가 곳곳에 숨어있었고 초보 부모의 설렘과 어설피름이 친숙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나에게 딱 들어맞는 그 공감이 살짝 불편했다. 사회적 통념에 반해 임신을 한 아름이 엄마가 무난하게 엄마가 된 나처럼 임신을 반기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순진하다 못해 동화 같기까지 한 그 소설은 아름이가 태중의 자신을 떼어버리려고 한 엄마의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폐기

처분된다. 반면 에필로그로 재등장하는 아람이의 소설은 탈바꿈되어 낮 뜨거워질 성애까지도 여유로운 위트를 섞어 '하느님도 부러워할 만한 인간 사이의 몸짓들'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었다.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 성욕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아람이가 그만큼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썼다는 것이 드러나는 어른스러운 소설이었다. 아람이는 자기 모르게 동생을 임신하여 엽산을 챙겨먹는 부모를 포용할 정도로 성장한다.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던 PD 아저씨를 따지듯 떠보다가 이내 물러선 것도 이해할만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해서였을 것이다. 심지어 방송에 출연한 자신을 이용하여 소설 소재를 찾으려한 남성도 용서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을 줄 알았다. 아람이만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다. 부적절한 행동들을 참치 못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던 엄마와 아빠도 아람이를 책임지면서는 고된 노동들을 감내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자선 방송까지 출연한다. 아람이 동생을 임신해서는 엽산을 챙겨먹으며 생명을 위할 줄도 안다. 이서하라는 여학생을 빙자하여 아람이를 이용하던 소설가도 아람이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람이를 찾아온다. 처음 의도는 불순했지만 아람이와의 진실어린 대화를 통해 감화된 것이다.

나는 아람이가 점차로 부모님을 이해해가는 것을 보며 또 다른 아람이인 학생들을 떠올렸으며, 학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람이는 몸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지만, 내가 본 몇몇 학생들은 가혹한 현실을 파악하고 제 몸에 비하여 마음이 설익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몸이 자라는 속도를 능가하여 순수함이 깨지고 마음이 늙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슬프다. 어떤 아이들은 술담배, 가출 등으로 방황하거나 도난, 학교 폭력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지나치게 어른스럽고 믿음직스러운 행세를 하다가 돌연히 비행을 저지르는 일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다보면 경멸에 찬 눈빛으로 부모에 대한 증오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불쌍한 부

모님을 자신이 돌보아야 한다면 애어른 같은 소리를 하기도 했다. 마음이 작은 아이들이 부모와 감당하기 힘든 관계를 지속해야 할 때, 순진함, 순수함이 사라지되 성숙함이 따라오지 않아서 무규범상태가 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책을 읽다보니 당시 내가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과 부모님의 관계가 어떻게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갈등의 내막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님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학생의 마음과는 다르게 부모님의 내리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행실이 불량하다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무기력하게 한숨만 쉬시던 어머니나, 교칙 처분에 반발하여 학교에 찾아와 명분 없는 싸움을 했던 부모님이나, 폭력이 정당하였다고 학교 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와 학교 측에 항의를 하던 가해자의 어머니까지 그 어떠한 부모님의 행동이든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을 벗어나 숭고한 부모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 모든 부모님들에게 학생은 명백한 슬픔이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줬듯이 사랑하기에 슬퍼졌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그 때의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내 자신이 안타까웠다. 그랬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까지 배려하는 포용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학생들이 인생의 소소한 순간을 함께 즐길 기회를 주는 것도 성숙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길임을 깨달았다.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한 것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소망 때문이었고, 실망하여 지웠던 부모님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한 것도 이서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소망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서의 관계들이 아들이 세상에 다시 나아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아들의 부모님은 아들이가 추론했듯이 아들을 사랑하고 기대한 만큼 실망감에

벽차서 아름이와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했었다. 어머니는 가출을 시도했었고 아버지는 한 때 병원에 갈 때마다 오락실에 들러 몇 시간씩 게임을 했다. 그런 부모님이 힘을 내어 현실로 돌아오게 한 것도 아름이와 교감한 일상의 작은 순간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햇빛에 나무들이 반짝이는 어느 눈부신 날, 아버지와 아름이가 병원 덩블링에서 쿵짝쿵짝 교대로 발을 구르며 까르르 웃은 이후, 아버지는 오락실에 가지 않았다. 쿵짝쿵짝 두근대는 그 소리는 어머니도 뱃속에 있는 아름이의 심장과 장단을 맞추며 익히 알고 있던 소리였다. 생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와 부둥켜안은 아름이는 다시 한 번 그 화음을 느낀다. 아름이가 자신에게 다가온 소설가가 이서하가 아니었음을 알고 게임기에 빠져들었을 때, 다시 현실에 살게 한 것도 옆에서 속을 끓이며 지켜보던 아버지와 의 굳건한 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름이가 더 살고 싶게 하는 것은 비단 사람들과의 관계만은 아니었다. 개 짖는 소리,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 갓 지은 밥 냄새 등 일상의 아주 작은 모든 순간들이 의미가 되어 아름이를 살고 싶게 했다. 그리고 아름이는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자식이 되어 부모님과 그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했다. 교직 생활 중에 갖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 막막한 경우가 무척 많았다. 그런데 아름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알고 나니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나 싶다. 학생들이 각각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웃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 담임선생님의 작은 관심과 칭찬, 왁자지껄한 등하교길, 즐거운 학급 활동, 친구의 정이 담긴 편지, 재미난 수업, 교실의 아기자기한 코너들, 쉬는 시간의 담소에 의미를 부여하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들의 작은 세상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 관계가 그 다음 관계를 위한 도움발이 되어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세상에 나아가게 할 것이다.

단숨에 읽힌 이 소설 속에서 한 살 언니인 작가는 또래 부부의 이야기로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져댔고 나는 20개월 아기를 재운 틈틈이 책 구석구석에 숨은 답을 찾았다. 장씨 할아버지가 단언했듯이 내 아이를 가졌으니 나도 이제야 어른이 된 것일까? 장씨 할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에게 “부모 맘은 그렇지 않아요.”라던 유부남 선생님, “선생님은 애를 안 낳아보셔서 몰라요.”라는 소리를 학부모님으로부터 듣고서 볼멘소리를 하던 동료 선생님이 떠올랐다. 아름이가 조로증을 선고받던 날, 아름이 아빠는 농아 부부가 아기에게 물건을 연신 던지며 주의를 끄는 모습에서 말을 걸고 싶어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잡아냈다. 단순한 장면에서도 부모만이 알아낼 수 있는 인지상정의 깊은 감정이 있다는 것이다. 아름이의 소설에서 물가가 바람에 일렁일 때 주름진 아름이의 모습이 슬프게 웃는다. 아름이가 항상 지켜봤듯이 그 바람도 계절 따라 떠나갔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더 이상 같지 않았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나 역시 성장하여 세상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일궈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내 인생은 참 '두근두근' 해진다.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 우수작
의정부시 의정부2동 현정민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쌀쌀한 기운이 느껴졌다. 바깥 공기가 차가워지니 마음도 차가워지면서 내 마음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 같다. 내 손이 이 책을 잡게 된 이유는 아마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사실 제목의 역설적 표현에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든 책인 것 같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마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 '나'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거의 기억이 담겨있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쓴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설 한 편이 펼쳐지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이 참 좋았다.

"조로증"에 걸린 '나'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17세 소년이지만 몸은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늙은 80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주인공은 무언가 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노트북을 이용해 글을 쓰는 것으로 대신한다. 아파서 학교에 다니지 못해 속상하지 않냐는 물음에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고, 뒤처질까 불안해서 수많은 종류의 책을 읽는다.'는 대답이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아무리 선생님께서 '배워야 한다, 집중해.'라고 말 씀하셔도 듣지 않고, 하지못해 앉아 있는 그 수업을 누군가는 이렇게 그리워 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다. 학교를 다니고 싶고, 무언가를 배우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배울 수 없는 주인공의 마음은 어떨까?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학, 과학 할 것 없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외롭고 대단해 보였다.

이 주인공을 낳은 부모님은 파릇파릇한 시절, 각자의 고민을 마음에 안고 있던 고등학생이었다.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사고로 자퇴를 하게 되어 미래를 걱정하던 아빠,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지만 아버지에 의해 꿈을 접어야만 했던 엄마. 미래에 불안해하던 그 둘이 만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는 아빠 엄마를 평생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 둘은 이 아이가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될지 예상할 수 있었을까? 아이를 낳고 이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했던 그들이 아이의 병명을 안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들이 그토록 불안해했던 미래가, 이 아이로 인해 어떻게 변할지 그들은 아마 알지 못했을 것이다.

“미안해하지 마.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슬퍼할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네가 나의 슬픔이라 기뻐.”라고 아들을 향해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서 슬픔이 느껴졌다. 아버지보다 빨리 늙는 아들은 자기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는 아버지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아버지는 더 이상 철없는 철부지 아버지가 아닌, 누구보다 빛나고 든든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악화되어가는 아이의 병세에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진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을 ‘불우이웃돕기 방송’에 출현시켜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실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이라는 사실도……. 그 이야기를 엿들으며 더 죄책감을 느꼈을 ‘나’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방송 출현은 ‘나’의 짧은 인생에 아주 기억에 남고, 가장 화려한 사건이었을 것 같다. 자신의 입원비를 벌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안쓰러워 보이고, 좀 더 호감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나’에게서 애처로움을 느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철이 든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많은 것에 상처 받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해지지 않았을까.

“빨리 늙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이니?”라는 물음에 “그럼 젊다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라고 대답하는 아름이의 담담함과 대담함에 놀라기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사실 나도 아름

이를 보면서 ‘빨리 늙으면, 부모님보다 늙어가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아름이의 상처에 덧내는 것이라는 걸 아름이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젊음과 늙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작가는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린 아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하
는 ‘늙음’과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늙
어 가고 있고 ‘늙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젊다’에 대한 이렇
다할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늙는다’도 사실 마찬가지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연스러
운 순리이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그 사실을 아름이는 남들보다 조금 더 밀찍 깨우치
게 된 것 같다.

17년이라는 인생을 혼자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슬픔을 대신하
던 아름이가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바로, 방송을 통해 연결된 ‘서하’라는 아
미. 아름이처럼 병을 앓고 있다는 ‘서하’를 통해 아름이는 난생처음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느
끼게 되었다. 하지만 서하로 인해 자기가 인생을 더 살고 싶고, 인생이 끝나는 것을 아쉽고 두
려워하게 될까봐 도망치려한다. 이를 통해 서하는 또 하나를 배우게 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알아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도망치려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 엄마가 나한테서 도망치려 했다는 걸 알아서, 그 사람이 진짜인 걸 알아요.”

아름이가 어머니에게 했던 가슴 아픈 대사였다. 엄마가 지금 아름이의 나이에 아기를 갖고,
어찌할지 몰라 아이와 이별하려했던 철없던 행동을 아름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아픔
을 아름이는 서하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이 서하에게서 도망치려했던 마음

를 통해, 그 당시 엄마의 마음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아픔이는 서하를 통해 많은 상처와 아픔도 받았지만,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고 그 감정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기도 하고, 대리만족하기도 하며,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지만 나를 치유하기도 한다. 이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책을 읽고 주인공 '나'의 아픔을 통해 함께 아프고 슬프기도 했고, 그의 아픔으로 나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픔이가 이름도 생소한 병에 걸려 우리와는 다른 생활을 하며 아픔을 통해 성장한 것은 보는 내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의 아픔을 통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내 인생은 '두근두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픔이에게는 나이에 맞는 친구는 없지만 생각이 맞는 할아버지 친구가 있고, 아프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글 쓰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아픔이는 건강하지도, 형제 간에 의 종지도, 공부를 잘 하지도, 운동을 잘 하지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도, 부모보다 오래 살지도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자식이었다.

가장 어린 부모에게 가장 늙은 자식이 되어 부모의 인생을 이야기로 선물하며, 새로운 아기를 선물한 아픔이. 그는 이 소설을 읽는 우리에게 아픔을 치유해주었으며, 그들의 부모에게는 참 재미있고 웃긴 녀석으로 남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 내 인생은 참 '두근두근'해진다.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 장려작

의정부시 금오동 문상희

나는 34세 정미라와 같은 나이, 7살 아이를 둔 엄마다. 아침마다 딸아이의 옷 수발을 들고, 마음에 들 때까지 머리를 묶고, 허겁지겁 바쁘게 출근을 한다. 아침마다 전쟁 아닌 날이 없고, 울고불고 난리통이다. 퇴근해서도 ‘엄마는 색칠공부를 안 도와준다, 오늘 줄넘기기를 넘다가 넘어졌다, 밥맛이 없다’ 등 나와 떨어진 일과를 빠르게 전달하는 가운데 딸아이와의 소소한 다툼과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도 아이를 괜히 낚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한 내 딸은 세상에 누구보다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다. 딸아이와의 소소한 다툼과 시비는 중요한 일과가 되었고, 이를 통해 내 딸은 진짜 내 딸이 된다. 딸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3번 정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아이는 3번 다 배시시 웃는다.

한아름이 물었다. ‘평생 아픈 대신 장수하는 자식과 건강한데 요절하는 자식’ 중 누구 선택할 거냐구. 장씨 할아버지는 답했다. ‘선택할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그냥 어느 날 내 몸에서 나와서는 나와 함께 인생을 마주하는 친구, 그게 부모와 자식이다. 알겠게도 선택이란 없다. 먼저 보낸 자식일지라도 좋으나 싫으나 내 자식 내 새끼다. 정미라와 한대수도 나와 같을 것이다.

정미라와 한대수는 바람이 부는 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웅덩이에서 만났다. 풍덩하고 웅덩이에 빠지고 풍덩 사랑에 빠졌다. 열일곱에 세상에서 가장 어린 부모가 되어, 열일곱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아이를 자식으로 두었다. 아픈 자식을 대견히 여겨, 여러 사람들 속에 허리를 꼴꼴이 하고, 더욱 당당히 걸었다. 아름이 아픔을 견딘 걸 자랑하였다. 한편으론 자신이 아픔을 아프게 하였다며 질책하고 후회하였다. 너무 사랑하기에 도망친 적도 있다. 정미라와 한대수는 ‘비루한 슬픔’을 ‘온전한 슬픔’으로 대할 수 있는 한아름의 父母다. ‘한아름’이 자신의 슬픔이어서 감사한 父母다.

한아름. 자신의 하루가 타인의 1년처럼 빨리 늙어가는 병, 원인도 치료법도 분명치 않은 희귀한 병(부선)을 앓고 있다. 하지만, 늙은 외모 속에 숨겨 있는 17세 소년의 순정. ‘이서하’를 만나며 시작되었고, ‘거짓 이서하’로 애달프고 서글퍼졌다. 기대감 없는 무표정의 병원 밥

을 먹으며, 헛헛한 병원 신세를 졌다. 금방 사라져 버릴 눈(雪)이 뭐 그리 예쁘기까지 하느냐는 꾸념을 던졌다. 소멸하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불필요하게 보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이 자신의 늙은 얼굴과 보이지 않는 눈(眼)을 징그럽게 여길까봐 무서워 선글라스를 꼭 끼고 다녔다. 동음이의어 ‘눈’이 애তھান 증의법으로 다가왔다. 아름이의 고단한 인생이 느껴졌다. 아름이는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일궈 조끼 입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봤다는 아با와 자기 잘못이라고 곱씹어 한탄하는 엄마에게 선물을 남겼다. 몸이 자주 뜨거워지던 소년, 사내가 되고 싶던 사내, 남의 살이 그리워 ‘여자 친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라고 소원을 빌던 17살 소년과, 물뱀과 벌집이 무서워 웅덩이에 빠진 소녀, 이 고장 남자랑은 안하겠단던 소녀, 바람 부는 날 가출이 하고 싶던 소녀의 이야기를 선물로 남겼다. 그것은 웅덩이에 ‘잔잔한 주름’을 보이며 아름이를 예고한 바람이 부는 날, 광란의 교미를 위해 비행하는 매미와도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청춘 이야기’였다. 두근두근 그 여름의 이야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아름이의 태생의 기원을 밝히는 이야기였다.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부모의 사랑과 자신의 시작을 남기고 싶었던 아름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글은 ‘가장 웃기는 놈’이 되고 싶단 소망을 이룬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름의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도도하게 가려놓은 커텐속 19禁 같았다.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에 집중하고 서로의 알몸을 탐닉하다가, 알몸의 존재를 남고, 알몸으로 죽어간다는 철학을 세련된 언어와 문체로 꼭꼭 숨긴 듯 했다. 읽으며 가끔 얼굴이 붉어졌다.

아름이가 나오는 방송. 아름이의 인터뷰 내용 속에 아름이의 속마음이 전해졌고, 내겐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구절이 많았다. 오랫동안 치료받으면서 ‘혼자’라는 생각을 했던 아름이. 고통은 사랑처럼 쉽게 나눠 가질 수도 없고, 그저 혼자 감내해 나가야하는 혼자만의 것 일 뿐. 아름이의 인생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늙어가는 고통의 순간들이 모인 것이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이었을 거다. 아픈 이의 무게는 짊 수 있을까? 얼마나 큰 저울이 있어야 짊 수 있을까?

간혹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온다 하더라도 ‘어둠의 동굴’의 존재감은 ‘동굴’에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입구 쪽에 햇살이 간혹 비추어 동굴이 환해질 수는 있으나, 동굴은 동굴일 뿐이고, 동굴로 깊이 가면 갈수록 어두울 뿐이다. 잠깐 찾아오는 햇살에 의지하면 동굴은 동굴로 지 내기 힘들어진다. 아픔의 고통은 타인의 잠깐의 이해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온전한 아픔 그대로 알기는 어렵다. 고통은 철저히 내 꺼다.

또, 인터뷰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여 꿈을 쫓는 아이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우는 아이가 부러웠다는 말. '실매해보고 싶었어요.' 라는 아름이의 수줍은 고백. 그 고백이 내 가슴을 먹먹하게 아프게 했다. 거절하고, 실망하고, 수치를 느끼고, 넘어지고, 깨지고, 까지는 평범한 일상 속 실패의 기회가 부러운 17세 소년이 한없이 안쓰러웠다. 건강에 무지한 건강, 일상에 무지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간직하고 사는지, 느끼고 또 느끼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해 본다. 행복은 일상의 권태(倦怠) 속에 잠들어 있으니, 잠든 행복을 깨워 참된 행복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살을 넘으면서 독후감을 쓸 일은 사실 없었던 것 같다. 그런 내가 이렇게 독후감을 쓰게 된 것은 '두근두근 내 인생' 이 책이 내 가슴에 잔잔히 스며왔기 때문이다. 무로로 나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픈 내용에 어울리지 않게 동글동글한 앙증맞은 문체는 말랑말랑 젤리 같았다. 슬픈 내용을 이렇게 안 슬프게 예쁘게 단장해 나간 김애란 작가의 필력에 적잖이 놀랐고, 김애란 작가가 꾸며놓은 대결 구도는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낱말을 주위 배우며 태어나고 낱말을 잃으며 죽어가는 한 인간.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대하는 부모와 늙은 모습을 알게 하는 아이.

생을 마감하며 부모님께 선물한 태몽. 시작과 끝.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의 시작인데, 시작과 동시에 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에 다가가는 무로의 인생. 삶과 죽음.

거짓 이서하에게 매일 보낸 문장, 웅덩이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처음 만날 날 한 말 '누구

세요?’ 소년이 소녀에게 존재를 묻는데 실망이 묻어난 ‘누구세요?’와 설레임이 휘몰아치는 ‘누구세요?’

젤리같은 문체 속에 묘하게 통째처럼 자리잡은 대결 구도가 나를 유혹하였다.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아이를 키우는 바쁜 일상 속에, 나를 시험하듯, 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이 글을 써봐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책을 3번 거듭 읽었다.

읽을수록 정미라와 한대수, 한아름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렸다.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 발랄하게 ‘두근두근’했고, 엄마 뱃속에서 여린 영혼의 심장이 ‘두근두근’ 노크하였고, 생을 마감하는 아름이의 심장이 ‘두근두근’ 힘없이 문을 닫았다.

아름이는 단어들을 배우며 태어나 자라고, 그 배운 단어들을 잃으며 세상과 이별을 했다. 이별하는 아름이 물었다.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독자인 내가 답한다. ‘산 자식이나 죽은 자식이나 다 마음에 꽃처럼 터져 나와 별처럼 박혀 있다고.’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 장려작
의정부시 신곡2동 박성연

내가 살아온 십칠 년이라는 시간들은 인생에 대해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또래인 아름이라는 친구가 있다. 아름이의 나이는 나와 같은 열일곱이지만, 아무도 아름이의 나이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름이의 시간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단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름이에게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만약 아름이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내게 단 하루가 남아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남은 하루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조금 더 나이를 먹게 된다면 선택할 수 있을까?... 그 하루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일 텐데, 수많은 하고 싶은 일 중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을 고를 수 없었다. 아직 무언가에 대한 선택이 옳다 혹은 아니다 라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을 보면 난 배우고 깨우쳐나가야 할 것이 다분하다고 몸소 느낀다. 대신에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그 시간을 모두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쯤은 해보게 된다.

나는 지나간 가족 사진첩을 들여다 보다가 문득 거울을 쳐다보면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또 지났음을 느끼게 된다. 사진 속에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것 같다. 가끔은 조금 서럽기도 하다. 아직 그래도 나를 십대인데, 시간이 너무 잘 가서 탈이다. 살 수 있다면 시간을 사고 싶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데, 영화 「인 타임」에서 시간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떠오른다. 누군가 나이를 먹는 것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세월은 항상 흘러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누구도 거슬러 가지도 멈추게 만들 수도 없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매일 매일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왔는지 참 후회스럽다.

아름이네 가족은 열일곱에 부모가 된 어머니, 아버지와 열일곱 혹은 부모님보다 더 늙어버린 아름이 이렇게 세 명이다. 책 내용에 열일곱이란 부모가 되기에 적당한 나이인가 라는 문

장이 나온다. 솔직히 말해서 열일곱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과속 운전이다. 흔히들 사고를 쳤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은 책 속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나 또한 주변에서도 많이 보아 왔다. 예를 들어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차태현에게 어느 날 자신이 딸이라고 주장하는 박보영이 나타난다. 손자인 왕석현도 데리고 나타난다. 이런 것을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하나... 아버지와 딸 모두 과속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박보영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찬 미혼모이다. 영화의 결말은 그렇게 시작된 동거 속에서 서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쳐 나가고, 또 각자의 꿈을 이루어 간다. 영화 속의 박보영이 미혼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해 나가는 모습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과연 미혼모도 아닌 나는 나의 꿈을 잘 그려가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의심된다. 이 영화처럼 현실이 다 분홍빛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조금 걱정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친구들이 과속운전의 결말을 모두 행복하게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상황을 아름답고 훈훈하게 미화하여 표현한 것이기에, 모든 현실이 이렇지 않다는 사실을 친구들도 알았으면 하는 바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신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였으면 좋겠다.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아름이의 부모님들도 학교를 모두 그만두어야 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뿌리째 송두리로 흔들어 버렸다.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아름이네 아버지가 운영하는 스포츠 용품 매장이 빗과 적자를 안고 문을 닫자 그 상황은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름이는 수미 아줌마로부터 ‘이웃에게 희망을’이라는 프로그램 출연 제의가 들어왔으나, 부모님이 힘들어할 아름이를 생각하여 두 번이나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된다. 전화 한 통에 천 원이라는 말이 어찌면 그렇게 씩씩하게도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반대하는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아름이는 방송에 출연하겠다는

는 의지를 밝히고, 결국 촬영에 임하게 된다. 아람이가 방송을 탄 이후로는 방송사 게시판에 아람이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이틀 후에는 이서하라는 같은 또래의 여자 아이에게 노래 한 곡이 첨부되어 있는, 행운을 빈다는 내용의 메일 하나를 받게 된다. 서하는 또한 아람이처럼 머리카락이 없다고 하였다. 처음엔 답장을 하는 것도 망설였던 아람이었지만, 서로 주고받는 이메일 사이에서 아람이는 난생 처음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런 두근거림도 잠시, 서하라는 아이는 삼십대 중반의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그는 불치병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담기 위해 아람이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던 것이었다. 아람이에게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그 아이는 거짓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에 아람이는 약간의 분노감과 노여움을 느끼게 된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감히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배신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아람이가 영원히 그 사실을 몰랐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던 도중 아람이는 시력마저 잃게 된다. 그 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서하라는 익명을 쓴 시나리오 작가가 찾아오지만, 그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서하라는 아이에 대하여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죽 그럴지도 모르지만, 서하라는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 그를 아람이는 용서한다고 하였다. 내가 아람이 라면 이 아저씨를 용서 할 수 있었을까 싶다. 아람이에게 친구는 동네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께서도 물론 아람이를 친구로 생각하신다. 서하는 이런 아람이에게 생긴 첫 또래의 여자 친구였다. 친구라는 존재를 그리고 사람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모조리 산산조각내버린 그 아저씨를 나 라면 용서하지 못 했을 것 같다. 이런 점을 보면 아람이는 마음도 함께 성숙한 것 같다. 나는 아직도 열일곱 살이나 되어서 철이 들지 않은 내가 가끔 부끄럽기도 하다.

책 속에서 승찬 아저씨가 한 말씀이 떠오른다. 거짓말은 나쁘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거짓 말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의의 거짓말도 때때로 필요하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도 거짓말이며 상대가 이것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상황은 반대로 돌아갈 것이다. 좋

은 의도에서 시작한 말도 나쁜 의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참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 볼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조금 공포스러운 일일 것 같다.

나는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매일 불평에 가득 차 살아가는 나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다. 나는 뭐가 그렇게 불만스럽고, 항상 짜증나 있었을까. 네 두 손과 두 발을 건강하게 남아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일단 감사드린다. 불효를 저지른 것을 다 갚으려면 지금 효녀 심청이가 된다고 해도 모자를 것 같다.

지금까지의 나라는 사람이 사귀었던 친구들도 모두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다.

초등학교 이후로 해가 바뀌는 친구들이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한 해 동안 죽고 못 사는 우정이 한 순간에 인사조차 안하는 남남이 된다는 것은 어색하기도 하고, 슬픈 일이다. 열일곱, 다시 생각해보니 그리 어리지만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 것 같다. 또한 나이가 중요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나이를 먹어 해가 지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성숙하게 변했는지 같다. 애늬은이라는 별명은 정말 괜찮은 별명 같다. 나이 또래에 비하여 어울리지 않게 성숙하다는 말이다. 나는 친구들이 먹지 않는 무말랭이나 장아찌 같은 반찬을 좋아해서 노인으로 불려지는데, 내적으로도 철 좀 들어 지금부터라도 나의 하루하루를 아끼고, 나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 장려작
의정부시 민락동 지혜원

이 책의 제목은 ‘두근두근 내 인생’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목을 생각해 보면 제목이 참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근두근이라기 보다는 ‘슬픈’이라는 형용사가 더 어울리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열일곱 살 어린 부모와 가장 높은 자식의 이야기. 여기에서 가장 높은 자식이라는 아름이는 세상이 정한 객관적인 나이로는 열일곱 살이지만 신체 나이는 80살인 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선 아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세상과 부모의 사랑이 그려져 있다.

책의 앞부분에 아름이가 어떤 아이인지 나오지 않고 아름이를 실수로 가지게 되어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된 서툰 두 명의 이야기를 읽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어리고 생각 없는 두 학생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부터 이 어린 두 사람은 부모가 되어 자식을 병중에 지극히 돌보고 아끼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미라는 계획에도 없던 아름이를 가지게 돼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대수 역시 학교를 그만두고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공사판에 뛰어들다. 그런데 그렇게 청춘을 희생하며 고생해서 남은 아이 아름이가 세상에 나오고 건강하기만 바라던 아이가 몸이 늙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이 어린 부부의 마음이 아팠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나라면 이 아이가 참 미울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젊은 두 부모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몸이 아픈 아름이를 정성껏 간호하고 아름이가 가지고 싶다는 노트북을 비싸지만 사주고 아름이가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빚까지 내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름이가 아프면 혹시라도 잘못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 그리고 이들의 대화에서 그 사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이 둘은 내 모든 예상을 뛰어넘은 큰 사랑을 본다. 나이만 어리지 부모는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인가 보다. 아름이가 말했다. 과거의 젊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비록 나이는 어리고 교복을 입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는 그 나이 또래와 다른 ‘부모’의 모습이 보였다고. 그렇다. 아름이의 질문처럼 어른은 부모가 돼서 어른이 되는 것인지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사람은 부모가 되어 어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아픔이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지금 아직 대학생이다. 아직 고등학생의 티를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제대로 뒤흔트게 서 본 적도 없다.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내 피부에 닿을 만큼 느낀 분명한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부모님만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분은 없으며 세상은 부모님처럼 항상 우리에게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나의 모습과 처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데 지금 내 부모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키워내고 사랑해주시고 계신다는 것 말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세상을 접할수록 더욱 더 느끼고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책에서 아픔이가 생각한 것처럼 부모는 아이를 낳아서 자신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을 보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어렸을 적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의 부모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부모님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처음부터 자라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보았다. 우리 엄마도 나를 가진 뒤부터 혜원이 엄마가 되었다. 우리 엄마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졌다.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마의 이름은 잊혀진 채 혜원이 엄마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심지어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 내가 그 아기 엄마로 이름이 불릴 테니 아기 이름을 예쁘게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엄마는 그렇게 내 이름을 남고 나를 키우면서 엄마 자신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름이 잊혀진 채 나를 가지고 낳은 순간부터 나와 함께 아기 때로 돌아가 함께 자란 것이다.

아픔이에 대한 미라와 대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경우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가 집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내가 공부를 하면 간식을 주셨고 내가 잠들 때 까지 어머니도 tv를 틀어놓고 밤늦게까지 주무시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았다. 엄마가 빨리 주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

니 내가 자지 않아서 주무시지 못했던 것이었고 엄마가 직장생활을 가지고 엄마의 삶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엄마는 엄마의 삶을 포기하고 살고 있던 것이었다. 엄마는 엄마의 삶과 시간과 꿈을 모조리 나에게 쏟고 계신 것이었다.

책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부모라는 자리의 무게는 나에게 우리 엄마를 생각하게 했다. 혼자서 온 세상의 풍파를 다 막아주며 나에게 안전한 곳을 만들어주고 뒤에서 눈물 흘리고 계셨을 부모님의 사랑 말이다. 이 책은 아람이의 시점에서 쓰여졌지만 나는 책을 읽으면서 유난히 아람이의 부모님의 사랑이 더 가슴에 와닿고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내가 실제로 부모여서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생각하며 책에서의 두 부모가 세상 앞에서 느꼈을 외로움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울렸다.

그리고 아픈 아람이의 처지를 생각해보았다. 아람이는 이름처럼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이다. 아람이가 쓰는 언어를 서하와의 편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아람이가 참 나와 비슷한 아이인 것 같았다. 나도 글을 쓰는 것을 참 좋아하고 아람이처럼 예쁘고 감성적인 말들을 참 좋아한다. 그래서 책 속의 아람이에게서 내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아파서 병원에서 생활하지 않아서 아람이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람이의 생각과 아람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게 되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이었다. 아프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건강이 없다는 것. 사람이 너무 아프면 길가의 건강한 거지가 그렇게 부러웠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것은 없어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먼 꿈이기도,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아프면 하나님이 자신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패를 경험할 기회조차 없으니 실패하는 사람이 부럽다고 한 것일까. 그 아람이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온다.

아람이에게 학교란 갈 수도, 꿈을 꿀 수조차 없는 곳이다. 정말 세상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것이다. 아파서 학교에마저 올 수 없는 친구들. 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난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걱정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가 그렇게 꿈꾸

는 학교 생활을 오랫동안 건강한 몸으로 했으니 아름이 앞에서 내가 참 부끄럽다. 나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이렇게 투정부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싫어 하는 것마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꿈만 꾸고 있다는 것 말이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내 주변에 아름이처럼 아픈 오빠가 있었다.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을 가진 오빠였다. 나는 그 오빠가 내가 다니는 영어 학원에 같이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항상 휠체어에 사지가 비뚤어진 채 앉아 있었고 항상 그 오빠의 어머니가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며 공부를 시키고 있던 것이었다. 엄마에게 들으니 저 오빠는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죽는다고 했다. 그런데 내게 든 생각은 '빨리 죽을 텐데 왜 영어공부를 하는 거지?'였다. 지금 아름이의 마음을 알고 그 때 그 오빠의 마음을 생각해보니 조금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 오빠는 배우고 싶던 것이다. 비록 근육은 서서히 굳어가지만 학교에 못 갈만큼 아픈 것은 아니니 다른 학생들처럼 똑같이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닌 것이다. 비록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나이까지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건강과 여태까지의 시간 동안 나는 너무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함부로 살지는 않았는지,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비록 객관적인 나이는 어리지만 아름이에게는 일분일초가 하루만큼 정말 느리다고 아름이가 말했듯이, 아름이의 주관적인 나이는 예순살 가까이 되는 장씨할아버지와 친구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정말 성숙한 어른인 것 같다. 책을 읽는 동안 아름이와 함께 아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책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아름이의 인생에 '두근두근'이라는 형용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름이의 마음을 읽으며 아름이의 인생에도 그리고 내 인생에도 '두근두근'이라는 형용사가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누구에게든 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정말 '두근'거리는 체험이다. 누군가는 그 체험이 조금 짧을 수도 누군가는 가진 것이 정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여파피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순간들에 감사하며 힘들어도 딱 한순간씩만 살아가는 것

이다. 누군가는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태어난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근거리고 설레는 경험인 것이 틀림없다. 이것을 느끼게 해준 아람이에게 고맙다. 아람이가 만약 내 옆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인생은 정말 두근 거리는 것들 투성이야!”



2013
어린이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수상작



착함의 의미

『이야기 기차』를 읽고 · 최우수작

동요로 6 이서윤

“홍부놀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래동화이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 책의 교훈이 착하게 살자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을 읽은 어른들은 어린이에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씀을 해주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른이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된 아이들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른들은 착하게 사는 삶을 강조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책은 기존의 생각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야기 기차”의 주요 줄거리는 기차에서 떠드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기존의 어른들이 요구하는 착함에 대한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다. 처음에 들려주는 착함에 관한 뻔한 이야기는 착한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을 사람 모두가 목숨을 걸고 도와준다는 이야기이다. 아이들은 당연히 그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도 쓰여 있다. 그 자리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무리 재미가 없더라도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무안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자, 왠지 나까지 무안해지는 것 같아 인상이 쓰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앞에 앉아있던 신사가 이야기를 정말 못하신다며 말을 걸었고, 그 이야기에 화가 나서 다시 말로 되받아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두 어른들의 모습을 읽고 있자니 나까지 긴장되어 팬스레 앉아있던 자세를 바꾸고 이야기를 읽었다. 그 신사는 자신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며 입을 열었고 아이들은 그의 입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가 시작한 이야기는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 어른들의 기본적 이야기와는 무언가 달랐다. 아주 착한 아이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데 그 이유가 착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이야기였다. 책 속의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물론 이요,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신선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했고, 처음의 이야기를 말했던 여자는 교육적인 내용이 아니라며 싫어했다. 그 내용을 끝으로 이 책은 덮여졌다.

이 책은 나에게 한 가지 의문을 던졌다. '무엇이 착함일까?' 그 착함의 의미가 어른들이 말한 게 맞다면 어른들은 왜 그것을 실천하지 않지? 그건 아마 어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착하게 살면 지금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서로 물고 뜯는 이 사회에서, 착하기만 하다면 무엇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책은 그러한 점을 꼭 짚어 이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여 착한 사람이 늘면 좋겠다. 이 책도 그런 바람을 담고 있지는 않을까. 욕심쟁이나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보다 착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나도 선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동참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 기차

저자 : 사키 사키, 김미선 역, 알바 마리나 리베라 그림

출판사 : 뜨인돌어린이

출간일 : 2011년 12월 20일

신사의 품격

『이야기 기차』를 읽고 · 우수작

호원초 6 문예슬

『이야기 기차』라는 제목을 듣고, 눈을 찔끔 감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차’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어렸을 때 질리도록 탔던 교통 수단. 책의 겉표지를 둘러보는데 유독 신사의 큰 손이 눈에 띄었다. 어느 더운 날 오후, 객실 안에서는 한바탕 요란이었다.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과, 반복해서 두 단어, 안 돼! 라는 말만 하는 여인, 그리고 잠잠게 앉아있는 신사 한 명.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것 같다. 보이는 것마다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죄다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여인의 대응. ‘안 돼’ ‘몰라’. 나는 이 부분을 읽고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여인은 아이들의 질문이 귀찮기만 하고 또는 유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자라나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그의 반대가 된다. 우리의 현실 사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나도 내 동생들에게 그렇게 대했으니까 말이다. 정말이지 사람들은 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질문을 하면 ‘유치하다. 필요없다. 볼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기차 안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떠들자, 신사의 얼굴에는 점점 웃음기가 없어진다. 그 모습을 보았는지, 여인은 아이들을 부른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준다. 어쩌면 여인은 그렇게 귀찮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여인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들려주었다. “옛날에 한 소녀가 살았는데 착한 심성과 모범적인 행동 때문에 주변의 칭찬이 자자했단다. 그래서 소녀가 성년 황소에게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소녀를 도와주었다.” 아이가 질문을 하였다. “그럼요, 아이가 착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구해주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겠네요?” 여인이 통명스러우면서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는 않았겠지” 아이들은 급실망한 표정을 짓고 각자의 할 일을 하였다. 보다 못한 신사는 말하였다. “뛰어난 이야기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나는 신사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시끄럽고 화난다 해도 초면에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인은 신사에게 정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 해보라고 했다. 신사는 말했다. “옛날에 말이다.

엄청나게! 착한 소녀가 있었지.” 신사는 “엄청나게!”라는 말에 강조하여 말하였다. 그 말을 듣던 아이들이 순간 관심을 보이더니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지 흥미를 버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사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신사가 “그 소녀는 공부도 잘했단다.”라고 하니까 소녀가 “예뻐나요?”라고 물어봤다. 신사는 너희보다는 아니지만 심하게 예쁘다고 하였다. 나는 신사가 참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 알맞고 좀 과장된 표현을 쓴 신사. 대단스럽고 기특하다. 신사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은 질문을 해가며 재미나게 주고받고 있었다. 어느덧,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라며, 칭찬을 하였다. 이야기는 이렇게 하여 끝나게 되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과 점잖은 성격의 신사, 까탈스러운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까 싶다. 겉표지에 신사의 손이 크게 느껴진 이유를 알겠다. 신사는 너그럽게 아이들의 자라나는 생각과 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다보니, 넓은 마음이 자라고 그 마음이 크게 자라며 넓고 따뜻한 손이 된 것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착함’이란 두 가지

「이야기 기차」를 읽고 · 우수작

표자로 4 김예지

이야기 기차. 현실에 딱 맞는 제목이다. 껌통 같은 더위에, 그것도 기차에서 아이들이 버티기란 아주 힘들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야기라면 아이들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여인과 신사는 한 가지 주제로 통일하여 이야기를 한다. ‘착함’. 내가 생각하기에 착하다는 것은 늘 올바르고 나쁜 짓을 전혀 하지 않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 않은가? 먼저 여인의 이야기. 착한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위험에 빠진 소녀를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여인의 이야기 속의 교훈은 착하면 복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 보통의 ‘착함’이란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는 한다. 두 번째, 신사의 이야기. 어느 착한 엄청난게 착한 소녀 베르타가 살았다. 말 잘 듣는 상, 공부 잘하는 상, 바른 생활 상을 꼭 옷에 달고 다녔다. 어느 날, 왕자가 자신의 정원에 베르타를 초대하였다. 거기서 베르타는 늑대를 만나고, 간신히 숨었다가 메달들의 짹랑거리는 소리 때문에 들켜 잡아먹히고 말았다. 신사의 이 이야기에다 여인의 이야기처럼 똑같은 교훈이 숨어있다. 초반에는 그랬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 결국 착해서 받은 메달들 때문에 죽었다는 내용은 ‘착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흔히들 첫 번째 착함을 원한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이웃, 친척, 이유는? 그래야 자신에게 해가 없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두 번째 착함을 선호한다. 외면이 아닌 ‘내면’을 말이다. ‘착함’에는 겸손도 포함된다. 베르타가 아무리 착하다 해도, 겸손을 지키지는 못했다. 메달들을 달고 다닌 것만 해도 그렇다. 베르타가 내면에서도 착했음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외면은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착함’으로 다스려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자랑하려고 내면을 다스린다면, 진정한 ‘내면이 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진짜 ‘내면이 착한 사람’이 되자. 명심하라. 내면과 외면, 착함의 두 가지 정의.

‘이야기 기차’를 읽고

‘이야기 기차’를 읽고 · 장려작

의순초 4 양정윤

처음에 기차 안에서 아이들은 소란을 피웠다. 이 아이들을 보니 나와 내 동생이 떠올랐다. 속이 뜨끔했다. 이 떠드는 아이들을 멈추게 하려는 여인과 신사. 여인은 실패하였다. 정말로 여인의 이야기는 따분하였다. 신사의 이야기 중에서 베르타는 메달을 3개씩이나 받았다. 나도 착해지고 싶다. 얼마나 착했으면 메달을 3개씩이나 받을까? 아직 나는 착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장난치지 않는 것일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일까? 어쩌면 나도 착한 아이일지도 모른다.

베르타는 왕자님의 궁전까지 가보았다. 베르타가 착하지만 앓았어도 이런 궁전까지는 못 가봤을 것이다. 하지만 베르타는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다. 늑대가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베르타가 착하지만 앓았어도 궁정까지 올 수 없었고,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않아서 생명을 잃지도 앓았을 것이다. 이 신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너무 장난을 쳐도 안 되고, 무조건 착해도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신사의 이야기가 교훈을 더 많이 주는 것 같다. 아이들의 마음도 사로잡으면서도 ‘무조건 착해도 상은 받을 수 있다.’ 또는 ‘조금 착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이야기. 베르타는 왜 착했을까? 상을 받기 위해? 칭찬을 받으려고? 베르타는 ‘너무 착해도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착한 아이가 될 것이다. 너무 착하지도 너무 장난을 치지도 않는 그런 착한 어린이.

‘이야기 기차’를 읽고

「이야기 기차」를 읽고 장려작
회룡초 6 서기은

보통 동화를 읽어보면 마지막은 거의 “그래서 누구와 누구누구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이야기다. 나는 이 ‘이야기 기차’라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제목이 왜 ‘이야기 기차’일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보니 기차 안에 어른들이 보통 동화를 읽어주고 아이들은 그것에서 교훈을 얻는 내용일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정 반대였다. 기차에 탄 아이들은 소란스럽게 행동하고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계속 물어보는 아이들이었다. 또 그들을 돌보는 여인은 그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보통 동화들과 같았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한 소녀가 있었는데 평소에 착해서 그 소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가 시시하다고 하였다. 이 아이들은 이런 시시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도 이 아이들 말에 공감을 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과 아이들 앞에 일행인 신사가 한 이야기는 달랐다. 그 신사가 해준 이야기는 착한 일을 해서 받은 물건들 때문에 늑대한테 먹힌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재미있어했다. 신사는 이야기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묻는 것도 다 대답해주고 ‘착한’ 앞에 ‘심히게’ 같은 신선한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든지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이야기 같았다.

무엇 때문인지 나는 ‘착하게 살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도 좋지만 ‘착하게 행동해서 받은 물건 때문에 늑대에게 잡아먹혀서 죽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왠지 마음에 와 닿는다. 신사가 해준 이야기에서 소녀는 메달, 물건, 칭찬들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신사가 해준 이야기에서 교훈은 착하게 행동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 이 신사의 이야기 덕분에 나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익명으로 큰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참 겸손하고 대단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을 나에게 알려주신 엄마의 속뜻도 알게 된 것 같다.

‘이야기 기차’를 읽고

‘이야기 기차’를 읽고

민락초 6 김윤경

기차 안에서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여 여인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착한 심성과 모범적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소녀를 많이 좋아하였고 그래서 소녀가 성난 황소에게 쫓기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소녀를 구해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루하고 시시한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신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인과 같이 착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말 잘 듣는 상, 공부 잘 하는 상, 바른 생활 상 3대의 메달 때문에 결국에는 늑대에게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인과 신사의 이야기는 둘 다 똑같은 ‘착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한 이야기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다른 이야기는 너무 착하게 살아도 결말은 험하다, 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처럼 ‘고정관념처럼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여인의 이야기보다 착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신사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2013년 육군 제2군수 지원사령부 장병
독서감상문 경연 대회 수상작



모든 사랑 이야기는 닮아 있다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를 읽고 · 최우수작

본부근무대 밀병 신동철

듣고 있어도 듣고 싶은 노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는 나에게 그러한 책이다. 읽어도 또 읽고 싶은 책.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이다. 캠퍼스에서 유독 나의 시선을 끌어가던 그녀는 항상 책을 들고 다녔다. 그녀와의 작은 연결 고리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는 그녀의 손에 숨겨진 책의 제목을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서점으로 가서 이 책을 구입했다. 파울로 코엘류라는 작가에, 책 안의 소리에 빠져들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모든 사랑 이야기는 닮아 있다.’ 계속 되뇌었다. 모든 사랑이야기는 닮아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동안 나의 사랑 이야기, 내가 봐온 사랑 이야기 등등. 스쳐가는 생각을 그대로 흘려버리고 흔들리지 않고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아슬아슬했던 나의 마음은 방독처럼 무너졌다.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다.’ 괜찮다, 괜찮아, 라며 잘 붙잡고 있던 마음이었지만, 책에 쓰인 작은 문장 하나에 나는 고개를 떨궜다. 피에트라 강이 어딘지,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주인공이 왜 울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깊은 한숨과 숙여진 고개는 쉽게 들리지 않았다. 괜찮은 줄 알았던 지난 내 사랑의 감정 때문이었을 것이라. 책을 읽는 내내 놓지 못했던 감정에 얼매였었다. 그땐 그랬었다. 첫 만남 이후로 다른 책에 지쳐있을 때 종종 읽어보던 책. 그리고 지금. 긴장되고 경직된 군 생활에 내 마음조차 잃어버릴까, 다시금 책을 꺼내들었다. 두 인물의 사건으로 전개가 된다. ‘필라’와 그. 필라의 독백은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고 이별 아닌 이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삶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절실히 알려준다. 어린 시절부터 둘은 사랑했지만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큰 도시로 떠났고, 어느 날 신학자가 될 것이라는 편지만을 보내온다. 작가가 카톨릭 신자이고 그의 책 대부분이 그렇듯이 종교적인 색채가 깊숙이 묻어있다. 종교적 색채가 가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찌푸러지지 않는 이유는 특정 종교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신에 대한 우리의 자세, 현실 속의 문제와 결부시켜 해결안을 내놓는 작가 특유의 필체 때문이다. 필라는 그를 사랑하지만 자신을 두고 떠난 그를 원망한다. 그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곳에서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꿈꾼다, 평범한 가정, 아이들, 가끔의 휴가 등. 더욱이 그가 신학자(신부)가 될 것이란 편지를 받은 후에

는 그녀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적 영역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과 원망, 그 안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려는 그녀의 자세. 그러나 적응이란 자기합리화에 갇힌 도피처였고 그녀의 슬픔을 스스로 '타인'이라 부르며 더욱 공고히 자신을 가둬버린다. 그리고 기약 없던 그에게 연락이 온다. 자신이 주체하는 종교 강연에 와달라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그녀지만, 그를 따라나선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해주는 첫 번째 이야기다. 사랑이란, 믿음이란, 자기합리화로 맞서기에는 너무도 위대한 것임을.

그는 필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시간이 무색할 만큼 쉽게 말한다. 물론 그에게는 오랜 세월 기다리고 준비했던 말이지만 그녀에게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필라는 그의 가벼운 말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를 믿을 수는 없다. 여기서 이 책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를 따라나선 그녀는 그의 신앙, 은사 등을 지켜보며 그에 대한 사랑 이외의 것을 느껴나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가는 신기할 정도로 거부감 없는 신앙의 색깔을 독자에게 보여주는데, 그가 행하는 기적의 은사는 전 인류애적 사랑이자,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점이 그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즐거움과 놀라움은 그녀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임에도 그의 마음, 생각, 감정을 낱낱이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그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한다.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사명, 은사를 포기하고 그녀를 선택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결정에 철저히 외면한다. 그 외면의 정도는 그에 대한 사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류애적 사랑, 희생 그리고 애써 담담해하던 그녀 삶의 이전 가치를 벗어던지고 새롭게 세운 삶의 목표에 대한 좌절에 해당한다. 필라는 더 이상 자기합리화에 갇힌, 타인에게 간여 휘둘리는 삶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책에서 말하는 '임태된 동점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작가는 독자의 용머리를 풀어주듯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그녀와 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그와 그녀가 서로 사랑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신학도의 길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위한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참 다르다. 이 책을 처음 곁에 두었을 때와 그 후의 몇 번, 그리고 지금. 내가 받는 이미지

와 메시지는 너무 다르다. 20대 초반, 절절한 사랑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있을 때에는 파올로의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 속에 새겨졌었다.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다. 겨울 바람은 땀 위로 흐르는 내 눈물을 얼렸고, 얼음처럼 강물 속으로 떨어진 눈물은 나를 두고 강물과 함께 흘러갔다. 내 눈물은 너무 멀리 흘러가, 내 사랑은 어느덧 내가 그를 위해 울었음을 알지 못하리라.” 몇 번이고 되뇌이고 새겼다. 글에 담긴 분위기에, 색깔 속에 온전히 들어가 느끼고 싶었다. 그 때의 심히 숙고했던 감정은 곳곳한 청춘이었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 여유만큼이나 지금 받는 느낌은 다르다. 필라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다른 것에 대한 미련을 애써 감추고 현실 속에서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아니, 적응이란 말보단 안주하다. 가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분명, 내 안에는 타인이 있고 그 타인이 들려주는 자기합리화, 이기심에 삶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필라의 결정처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나서는 것이 진실로 필요하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 가장 크게 마음을 동여매는 아픔이라면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가페적 사랑이든, 찰나에 가까운 불꽃 사랑이든. 필자가 겪은 아픔 또한 그러했고 나 또한 그러하다. 28이란 늦은 나이에 입대하기 전까지 매 순간 다양한 형태의 삶이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뒤흔들었다. 처음 이 책을 곁에 두었을 때는 뒤흔들릴 때였고 지금은 감히 뒤흔들렸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다른 무언가에 손을 내밀고 잡아 당겨야 한다. 군대로 결정했다. 경직된 나의 모습에 내 감성 또한 잃어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또한 ‘타인’에게 간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를 위함이 아닌 순전히 누군가에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가치,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지내보니, 겪어보니,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 가치에 다가가기 위한 길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장애물이 나타날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필라와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이겨냈듯이 내 앞에 다가오는 일들을 헤쳐나가야겠다.

이제는 알겠다. 내가 지난날의 내 감정,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보니 필라가 말했던 첫 말을 이제는 알겠다. ‘모든 사랑 이야기는 닮아 있다.’ 사랑이 아닌 사랑 이야기였던 이유는 사랑의 순간에는 사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며 사랑, 그 이후에야 이야기로 돌아보고 느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가슴을 아련하고 숨죽이게 했던 문장들에 대한 이미지부터 지금의 '가치'를 생각해보기 까지,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는 나에게 그러한 책이다. 읽어도 읽어도 또 읽어보고 싶은 책.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저 자 : 파울로 코엘료 저, 이수은 역

출판사 : 문학동네

출간일 : 2003년 5월 3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를 읽고 - 최우수작
2군 지사 15보급대대 4중대 상병 전찬혁

“신이 수명을 정해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도록.”

- 미치 앨봄

그날은 장맛비가 내렸다. 수저를 들다 말고 창밖을 보았다. 거리엔 새까만 우산들이 가득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병원은 더욱 어둡게만 느껴졌다. 고모가 먼저 입을 떼었다. “엄마가 이렇게 아팠을 줄 몰랐지?” 고모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의 끈이 요동쳤다. 더 이상 터져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부대에 있는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병을 막 달았을 무렵,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다. 유방암 말기판정이 나왔다. 그렇게 엄마는 머리를 밀고 투병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다. 나는 세 달에 한 번 꼴로 청원 휴가를 나와 엄마를 보러 갔다. 항암 치료를 받을수록 엄마의 건강은 나아지는 것 같았다. 머리도 새로 나고 옷은 모습도 많이 보이셨다. 가족 모두가 엄마의 쾌유를 위해 정성껏 도왔다. 하지만 주님은 엄마를 더 일찍 곁에 두고 싶으셨나보다. 암세포들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워 하셨다. 그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찢어질 듯 했다. 나는 밤새 기도했다. 제발 엄마가 숨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11월 5일 11시 30분 엄마는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시작하셨다.

장례식을 마친 후 기욤 뭈소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많이 떠올랐다. 하루 종일 간호하면서 틈틈이 읽었던 책이다. 그래서일까? 이 책에 더 애착이 갔다. 기억을 더듬으며 내용을 되살려 보았다. 마크·앨리슨·에비 이 세 명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고통스러운 과거에 얽매어 스스로를 희생자이자 죄인이라 여기는 것이다.

마크는 뛰어난 실력으로 저명을 떨쳤던 신경정신과 의사였다. 아내와 다섯 살 된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마크의 딸 라일라가 실종되면서 행복은 산산조각 나

버린다. 딸을 잃은 마크는 점점 피폐해져만 간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곧장 로스앤젤레스로 간다. 그곳에서 꿈에도 그리던 딸을 5년 만에 만나고 맨해튼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다.

억만장자의 딸인 엘리슨은 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과거에 저지른 뺑소니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술과 약으로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한 그녀는 결국 맨해튼의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에비는 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엄마를 죽게 만든 의사이다. 에비의 엄마는 술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겼다. 장기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에비는 엄마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다. 마침내 간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다. 하지만 수술 당일 의사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의 엄마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엄마는 결단코 마신 적 없다며 부정했다. 딸의 신뢰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비는 술을 끊지 못하는 엄마가 못미더웠고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다. 그 뒤로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후에 알게 되었다. 의사가 다음 대기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엄마는 수술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에비는 엄마를 죽게 만든 장본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맨해튼으로 떠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연을 지닌 셋이 우연히 같은 비행기에 오르고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트라우마를 말하며 상처를 치유 받는다. 마크는 더 이상 딸이 살아있지 않음을 이해하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 엘리슨은 자신이 사고를 낸 아이가 마크의 아이임을 알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에비는 이들을 보며 복수할 마음을 접는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비행기 안이 아닌 병원 천장을 보게 된다. 이 셋 모두 같은 병원에서 최면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 우연처럼 인연의 끈으로 묶여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짓눌러온 슬픔과 죄의식의 중압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며칠 전 우연히 영화 「건축학개론」을 보았다. 모두가 수지에 주목할 때 아무도 관심 없는

한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 이제훈이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집에 와 입고 있던 옷이 촌스럽다며 내팽개치고 엄마에게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 이 장면을 보니 문득 전에 엄마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철없을 적 실수들로 내 가슴은 멎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한 가지씩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드러나곤 한다. 상처가 나아도 흉터는 남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흉터를 부둥켜안고 따뜻한 손으로 다듬는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다. 얹히고설킨 삶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때 비로소 情을 느낄 수 있다.

최면 치료가 끝날 즈음 라일라는 행복한 얼굴로 마크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한다.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었다면서 말이다. 라일라가 말한 저 위, 그곳에는 정말 천국이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거기에는 행복만 가득할까? 전에는 천국 같은 걸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 분명 엄마를 다시 만날 거다. 호흡기를 떼고 숨이 멎은 후 동생은 엄마를 바보라고 원망했다. 엄마는 바보 같았다. 매일 고생만 하다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게 미웠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나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잠든 아이 같았다. 이모부는 처음 온 모습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셨다. 세상을 즐거운 소풍이었다고 표현한 시인처럼 엄마는 행복을 한 아름 물고 떠나셨다.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다.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방사선을 연구하다 암으로 생을 마감한 마리 퀴리가 한 말이다. 그래,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도 있다는 걸. 그렇지만 서로 사랑할 때는 결코 밤이 찾아오지 않는 법이니까.

책 한 권에서 행복을 찾다

『책은 도끼다』을 읽고 · 우수작

본부근무대 일병 안영준

2년 전, 서점 베스트셀러 전시 코너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책 한 권이 내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다. “책은 도끼다”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이었다. 하지만 표지도 너무 멋있었고, 전공 공부만 하기에 정신없던 당시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릴 지나쳤다. 그리고 1년 전, 대학에서 마케팅과 광고를 공부하게 되면서 관심이 가는 사람이 한 명 생겼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라는 책으로 접하게 된 박웅현이다. 그 책에서 박웅현은 광고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문학의 중요성과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게 한 책이었다. 재밌게도 박웅현은 예전에 지나쳤던 ‘책은 도끼다’의 저자였고, 이번에 무심코 지나쳤던 그 책을 들게 되면서 나는 박웅현이란 사람에게 더욱 빠져들게 되었다. 이번엔 광고인 박웅현이 아닌 사람 박웅현에 말이다.

이 책은 저자가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저자만의 인문학적 시선을 통해 명쾌하게 분석하고, 인상깊은 구절들을 소개한다. 많은 메시지를 중에서도 가장 나에게 와닿았던 내용은 저자가 서문에서부터 강조한 진정한 독서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책의 서문은 카프카가 저작 ‘변신’의 서문에서 언급한 다음 인용구로 시작한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꿈꿨던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문장이었다. 언젠가부터 나는 책에서 언급했던 일명 ‘다독 콤플렉스’에 걸려서 그저 많은 책을 읽으려고만 했고, 카프카의 이 한 마디는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카프카에 따르면 나는 책을 읽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말을 읽자마자 머리가 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카프카에 따르면 나는 계속 자고 있던 셈이다. 그동안 나는 책을 통해서 대충 지식만 쌓았지 진정한 울림을 느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인용구가 책을 읽는 내내 머리 속에 남았다. 박웅현은 우리가 책을 읽고 변화하기를 주장한

다. 이 말을 듣고 '충용을 읽고 변한 게 없으면 그것은 충용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는 김용욱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껏 나를 변화시켰던 책은 몇 권이나 있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적어도 이 책만큼은 나를 변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자의 독서 방식을 빌려 한 줄 한 줄 곹씹으며 천천히 읽어나갔다.

챕터별로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책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었다. 바로 '행복'이라는 키워드였다. 사람들은 통상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행복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저자는 현실을 꼬집고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저자의 말은 실로 단순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만큼 간과하기 쉬운 생각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하겠다는 식으로 삶을 다른 사람과의 레이스로 여긴다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과거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한 현재를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결국 삶은 순간 순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행복을 찾는 것이 곧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한다. 저자의 말 중에 '행불행은 조건이 아니다. 선택이다'란 말이 있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의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본인 스스로 주변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비록 물질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것들도 얼마든지 행복이다. 법정스님도 행복은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데서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순간의 행복, 찰나의 기쁨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을 이룰 수 있다. 오늘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리곤 하는데 '이방인'의 '나'나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처럼 현재에 집

중하고 현실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행복을 찾는 즐거움을 통해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류도 '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표현했다. 현재를 즐겨라란 뜻의 '카페 디엠'이란 말도 언젠가부터 영화, 게임, 광고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많이 쓰이고 있다. 생각해보니 세상은 이미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 예전부터 강조해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조금은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책을 통해 울림을 받듯이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평소엔 관심주지 않았던 것들을 통해 행복감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졌다. 현재를 사는 삶. 그것도 한 번쯤은 살아볼 만하고 가치 있는 삶일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책을 읽을수록 저자의 인문학적 내공에 감탄이 나왔다. 책을 소개하는 책의 입장에서, 소개한 책들을 읽어보고 싶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일 것이다. 읽어본 적 있는 책들은 다시 가서 펼쳐보고 싶어졌고, 안나 카레니나, 자전거 여행, 순간의 꽃 등 아직 읽어보진 못한 책들도 마치 그 책을 읽은 것 같은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당장 읽고 싶어지게 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이상이었다. 소개한 문장을 볼 때마다 이 책의 이 문장이 이런 의미와 상징을 지니고 있었구나 하는 감동과 울림이 느껴졌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탄식이 나왔다. 책을 천천히 읽어보니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대충 훑어만 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과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몰입하고 책 속에 폭 잠겨 헤엄쳤을 때, 까만 글씨들은 비로소 책이 될 수 있었다. 남들에게도 이 책은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를 너무 쉽게 얻고 소비하는 현대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바쁜 삶 속에서 독서의 여유를 갖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가끔씩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독서의 행복을 느껴보는 것도 값진 경험이 될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독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폭넓은 사고를 하게

하고 통찰을 키워주는 최상의 도구란 걸 깨달았다. 앞으로는 책을 스마트폰 보듯이 대충 넘기는 대신 문장 한 줄 한 줄을 곱씹어보고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마음 속 얼음을 깨고 책의 즐거움을 찾아내는 참된 독서 습관을 들여야겠다. 책의 의미를 내 삶으로 적용시켜 새로운 나를 발견해나가고 싶다. 책을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무참히 도끼질당해 변화해나가는 나를 발견하고 싶다.



책은 도끼다

저 자 : 박웅현 저

출판사 : 북하우스(Book House)

출간일 : 2011년 10월 10일

시대를 초월한 마음 - 진심의 선순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고 · 우수작
606 수송대대 2중대 상병 박성규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 알렉산더 듀마의 말이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의 기쁨에 대해 공감하고,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진실된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의 명언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진다. ‘진심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행복을 즐길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름 아닌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은 철없는 소년들이 도둑질을 한 후 어떤 폐가에 숨어들면서 시작된다. 은신 후 탈출 계획을 세우던 소년들은 우연한 기회로 이곳이 예전에 고민 상담으로 유명세를 탔던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무렵 느닷없이 편지 한통이 날아든다. 의문의 편지에 답장을 하던 소년들은 그 편지가 과거에서 왔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공간의 시간이 뒤틀려 있어 편지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흥미를 느낀 소년들은 계속해서 편지를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위의 줄거리에도 나와 있듯, 책에서는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한다. 작가가 서술의 편의를 위해 ‘편지’를 매개체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다른 통신 매체들과 편지가 갖는 차이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보고 싶다. 현대인들은 통신 매체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많은 정보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 위주로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SNS를 보면 자신들 내면 깊숙한 곳의 이야기 보다는 ‘오늘은 뭐했고 기분은 어떨다.’ 같은 일상적인 내용들이 주로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역시 서로의 가치관이나 가슴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

보다는, 주로 간단한 약속을 잡거나 신변잡기 등 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형편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를 지닌 인터넷 접목된 소통 수단들은 오고가는 주기가 짧아지고, 그에 맞춰 읽고 쓰는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그렇다보니 심도 있는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 힘들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 매체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날에 때때로 편지라는 구시대 매체를 쓰곤 한다. 비록 최근의 통신 매체에 비해 전달되는 속도는 훨씬 느리지만, 대신 다른 매체들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정성'을 한가득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편지 한 통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쁜 편지지를 고르는 것, 손 글씨로 열심히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가는 것, 받는 사람의 기본 표정을 상상하며 설레는 맘을 안고 우체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 모든 과정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을 갖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정성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다른 매체들에 비해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진실된 마음을 녹여낼 수 있기에, 우리는 종종 펜과 종이를 들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책에서 편지가 시공을 초월하여, 서로의 '진심'을 담아 소통하는 매개체로써 사용된 것이라 말하고 싶다. 핸드폰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1970년대의 올림픽 선수와 올림픽 따위는 그저 큰 운동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21세기의 불량 청소년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시작된다.

과거의 인물인 나미야 잡화점의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질문에도 밤낮을 고민해가며 성실하게 답변해준다. 그러면서 점차 잡화점의 고민 상담소는 유명세를 타게 되고, 진지한 고민들도 하나씩 접수되기 시작한다. 자신의 아픔도 잊은 채 고민에 대한 답변을 해주던 할아버지는 다시 활력을 찾게 되고, 자신의 답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

습을 보며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의 인물인 소년들도 과거의 인물들과 상담 편지를 주고받으며 처음에는 대충대충 답장을 보내지만, 점차 그들이 처한 상황에 몰입하게 되고 머리를 맞대어 멋진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과거의 인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상담을 통해 자신들 역시 일종의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이것을 제목에서 언급했듯 '진심의 선순환 작용'이라 부르고 싶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다른 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준다면, 그 사람 또한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또 다시 상대방을 더 이해하려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우리에게 더 많은 공감을 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그에 힘입어 더욱더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모습을 띄기 때문에, 이를 선순환 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상황을 명명해보자면 '무심함의 악순환 작용'이라 할 수 있겠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멋대로 행동 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될 것이고 그의 기분은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서로 간에 배려는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서로의 감정만 더욱 상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계속되는 싸움에 서로 실망하게 될 것이고, 갈수록 사이는 멀어질 것이므로 이를 악순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확연히 다르지만 동시에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이 두 가지의 관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흔히 '세대 차이'라고 부르는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갈등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 보통 기성세대는 청년층에게 '이래서 세상 물질 모르는 젊은 것들은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청년층은 '이래서 고리타분한 기성세대는 답이 없어'라고 하며 서로를 배척하고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간다. 또한 군대에서 선후임간의 갈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

다. 선임은 후임들에게 ‘요즘 이등병들은 다들 빠져가지고... 문제다 문제’ 라고 이야기하며 반대로 후임들은 ‘자기들은 대체 군 생활을 얼마나 잘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소통의 문을 닫고 힘든 군 생활을 하게 된다.

위에 갈등에는 모두 ‘서로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갈등만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기성 세대가 청년층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들의 행동을 존중해 준다면, 청년층 역시 기성 세대들이 일궈놓은 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임병이 자신이 후임병일 때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한다면, 후임병들 또한 선임병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존중할 것이다. 이것이 ‘진심의 선순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또한 ‘기적’이 우리 삶 가까운 곳에 내재한다는 것 역시 가르쳐 준다. 심심하면 도독질을 일삼는 불량 청소년이든, 시골에서 조그마한 잡화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든 간에 ‘진심’을 다해 상대방과 소통하려 한다면, 그것이 선순환 작용을 일으켜 상대방과 자신 모두에게 거대한 활력을 주는 ‘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소통 안에 진심만 녹여낸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에 멀리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삶에 지쳐 힘들다고 느낄 때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 속에 나만 혼자 괴로운 게 아닐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한 번 펜을 들어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 한 통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그걸 받은 누군가 역시 자신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낼 것이고, 우리의 고된 일상에는 그렇게 ‘기적’이 찾아올 테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일단, 시작해』를 읽고 - 우수작

601수송대대 본부중대 일병 서상우

낙엽이 지고 스산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 얼마 전 입동(立冬)이 지난 이후로는 정말 겨울이 찾아오기라도 한 듯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이렇듯 변화하는 계절 사이에서 불현듯 '혹시 나의 계절이 있다면 과연 어느 계절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생긴 때 문인 듯하다. 또한 이러한 생각이 드는 찰나에 책 한 권이 내게 다가와 나를 흔들었기 때문인 듯도 싶다. 이러한 질문 속에 나를 빠뜨린 책은 바로 김영철의 『일단, 시작해』이다. 이 책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지난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준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화려하다는 이십대. 그중에서도 한가운데인 스물다섯에 나는 서 있다. 남들과 별다른 것 없이 평범하게 자라오고 평범하게 공부하고 평범하게 노는 사이, 나는 어느새 평범한 스물다섯이 되어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만의 황금기도 거치고 땀 흘린 시간도 보냈지만 지금의 나는 더하기도 빼기도 아닌 그저 0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느새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 발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이다. 장검다리를 딛고 물을 건너야 하지만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무서워서 바라만 보고 있는 아이처럼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은 많지만, 정작 그 수많은 생각을 머리에 떠올리면서도 무엇 하나 실현시키지 못한 내 스스로의 모습이 자꾸만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이처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모두들 저마다의 이유에 의해 그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뿐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 역시 나 스스로의 변명만 늘어놓을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

수 있다면 목적지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설사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겁에 질려 발조차 떼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잘 안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은 매일 하면서도 걱정이 매번 앞서 여전히 똑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그러던 2013년 가을의 어느 날,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한때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후 20대의 아픔, 방황, 도전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와 함께 여기저기서 다양한 자기 계발서가 출간되었다. 이를 통해 여러 멘토들로부터 다양한 조언들을 접할 수 있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지혜'에 감탄해 마지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감탄은 큰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 없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그러한 책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이 책의 제목, 그중에서도 한 단어가 나를 끌어당겼다. '시작'.

시작이라는 말만큼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단어가 없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시작'은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되지만, 다시 또 생각해보면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구분 짓기 어렵다. 나에게도 이 책과의 만남의 시작을 어디서부터로 정의해야할지 모르겠다. 짧게 보면 이 책을 접하던 그 순간이고, 길게 본다면 이러한 책의 끌림을 받게 된 지금의 나를 만든 내 과거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어느새 나와 이 책의 만남은 이미 '시작'되었다.

책의 표지엔 개그맨 김영철 씨가 모 그룹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인 '열정樂서'에서 강연하는 모습이 나타나있다. 입대 이틀 전에 세종대에서 열린 '열정樂서' 강연회를 다녀왔던 기억이 조금씩 피어오르면서 내 안에 무언가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 나는 책의 표지를 넘겼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철 씨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대모사, 독특한 억양, 유머러스한 외모 등 개그맨으로서의 보편적인 요소는 모두 지니고

있지만, 특출하다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평범한 개그맨이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만큼은 그는 더 이상 그런 평범한 이미지의 개그맨이 아니었다. 어드레 그는 개그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문학계, 강단 등 여기저기서 종횡무진하며 자신만의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한동안 여러 매체에서도 보이지 않던 그가 어느 샌가 이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과연 어떻게 그가 평범한 개그맨에서 이렇게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었을지 관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더해져갔다. 그렇게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었다.

이 책은 저자 김영철이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자신의 여러 일화들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각각의 짧은 장으로 나누어서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던 그가 개그맨이 된 이야기, 평범한 개그맨이었던 그가 영어라는 다른 세상과 만나게 된 이야기,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필연으로 만들었던 그의 다짐 등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듣고 겪은 얘기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그만의 언어로 표현하여 이 책에 담아놓았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시작'과 연관되는 주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내용은 오히려 그가 살면서 얻은 삶의 지혜들을 그 나름의 생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나 역시 이 책을 처음 읽을 땐 제목과 내용이 잘 연관되지 않아 의아함을 느꼈다. '어떻게 하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지만 책을 읽으며 느끼는 것들은 그런 질문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보였다. 그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비록 처음 가졌던 질문의 답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았지만, 그의 이야기들은 내게 힘을 주고 내 마음을 힐링(Healing)해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책을 읽고 난 후, 왜 이 책이 '일단 시작해'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시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로 하여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가 직접 겪고 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의 시작'이 아닌, 책을 읽는 '우리 개개인의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비로

소 각자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이 책의 제목의 의미가 내게도 와닿았다.

책을 두 번 세 번 읽는 동안 신기하게도 내 생활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어 있었다. 축 늘어진 뱃살을 지냈던 그가 매일 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새 나도 뒀걸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영어를 듣는 것조차 버거워하던 그가 강단에 서서 강연을 하고 영어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나 또한 부대 내의 영어동아리에 가입하여 못하는 영어를 계속 입 밖으로 내뱉고 있게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내게 '시작'된 것이다!

솔직히 이 글을 쓰기 전에는 나에게 시작된 이 변화들에 대해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독후감을 쓰면서 나 자신을 살피시 되돌아보니 매사에 겁먹고 나아가지 못했던 나에게도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간 다른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았었지만 정작 그러한 생각대로 변화가 일어났던 적은 많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러한 생각들은 많이 들지 않았던 반면에 책으로부터 받은 힘과 지혜가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수많은 생각들에 쫓겨 무엇을 해야 할지 매일 고민만 하는 청춘들에게 필요한건 '어디로 가야하느냐'라는 방향 제시보다는 '어디든 가자'라고 하는 용기라고 생각한다. 경험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적은 만큼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길잡이'처럼 말이다.

이 책과 함께 시작한 지금 이 순간이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나의 발걸음이 한걸음 한걸음 계속되다보면 어느새 나만의 꽃이 피고 나만의 화려한 봄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라고 자문(自問)한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십대 청춘들에게 그들이 가야할 길을 알려주는 책은 많이 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선택한 길

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소중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 책 『일단, 시작해』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중반부에 김영철 씨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대답한다. ‘나는 다른 곳 어디에도 없는 나 자신만의 길 위에 있다’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일단, 시작해

저 자 : 김영철 저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출간일 : 2013년 2월 4일

나는 참 형편없는 리더였습니다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을 읽고 · 우수작

2군지사 동원계획장교 대위 양승혁

사실 바쁜 부대 생활과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딸아이를 보는 기쁨에 최근 책을 조금 멀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정훈공보실에서 피운 독서감상문 경연대회 관련 공지 사항을 보고 이참에 책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학교 때 꿈 많고 문장 한 줄에, 단어 하나에 감동을 받던 국문학을 전공한 학생이기 때문인 이유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점심시간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도서관에 올라가 책을 고르던 중 김성근 감독이 쓴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현재 계급이 대위인 나는 군대 내에서 계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분명 부하를 데리고 있는 리더임에 분명했다. 또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이기 때문에 야구에서 최고 감독의 자리로 오르게 했던 리더십을 읽고 군인인 나에게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고민 없이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책 내용은 김성근 감독이 키워낸 선수 10명이 쓴 편지 형식에 감독이 답장을 쓰는 듯한 독특한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에게 감독이 가르침과 교육방법은 달랐으나 보여준 믿음과 사랑은 한결 같았다. 다른 이들은 그래봤자 야구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으나 책을 덮는 순간 이 시대 진정한 리더십의 답안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진정한 리더십의 답안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책 표지를 보면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리더만 있을 뿐’ 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일단 이 표지만 읽고 무언가에 크게 얻어맞은 듯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병사들을 부하로 데리고 동고동락해왔다. 그 중 이 인원은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저 인원은 왜 이렇게 덤벼버릴까 이런 불만으로 가득하여 군대에 필요 없는 인원으로 단정 지어버린 적이 종종 있었다.

그 인원의 장점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혹은 그 인원의 적성에 맞는 자리로 바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그 인원을 대하려 했던 내가 너무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아니 책 표지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건 그

들을 알아보지 못한 못난 리더인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들에게 한없이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한참을 잃어 가다보니 이번에는 나의 가슴을 크게 요동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내용을 보면 한 마을에 반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산 중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를 지내고 산을 내려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진흙탕이 된 길을 내려갈 일이 걱정이었다. 그런데 이 때 우산을 준비해온 인원이 한명 있었는데 바로 가장 어린 다섯 살짜리 아이였다. 이장이 “어떻게 우산을 준비했냐?”고 묻자 아이가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기우제를 지내면서 어떻게 우산도 준비 안했어요?” 이 얼마나 당당한 말이면서 쉽게 준비하지 못하는 행동인지 ‘준비’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갑작스럽게 불청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김성근 감독은 그것을 알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불청객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모른다.

나 역시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진지공사도 하면서 부대를 지휘했지만 막상 검열이나 훈련 시에는 투덜대면서 왜 하필 우리 중대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나 하는 푸념을 할 때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 중대원들과 해왔던 모든 훈련과 작업이 크게 보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작게 보면 상급부대 검열과 훈련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 없어 하고 투덜댄 이유는 바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책의 내용처럼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2년이라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나와 같이 근무한 나의 부하들에게 기우제를 지내고 우산을 준비하는 철저한 준비성을 가르치지 못한 내가 부끄러웠다.

또 하나의 일화는 9.11 테러가 일어난 날의 이야기였다. 감독이 한 선수를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저게 뭐냐? 영화냐, 드라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선수는 “저것은 진짜입니다.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감독이 한 말이 “그러면 메이저리그는 하나?”라는 것이었다. 조금은 엉뚱하고 이기적인 일화일 수 있지만 감

독은 야구만 생각하고 야구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꾸 나를 비판하면서 과거를 반성하다보니 내가 너무 무능한 리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지휘관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마구 나를 비판하여 보겠다. 나는 부대를 지휘하면서 정말 끝을 파는 일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정도면 되었다 하는 안일함 속에서 나를 가두고 부하들을 위한다는 거짓말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정도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과 부하들을 위한다는 거짓말로 세상과 타협하면 할수록 내 부하들을 오히려 전장 속에서 죽음으로 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이다. 정말 부하를 위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훈련을 위하여 연구하여 부하들에게 교육했어야 옳은 것이었다. 김성근 감독처럼 9.11 테러가 일어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좋은 자료로 쓰일 메이저리그 경기 유무가 9.11 테러보다 더 중요하듯이 나 또한 열정을 가지고 부하들을 지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명 받은 마지막 일화는 윤재국 선수와의 일화이다. 부상을 크게 당하여 방출당한 윤선수를 불러 다시 해보자고 하면서 전지 훈련을 떠났다. 그런데 그 선수가 부상당한 부위가 다시 아파와서 절망하며 감독에게 “죄송합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보내주세요.”라고 하자 감독이 “힘드냐?”고 하자 “예, 이젠 지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선수가 감독에게 절을 하자 감독이 맞절을 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구단에 팀장이 병원 스케줄을 잡은 것이다. 구단에서는 선수가 야구를 그만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혹시라도 한국에 가면 마음이 바뀔까봐 감독은 그렇게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느끼는 리더십은 바로 믿음이다. 그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도 할 수 있다는,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신뢰, 그것이 몸이 아프지만 감독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했고 감독은 혹시 마음이 변할까 구단에 부상 사실을 숨기며 끝까지 그 선수를 믿고 응원했다. 김성근 감독이 말했다. “왜 이렇게 모질게 때론 바보처럼 살았냐고? 그럼 어떻게, 그들의 꿈과 미래가 내 어깨에 있는데.....” 그렇다. 김성근 감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감독이

면서도 대한민국 프로구단에서 가장 많이 쫓겨난 감독이자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존경받는 스승이다. 그리고 야구감독이 된지 20년이 넘어서야 첫 우승을 한 대표적인 거북이 인생을 산 감독이다. 그런 그가 감독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훌륭한 성적을 내주는 그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자들의 잠재력과 장점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김성근 감독 본인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게도 이런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나도 이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0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감독은 자신이 오해를 받아도 선수를 위해 변명을 하지 않았고 선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본인이 더 화를 내었으며 선수가 포기하지 않으면 본인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리더란 이런 것이었다. 나처럼 불만 많고 당장의 성과를 위해 부하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혼내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 부하의 장점을 보고 그 부하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것이 바로 리더였던 것이다. 만약 내가 지휘관을 하기 전 이 책을 읽었다면 정말 멋진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분명 내가 문제아라고 생각했던 병사들 중에 장점을 가진 인원이 있었고 잘하는 특기가 하나쯤은 있었다. 또한 생각해보면 그 인원들은 본인들의 특기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나 상황이 주어지면 신이 나서 이야기 하곤 했던 것이 생각한다. 왜 그때는 이런 것들을 미처 알지 못했을까?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성숙한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성근 감독처럼 진심을 다해 부하를 아끼고 그가 행했던 리더십을 바탕으로 나의 부하들을 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군인으로서 '나라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내 부하는 죽어서라도 지키는 리더가 되겠다' 김성근 감독처럼.



2013년 의정부시
직원 독서경진대회 수상작



철학을 모든 학문의 왕으로 즉위시켜 근대화를 이룩리한 철학자

「헤겔, 영원한 철학의 거장」을 읽고 올해의 북리더

의정부3동 주민센터 정세훈

오래전에 간접적으로 헤겔 철학의 평가를 들었다. 혹자의 평은 그가 절대정신으로 역사와 철학의 종말을 선언하고 프로이센이 국가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었다. 사실 읽을 책은 무궁무진하고 각각의 책의 수준이 소설처럼 획획 넘길 만하지 않기에 어렵다고 소문난 200년 전 철학자를 굳이 만나려 하기에는 부담이 컸다고 해야겠다. 하지만 요즘 너도 나도 지책, 지책 하기에 읽어보려는데 번역이 문제인지 내 지적 수준이 문제인지 쉽지 않았다. 남들은 지책이 현실과 관련된 유머를 적절히 구사하는 철학자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처음 손에 든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최근에 살짝 들쳐 본 다른 책은 그나마 좀 알 것 같은데 지책이 하도 헤겔, 헤겔 하다보니 헤겔을 좀 읽고 지책을 보면 읽기 쉬울 것 같아서가 굳이 오래된 철학자를 읽으려고 하는 일차적인 이유이다. 혹자는 지책이 헤겔을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해하는 못하던 일단 헤겔을 직접 만나보자.

전에 같으면 바로 정신현상학이나 역사철학강의 등 헤겔의 책에 바로 도전했을 것이다. 이제는 나이도 먹고 약아져서 가벼운 입문서도 하나 일단 읽고, 충실한 헤겔의 전기를 읽어 당시의 시대상과 배경 그리고 헤겔이 어떤 사람인지 사전에 지식을 쌓으려 한다. 하지만 이 책도 두께가 만만치 않다. 주석 빼고 본문만 850쪽, 옮긴이 후기는 정신현상학 서문을 그대로 옮겨놓는 바람에 바로 정신현상학에 들어선 꼴이 되고 말았다. 약간의 인내심을 발휘해서 결국 자질구레한 에피소드까지 포함해서 헤겔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다. 책의 두께로 볼 때 이것보다 두꺼운 전기는 없을 듯 싶다.

동념은 헤겔이 프로이센에 충성한 관학주의 철학자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기질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거리가 먼 보수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프랑스 혁명의 이상에 굳건히 매달리는 근대적 삶의 예찬가였다. 그는 성격적으로 늘 보수적이었지만 사회의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가이자 현존하는 사회질서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고자 했다.

헤겔은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귀결된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그의 혁명적 시도들이 실패

로 돌아갔지만 그의 등장 이후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국가들에게 점진적이고 불가
피한 개혁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근대화의 과제로 자리잡았음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방법으
로 거기에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근대 세계의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 모
든 학문의 중심에 철학이 자리잡아야 하며 이는 철학이 신학을 극복하고 자연과학의 도전을
이겨내며 대학의 중심 학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
랜 노력 끝에 베를린 대학 교수로 채용되어 나중에 대학 총장의 자리에 오르고 학술원 회원
이 되고 국가의 훈장까지 받는다.

당시대에 가장 성공한 철학자였지만 헤겔은 단순히 보수적인 철학자가 아니었다. 칸트 이후의 관념 철학의 발전을 이끌었고 바스티유 감옥 점령일에 매년 기념 축배를 들 정도로 자신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이어받아 자신의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려고 모든 학문에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철학 뿐만 아니라 역사학, 미학 그리고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자연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강의하면서 젊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려 노력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개인 성격은 보수적이지만 이념은 진보적이었던 헤겔의 이중성은 그의 삶 전체에 나타난다. 평범한 공무원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야 했으며, 대학교수 자리를 요청하는 청탁 편지를 30년 가까이 거리낌 없이 무수히 많이 보내서 결국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자리를 얻는 세속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국가적인 인물로 낙인 찍힐 위험을 무릅쓰고 당국에 구금된 사람의 석방을 종용하기도 하고 반국가 혐의로 투옥된 제자를 한밤중에 몰래 면회하는 모험도 감행하며 모든 이들이 꺼리는 사람의 결투 참관인을 자처하여 결투 당사자를 화해시키는 등 세간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의 의지나 자연법에 호소하는 것은 근대 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직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유롭게 집단적으로 창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만이 근대 국가의 행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종교는 그 안에서 인간이 인류의 최고 관심사를 깨닫고 반성하게 되는혜궐의 용어로 “절대적 내용”, “절대적 본질”을 반성하게 되는 세 가지 기본

적 실천 중 하나로서 예술과 철학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종교는 미적 경험이나 개념적 반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방식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은 그의 적대자한테서 범신론자라는 당시에는 무신론자로 간주되어 사회적 경력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맡은 역할이지만 행정가로서 역할도 훌륭히 해낼 실무적인 능력도 갖추었고 김나지움 교장직과 주 16시간의 강의를 하는 교수직을 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연구를 하면서 책을 저술하는 놀라운 정열을 보여주었다. 헤겔은 사후 그리고 현재의 평가가 어떠한 칸트 이후 독일 관념론을 이어 받은 철학자이면서, 그의 철학 용어가 지금까지도 철학적 사고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시대적 한계를 넘어 한번쯤 살펴봐야 할 철학자이다.



헤겔, 영원한 철학의 거장

저 자 : 테리 핀카드 저, 태경섭 역

출판사 : 이제이북스

출간일 : 2006년 7월 31일

그들처럼 살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읽고 · 율해의 복리더
시민봉사와 이정숙

머리맡에 두고 항상 읽고 싶은 책. 문득문득 그들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혼자 생각하게 만드는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난 이 책을 선택할 것이다. 처음에 이 책을 구입한 동기는 아마도 이 책의 저자인 헬렌이 유명한 명사가 크리스누나무르티의 연인이라는 다소 통속적인 호기심에서였다. 하지만 이 책은 나에게 소로우의 책 못지않게 자연적인 삶, 자유스러운 삶을 향한 열망을 일깨웠다. “혼돈 대신에 조화롭고 하나로 된 느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나요? 막연하긴 하지만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부딪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손실을 가장 작게 하고 가장 커다란 성장을 이룰 것인가.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적은 고통 속에서 가장 많은 쾌락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관심의 중심, 곧 일상생활에서 결가지들을 ‘떼어버리고’ 남은 알맹이를 찾는 일.
2. 누구나 그 속에 들어있고 어떤 식으로든 담아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으며 열려있는,
 1. 영원한 힘을 가진 우주와 만나는 일.
3. 저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면서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어떤 일(창조적인 일)을 발견하는 것.
 1. 그 일은 저마다의 생계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만족스럽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회적인 만남, 우정, 개인 관계를 세워가는 일.
 5. 끊임없이 인격체를 성장시키되, 통일되고 원만하며 조화로운 상태로 엮여가는 일.

한번쯤 오늘 내 하루는 어떠했는가 하고 돌아보게할 이 글은 스코트 니어링이 훗날 자신의 부인이 되는 헬렌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편지에도 나타나듯이 스코트 니어링은 “사회복지, 공동의 가치, 공동선을 드높이는 일에 헌신하겠다”(28쪽)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했고, 평

생을 그 전언에서 한 치의 벗어남 없이, 그야말로 조화롭고 인간으로서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런 스코트에게, 인생 최대의 이해자이자 조력자이던 헬렌은 스코트가 인간다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와 함께 한 '삶과 사랑 그리고 그 마무리'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낸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끄는 것은 바로 이들이 시골에서 이룩한 인간답고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지나치게 번잡하고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긴 니어링 부부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꼭 필요한 만큼의 식량과 생필품을 얻기 위해 직접 땅을 일구면서 육체를 움직여 얻는 기쁨을 맛보았고, 영혼과 정신을 살찌우기 위한 공부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고요함을 얻었다. 더불어 공동선을 위해 애쓰겠다는 스코트의 다짐처럼, 저술과 강연도 멈추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포기한 것은?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들) 바로 전기, 새 옷, 맛있는 음식, 커피와 담배 그리고 술, 텔레비전과 전화이다. 니어링 부부는 그 모두를 포기하고 충만한 삶을 얻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하고 자문하게 만드는 이 책은,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던지고 숲으로, 자연으로 들어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혼돈 대신에 조화롭고 하나로 된 느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를 묻고 있을 따름이다. '언제나 생활은 안단테로'라는 구절이 문득 생각이 났다.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받아들이며, 마음엔 언제나 평화가 깃드는 삶이 아름다운 삶일 테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의 늪에 빠지면서 늘상 힘들고, 피곤함에 지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고, 이들 부부와 같은 삶을 살 순 없지만, 적어도 본받고 싶다는 희망과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

나도 바보가 될 수 있잖아

『바보 Zone』을 읽고 · 독후감 최우수
회계과 서명학

첫 번째 독후감을 제출한 것이 2월 12일인가. 두 번째 독후감을 제출하기 위해 책을 선택 하던 중, 책꽂이 앞에 꽂혀 있던 새 책이 눈에 들어와 책 표지를 열어보니 '2011.6.27. 허일 회 증'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첫 번째 독후감의 책은 65사단장 시절에 받은 것이었고, 이번 책은 안보정책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 나에게 건네준 책이었다. 2011년 책을 건네받았지만, 아주 새 책으로 지금까지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책이었는데, 독후감 제출을 위해 책을 읽게 되다니, 참으로 인연이 많은 책이 아닌가 싶다.

『바보 존』이라는 책을 서두에 읽어가면서 느낀 점은 역시 책을 쓰는 저자들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평상시 접해 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아닌, 고 김수환 추기경, 이순신 장군, 유명인들을 바보라 칭하는 저자의 즐거리에 반감이 생겨 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저자는 우리가 접하는 평상적인 바보가 아닌 하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연구하는, 그리고 몰두하는 특이한 천재들을 바보라 칭하면서 바보존을 엮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들은 바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는 아니다. 그들은 한곳에 모든 것을 몰인하는 몰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에 책의 서두가 그리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다. 아니다. 거부감이 일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책의 중반부, 후반부를 읽어 나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바보들도 그와 같은 천재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책의 힘이 그런 것인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시작된 초반부. 독후감이 아니었다면, 더 이상 진척이 없었을 책의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읽어 나감으로써 저자와 공감 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바보존이란 책 내용은 계산적이지 말고 모든 것에 순응하는 인간이 되라는 것이 추가 아닌가 싶다.

바보철학 12훈 : 상식을 의심하라, 망상을 품으라, 바로 실행하라, 작은 일을 크게 여기라,

큰 일을 작게 여기라, 미쳐라, 남의 시선에 매이지 마라, 황소걸음으로 가라, 충직하라, 투명하라, 아낌없이 나누라, 노상 웃으라.

모든 것이 실천하기에 아주 쉽게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들이 지킬 수 없는 모두가 잊고 사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철학들이다.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남들과 공존해 가려면, 꼭 실천해야 하는 평범한 것들을 나열해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를 실천한다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명제들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모두가 잊고 사는 부분들을 저자는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보스러움도 있지만, 천재성도 함께 갖고 있다고 알려 주는 책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책의 저자를 폄하했다면 책을 모두 읽은 후에는 '아, 그렇구나, 인간은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언제 해 주는 책이기도 하였다.

바보 철학 12훈 중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은 바로 '실행하라'가 아닌가 싶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무엇 하나 하려면 이것저것 다 재 보고, 이럴 때는 어떨까, 저럴 때는 어떨까 하고 무단히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은 할 것이면서 왜 이리재고 저리 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 반성해 보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12훈 하나하나는 공감은 가지지만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작은 일을 크게 여기라는 부분과 큰 일을 작게 여기라는 부분이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지만, 교훈을 주는 도서들이 늘 그러하다. 어떤 때는 작게 여기고 잊어라, 어떤 때는 가슴에 담고 잊지 말아라. 저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많은 도서들을 인용하여 사용한다. 그렇듯 저자들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맞지 않으니 그 판단은 결국 독자인 나의 책임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끌어 가야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에게 책이란 우리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도 있지만, 실수를

그만큼 적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한다. 인생사 정답은 없다, 그렇다고 누가 잘 살았고 누가 못 살았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가 이야기 하듯, 나는 바보일 수도 있고, 평범한 존재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책에서 주는 조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책을 쓰는 이들도 많은 실패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글들을 많이 추려내고, 도움을 주고자 교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바보존을 접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직까지 나만의 의식이 완성되지 않아서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독후감을 쓰기 위해 한 권 한 권 읽는 이 한권의 책들을 저만치 시간이 흐른 뒤에 읽는다면, 또 다른 감흥이 일지 않을까 싶다.

일단은 책을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달에 한번 독후감을 써야 하니. 그러나 이 의무감이 언젠가는 책을 벗삼아 사는 나로 변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약삭빠르게 살고 있는 이들, 나만의 출세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이들,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이들,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금하게 구는 나의 선후배 및 동료들에게 이 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바보로 사는 것도, 바보가 되어 보는 것도, 바보처럼 우직하고 바로 바로 행동하는 기회를 가져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보는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늘 한가지에 전념하면서 성급하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똑똑한 바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보적인 성향과 천재적인 성향을 모두 갖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빛나느냐는 것은 본인이 그때 그때의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해야 하겠지만, 나만의 세상에서는 좀 더 바보스럽게 살아간다면 한결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어 편안한 삶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두 번째 도서에 대한 느낌을 마무리 해본다. 다음에 읽었을 때도 과연 그 느낌 그대로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잤다

『인생을 낭비한 죄』를 읽고 · 독후감 최우수
수도과 김경화

시간이 날 때마다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나 대형서점에 들러 책을 구경하고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다행스럽게도 집에서 7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고, 지하철 몇 정거장만 가면 대형서점이 있기에 많은 책을 구경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대충 파악하며 지낸다. 물론 그 책들을 다 사서 읽는 것은 아니지만 진열된 책들을 이리저리 뒤적이다 보면 그 나름대로 재미가 느껴진다.

얼마 전 서점에 들렀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 잠시 멈추어 서서 책의 서문을 읽기 시작했다. 『인생을 낭비한 죄』 제목만 들어도 누가 나보고 하는 말 같아 가슴이 뜨끔했다. ‘인생을 낭비한 죄 -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잤다.’ 모든 사람이 그 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6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인생에 대해 통찰한 것들을 저자가 잘 모아서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며, 수행자들이 전하는 가슴 울리는 치유의 말씀들을 잔잔하고도 따스하게 이야기한다.

정성을 다해 세상을 대하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 (혜국 스님)

누구든 밥값을 하지 않으면 도둑이나 다름없다. (성철 스님)

가져가는 것은 그의 일, 나의 일은 주는 것뿐이다. (승산 스님)

끊지 말고 풀어라. 맺힌 것은 끊지 말고 풀어야 한다. (탄성 스님)

나이 때문이 아니라 꿈을 버릴 때 늙는다. (백졸 스님)

삶, 몰입해서 최선을 다할 뿐. (환성 스님)

모두 주옥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들이다. 이 책에는 성철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의 일화가 실려 있다. 그들이 수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 냈는지 진솔하고 담담하게 써내려간 글을 읽으며 한편으로는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책 서두에 영화 파피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한 영화 파피용.

파피용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파피용이라는 한 남자가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을 쓰고 교도소로 끌려가게 되는데 교도소로 가던 중 드가라는 남자와 만나게 된다. 둘은 같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같이 교도소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두 번의 탈출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 7년 간의 독방생활을 하게 되지만 결국 세 번째에 교도소 탈출에 성공한다. 파피용은 독방에 있을 때 심판을 받는 꿈을 꾸다. 파피용은 꿈속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간다. 저편에는 배심원들과 재판관이 기다리고 있다. 파피용은 말한다. 자신은 무죄라고,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그리고 재판관은 말한다. “그래 그건 맞다.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다.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됐다.”라고. 파피용은 힘없이 유죄를 인정한다.

파피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았던 친숙하고 유명한 영화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치며 보았던 그 장면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사실, 이 장면이 영화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호된 충고와 가르침을 주는 의미 깊은 장면이었다. 결국, 파피용이 죽음의 섬인 감옥에서 끝내 탈출한 것은 인생을 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수많은 수행자들을 취재한 저자는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중에서 마음에 남는 글들을 옮겨 보았다.

“영원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아는 것에 있으며,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행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수시로 묻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수행이란 길을 꾸준히 걸어보세요. 오래 하다 보면 틀림없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돈이나 명예나 이성 등을 추구하는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려 있는데 돈이나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이 먹고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럼 진짜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선(禪)의 시발점입니다. 적당히 어설프게 도전해서는 안 돼요. 모기가 무쇠솥을 뚫으려는 그런 무모한 용기로 달라붙어야 돼요. 그것은 생명을, 모든 정성과 의지를 다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좌절하는 일들이 다 합쳐져서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이루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인생이라고 여기며 수용해서 극복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좌절은 희망의 양식이 됩니다.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반드시 희망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미운 것까지 사랑하세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면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원수입니다.”

“생각과 말을 모두 긍정적으로 하세요. 남을 칭찬해주는 말을 하세요. 말로 짓는 복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삶에서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놓고 살면 현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법이 없다. 다만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물어라.”

치열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순간이라도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모든 것은 분별하는

마음에서 생긴다.”라는 글이 있다. 분별이 있다 보니, 나와 너, 내 가족과 너의 가족, 나의 것과 너의 것,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같은 구별이 생겨나고, 여기서부터 욕심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나만, 내 가족만,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이 좁아지는 것이다. 또한, 용서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다른 이를 원망하는 마음은 많아진다. 잘못된 일은 자신의 탓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며 누군가를 원망한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줄이려면 하루에 잠시라도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는 동안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나는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만약 인생의 심판관이 나에게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라고 판결을 한다면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다. 누구나 인생은 단 한번뿐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지금까지 인생을 낭비해 온 나에게 주어진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살아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순간순간 깨어있는 상태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문화는 우리들 주변에 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읽고 · 독후감 우수
카농3동 주민센터 백남협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가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던 곳을 알게 되었고 또 내가 다녀온 곳도 내 눈으로 본 것과 글쓴이의 눈으로 본 것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탁족을 아주 즐겨 계모임 형식으로 탁족 여행을 떠나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천길 벼랑에서 옷을 털고 만리로 흐르는 물에 발을 씻는 풍류”가 있었던 것 같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면서 등산을 즐기는데 그때는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담소와 노래를 즐겨했던 것 같다.

옛날사람들이 탁족을 즐긴 것은 정자문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자에 모여 풍류를 즐기던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이야말로 가장 어울리는 행위로 생각된다. 여행지 중에 ‘무진장’이란 말이 있다. 아주 많은 것을 무진장이라고 하는데 이 책속에서 무진장이란 말을 들으니 정겨움이 있다. 그러나 내용은 부정선거와 연관되어지는 것을 볼 때 왠지 아쉬움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무진장은 산림청교육을 가니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무안 진안 장수에 리기다소나무를 아주 많이 심어 무진장 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는데 글쓴이는 부정선거를 생각하고 무진장을 연상한 것을 볼 때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것에 편리하게 연관 짓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 것 같다. 한탄강 고석정에 있는 송일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다리 아래쪽에 안내문이 있는데 그 안내문을 읽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6.25전에 시작한 다리 공사가 전쟁이 끝난 후에 완성되어 김일성과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자 중 한자씩을 따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나 역시 그리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다리 공사를 한 박승일 대령을 기리기 위해 다리 명을 송일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이란 참으로 묘하고 위험한 것이라 생각된다. 늘 조심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말이라 생각해본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하게 된다. 마음먹고 하는 여행이 있는가 하면 일상 중에 하는 여행, 책과 구전을 통해 하는 여행도 있다. 큰맘 먹고 하는 여행은 무엇인가 잘

보고 느끼고 얻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구경할 때 마음 먹고 천천히 처음부터 가장 위쪽에 있는 건물까지 구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지만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은 다리 아픈 기억과 입구에 있는 사과 밭에서 사과 먹은 생각밖에 없는데 이 글을 쓴 유홍준 교수는 어찌 이토록 재밌게 글을 쓸까 잠시 생각해본다. 사찰 입구에서 무량수전까지 가는 길은 은행나무 가로수에 길은 언덕길이라 초입부터 힘이 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인 무량수전 그 웅장함에 감탄을 하지만 그 건물의 오묘함은 모르고 보는 것 같다. 여기저기 있는 탑 건물 모두가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것들이라 그 값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친 것 같다. 그래도 인상에 남는 것은 조사당 정면에 자라고 있는 수목 한그루 의상대사가 꽃은 지팡이가 싹이 나서 자란 지팡이의 잎을 따서 달여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 때문에 나무가 수난을 겪고 있었다. 쇠창살로 튼튼하게 막아 놓았는데도 극성맞음은 현장에서 볼 수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적지 뿐 아니라 현재의 산과 들, 강과 바다도 문화유적지라 생각 할 수 있다. 지리산의 웅장함과 그 산자락에 자리 잡은 사찰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 동안 새싹이 돋아나고, 울창한 숲속에 흐르는 맑은 물, 가을의 알록달록한 단풍 잎과 겨울의 눈 덮인 산봉우리의 웅장함이 문화유산이라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강산이라 생각한다.

정선하면 아리랑이 떠오르고 감자바위가 생각난다.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바위가 아니고 금바위라고 한다니 감자의 소중함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평창의 하얀 메밀꽃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이효석의 짧은 인생에 들어있는 메밀꽃 필 무렵은 평창을 아름다운 문화기행의 명소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저자는 정선에 있는 아우라지에서 국토의 오묘함을 발견하고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모여 내를 이루고 또 강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산은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산

은 강을 넘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강이 없으면 산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을 수 있지만 강으로 인하여 산과 산이 갈라짐을 보고 산은 강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말 참으로 재치 있고 재미있는 말이다.

정선은 석탄광산, 석회석 광산 등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하자원을 공급하면서 스스로는 죽음의 길로 걸어간 슬픈 가슴과 단종임금의 애환이 깃든 고장이기도 하다. 강원도 정선의 슬픈 이야기와 자연의 장엄함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인 석굴암 이야기 속에 현대과학을 맹신한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들은 고대시대에 과학이 현재의 과학을 능가 할 수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신라 시대에 만들어 놓은 석굴암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자연에 순응하는 과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함을 알게 되어 기쁘다. 일제 시대에 완벽하게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한다고 시멘트용벽으로 견고하게 만든 것이 숨구멍을 막아 결로현상을 만든 일 박정희 군사 정권 때 습기를 막는다고 목재를 사용하여 석굴이 아닌 목굴로 만들어도 결로현상을 잡지 못하고 냉방기를 이용하여 겨우 해결하는 것을 볼 때 현대과학도 과거의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석굴암의 석불의 온아함은 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정결한가를 생각하게 한다. 우현선생은 석불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슴도 없고 정도 없는 화강지석에서 맥박이 충일하고 신성이 횡일하고 호흡이 가지런하고 온화함과 엄숙함이 구비된 위대한 이 상이 드러날 때 환희는 조각공의 손끝에 있지 아니하고 신라 천지에 휩싸인 것이요 우주 속에 메마리쳐 퍼졌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위대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일본인 요네다는 측량을 통하여 석불의 정교함을 확인했다. 석불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의 비밀 현대과학은 배관을 통하여 물을 밖으로 뽑아내고 있지만 한 과학자의 말이 큰 의미를 갖게 하고 있다. 석굴암을 만들 때 굳이 지하수가 있는 곳에 석굴을 만들고 석불을 그곳에 세운 것

은 그 지하수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말이 가슴에 남아 있다. 석불 밑 화강암에 지하수가 돌아나가게 하면 바닥이 석불이나 천정 벽보다 온도가 낮아 굴 안에 있는 수증기가 바닥에서 결로현상을 일으켜 다른 곳에는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견에 나 역시 동참하고 심은 의견이다.

한탄강하면 철의 삼각지라고 하는 철원의 이야기를 말한다. 북한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에 남아있는 노동당사, 승일교 고석정 남침용 땅굴 고려시대 후삼국시대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문화재는 휴전선에 누워있어 갈 수 없는 곳임을 한탄강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살고 이 곳과 내가 태어난 곳이 한탄강과 가까운 곳이라 한탄강과 그 주변 연천, 포천, 철원을 갈 기회가 많아 이 부분을 읽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운문사에 대한 이야기 중 노송들이 시원하게 뻗어 올라 소나무 터널들이 높이 치켜든 우산처럼 드리워진 솔밭사이를 여유롭게 걷는다. 청정한 솔바람소리에 실려 오는 낮은 소리를 들으며 무작정 걷는 순간 나는 벌열에 든 스님보다도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말처럼 소나무 숲은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소나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 더욱 좋아하는 것 같다. 남매지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말씀 가슴이 찡함을 느낀다. 세상은 너무 더러워도 안 되고 너무 맑아도 안 됨을 말씀 하신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세상이 제대로 간다는 말씀. “할아버지 물이 이렇게 더러운데도 꽃이 피네요. 뭘 말을 연꽃은 진흙 참 썩은 물이 아니면 자라지 않아 그 찌꺼기가 썩어야 양분을 빨아먹고 쭉쭉 안 크냐가 더러워야 더 잘 큰다고요?” “하루 하지만 물이 썩었다고 꽃이 자라는 게 아니어 저쪽 좀 봐 물이 졸졸 흐르지 저렇게 맑은 물이 살살 흘러야 그게 생명이 되어 꽃이 자라는 거야 수렁은 찌꺼기가 폭 썩고 한쪽에선 맑은 물이 살살 흘러야제.”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모호한 자연의 생리가 내 인생에 시사해 주는 바를 새기고 또 새기게 한다.

내소사 일주문의 전나무는 참으로 장관이다 나 역시 등산을 마치고 전나무 숲과 내소사 경

내를 볼 기회가 있었다. 전나무 숲 그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호흡을 하게 만든다. 산악국가인 우리나라도 서해 쪽 드넓은 벌판을 보니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녹두장군의 전봉준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동요, 어린 시절 많이 부르던 그 노래가 녹두장군과 연관된 애환이 있는 노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찡함을 느낀다.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있고 정이 넘치는 곳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장이다. 나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한양 가까운 곳이라 능이 많이 있어 능구경은 많이 할 수 있었다. 요즘은 중랑천 길을 걷는다. 수십년 전만 해도 한강을 오염시키는 주범과 같은 하천이었으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는 생활의 싹터가 되었다. 사람들이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자연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 사건이라 생각해 본다. 문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문화라는 생각을 해 본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 자 : 유홍준 저

출판사 : 창작과비평사

출간일 : 2011년 5월 11일

딸에게 꼭 필요한 교육

「딸은 세상의 중심으로 키워라」를 읽고 · 독후감 우수
경전철사업과 김윤진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들하나, 딸 하나를 둔 아버로서 저자가 서술한 내용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가졌다. 우리 집 아침 식사시간에 아들은 반찬을 둘러보고 본인의 하루 일과를 잠깐 이야기하고 밥 먹은 후 일어나서 간다. 그럼지만 딸은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자기 오른손으로 내 왼손을 잡고 밥을 먹으면서(딸은 왼손잡이) 아빠에게 반찬에 대하여 맛이 있다, 없다 등 식사에 열중하고 설거지까지 한다. 이것이 단편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특성으로 남자아이는 밖으로 뛰어나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관찰하지만 여자아이는 집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체험한다고 한 말에 부합한 것 같다.

딸을 세상의 중심으로 키워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날마다 공부를 시켜야 한다. 신경질적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아유, 나도 모르겠다!'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안된다. 또한, 엄마와 수다를 떨면서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요령있게 말하는 법을 배운다. 이 힘은 자기생각을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이어져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국어실력을 더욱 향상 시킨다.

여자아이만의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시작하자. 어느날 갑자기 듣지도 않던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거나 가지도 않던 미술관에 데려가는 식의 무리한 정서교육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다가 저녁놀을 바라보게 되면 '아름답다'고 말하거나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느끼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될 것이다. 귀한 딸일수록 엄하게 가르쳐야한다. 부모가 진정으로 바라는 자식상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주체성이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아주지 말고 약간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늘 분명하고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성 있게 대하여야 한다. 오빠가 있는 여자아이는 똑똑해진다. 오빠는 멀리까지 나가서 많은 정보를 모으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집으로 돌아온다. 여동생은 오빠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먼 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친절한 오빠라면 여동생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므로 보통 여자아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까지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남자보는 눈이 생긴다.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는 똑똑한 여성일수록 못한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여성들은 대부분 외동딸이거나 자매끼리 자랐다. 이는 남성 모델이 없는 환경이 그녀의 남자를 보는 눈을 가려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없는 오빠를 만들 수 없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남자아이와 놀게 하고 중학교까지는 남녀공학학교를 다니게 한다.

풍부한 표정은 여자아이의 매력이자 무기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동안 저절로 몸에 배는 것이다. “얼굴을 보니 기쁜 일이 있나보구나 뭔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니? 지금 얼굴이 활짝 펴졌는데” 라며 사소한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아이의 표정을 풍부하게 해주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인격이 훌륭하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딸은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대접받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까지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뜻밖에도 간단하다. 바로 예절 바르고 너그럽고 착한 아이로 키우면 된다. 누구나 자기 자식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귀여움 받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가정에서 예의 바른 아이로 가르쳐야 한다. 아니, 그보다 부모가 먼저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예의가 저절로 몸에 배어 반듯한 아이로 자란다. 이것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아들,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딸로 키워질 수 있다.

엄마의 대화습관이 딸의 언어 감각을 키운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내

용은 간단하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렇지만 아이가 말한 의견을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반론하라, 그리고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이야기를 주고받아라.

아이가 기뻐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면 감정을 숨기지 말고 귀엽다고 말하라. 이런 말 한마디가 딸을 기쁘게 하고, “나는 사랑 받는다, 엄마는 항상 나를 지켜본다, 난 인정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대로의 내가 좋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한다. ‘너는 정말 귀엽단다’하는 눈빛으로 아이가 느낄 때까지 바라보자. 하지만 거울을 보고 제대로 연습해두지 않으면 아이에게는 도리어 기분 나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면서 자란 아이는 섯길로 빠질 확률이 낮다. 공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모만 신경 쓰거나 남자아이의 눈만 의식하는 일도 없다. 딸을 키우는 첫걸음은 부모가 애정을 쏟는 것이다.

딸은 엄마의 독서습관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좋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법은 없다. 이것은 동서고금에 전해오는 진리다. 다시 말해 지능 향상의 핵심은 바로 독서에 있다는 말이다. 자녀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은 여러분의 손자, 그 손자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큰소리로 외치고 싶다. “아이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부터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라고.

결론으로 엄마가 감수성이 풍부해야 딸도 감수성이 풍부해집니다. 감수성이 풍부해 질려면 딸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고 늘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엄마들이여 딸은 엄마와 동성임을 잊지 말고 엄마의 딸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다. 대한민국 엄마 파이팅! (아빠들도 파이팅!)

결핍과 승복욕이 완성하는 악당의 철학을 읽고

『나는 악당이 되기로 했다』을 읽고 · 독후감 우수
사회복지과 감미정

왜 배트맨은 우울하고 조커는 항상 웃는가? 최근 우리는 기존에 열광했던 슈퍼맨이나 배트맨같은 정형화된 영웅 캐릭터보다는 조커 같은 개성 강한 악당캐릭터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영웅보단 악당이 극의 분위기를 더 다이나믹하게 이끌어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배우들조차도 예전과는 달리 악당캐릭터를 연기하길 선호하며 이를 멋지게 연기해 기존에 자신의 고정화된 이미지를 벗고 오히려 상을 받거나 대중에게 더 큰 사랑받기도 한다. 물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선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뭐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악당에 대한 끌림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 책은 그 답을 나에게 던지시 건네준다.

흔히들 영웅은 세상의 정의를, 악당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 싸우는 존재라고들 생각하지만 이 뉘앙스 이미지는 무의식중에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착각일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영화와 책을 통해 접했던 다양한 악당캐릭터를 통해서 사회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사람들을 사로잡은 악당의 긍정적 코드를 찾아낸다. 의외로 그간 사랑받은 악당캐릭터를 살펴보면 영웅보다도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어떤 것에도 겁먹이지 않은 자유분방함을 가졌으며, 심지어는 스타일리시하기까지 하다. 이런 악당캐릭터의 장점은 조직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착한 리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를 거부해하고 싶은 소리를 하지 않으며, 항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비해 악당 리더는 시간과 돈을 헤프게 쓰지 않으며 구성원들에게 관대하지도 않고 조직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과감하게 무시한다. 그로 인해 착한 리더가 악당 리더보다 도덕적인 우위는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과에 있어서는 악당의 결과에 미치지 못한다. 경영학에 뜻이 있다면 영웅이 아니라 악당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소외당하던 악당이 어느 순간 영웅이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역사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을 주창한 프로이트, 냉혹한 통치론을 펼친 마키아

벨리, 여성의 참정권과 자립을 외친 울스턴크래프트는 당대에 술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당하면서도 인류의 진일보를 이루어낸 대표적인 악당들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닷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 가깝게는 한국대중문화 콘텐츠의 기록을 갈아치운 가수 싸이 역시 주류보다는 비주류의 사고방식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는 악당 캐릭터를 표방함으로써 성공한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곧 악당의 역사이기도 하다.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대체로 매끈하고 잘생긴 얼굴로 묘사되는 영웅에 비해 악당은 하나같이 못생겼다. 턱은 뾰족하고 덩치는 터무니없이 크거나 볼품없이 말랐다. 악당들은 못생긴 외모 때문에 푸대접과 멸시를 받는다. 누구도 못한 얼굴에 가려진 그들의 실력을 봐주지 않지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에 홀로 맞서며 악당들은 점점 냉철하다 못해 냉혈한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당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며 열정과 활력이 넘친다. 감정과 욕망에 누구보다도 충실하다. 그들은 억압과 통제를 비웃으며 세상을 들쭉시키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 그래서 저자는 악당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세상을 진보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인 영웅보다는 내일 더 전진하리라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악당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거침없이 덤벼들고, 마침내 목적을 이루었을 때 온 세상이 듣도록 큰 소리로 웃는 악당. 그들은 틀에 박혀 기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무의식 속에 갈망하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탐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라든가, '무례함에서 내일의 변화가 시작된다'와 같은 이야기는 이제까지 '나쁘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도덕적 가치에 맞서 영웅이 아닌 악당이기에 실천 가능했고, 그런 행동들도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은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조커가 지닌 악당의 철학을 배우라는 말이다. 악당처럼 될 것이 아니라, 악

당의 철학을 지닌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은 세상을 짊어진 고독한 영웅이 될 것인가, 자신의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악당이 될 것인가?



나는 악당이 되기로 했다

저 자 : 김현식 저

출판사 : 한권의책

출간일 : 2012년 12월 26일

어제가
기억에서



의정부정보도서관



EM000655

책! 영화의 시작입니다.

함께 떠나는 글 여행 **언젠가
기억에서**